

제 24 호

3학년 나무학 2020 - 2021



해당화반
나유찬



시애틀 벨뷰 통합 한국학교 - 벨뷰 캠퍼스

United Seattle Bellevue Korean School - Bellevue Campus

www.usbks.org bellevue@usbks.org

부모의 기도

에비게일 반 뷔렌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며

자녀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자녀와의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자녀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또는 별을 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소서.

아이로 하여금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이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돋게 하소서.

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어, 자녀에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제 24 호 교지 발간을 축하하며 (이사장 정은구) 2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교장 권은정) 3

벨뷰 통합 한국학교 선생님들 4

유아 유치반
Pre-K & Kindergarten 5

나비 · 다람쥐 · 사슴
강아지 · 코알라 · 원숭이 · 고양이 · 너구리

초등 1, 2 학년
1st & 2nd Grade 45

파랑새 · 꾀꼬리 · 비둘기 · 앵무새 · 부엉이 · 종달새 · 방울새 · 보라매

초등 3-5 학년
3rd - 5th Grade 94

개나리 · 무궁화 · 진달래 · 채송화
민들레 · 수선화 · 해당화 · 나팔꽃

중고등반
Middle & High School 154

매화 · 난초 · 참나무 · 소나무 · 국화 · 대나무

성인반
Adult Korean Classes 196

성인1 · 성인2 · 성인3

특활반
Enrichment Classes 207

종이와 미술 · 미술1 그림그리기 · 미술2 만들기 · 미술3 · 종이접기 · 글쓰기반
손바느질반 · 한국역사반 · 중고등 한국역사반 · 합창반 · TOPIK & SAT2 Korean

제24회 교내 말하기 대회 217

Pick-up Day 218

교지 표지 공모전 수상작 220

벨뷰 통합 한국학교 온라인 예술제 222

한미 교육 문화재단 이사님들 223



제24호 교지 발간을 축하하며

시애틀 벨뷰 통합 한국학교 학생,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많으나 그 언어를 담을 그릇인
자신만의 고유 문자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아래로 우리 한글은 지난 600여 년간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정교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해 준 우리의 자랑이자
긍지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과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이곳 미국에서도 그 후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변창하는 가운데 우리 시애틀 벨뷰 통합한국학교가 그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사장으로 한없이 뿌듯합니다.

지난 2020년의 대부분과 2021년의 첫 넉 달을 미증유의 팬데믹 상태로 보냈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이 어려워졌지만 빠르게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우리 통합한국학교의 명맥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 훌륭한 학생들의 학업의 결과로 제24회 교지를 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도에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과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신
학부형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들을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워싱턴주
한미교육문화재단,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시애틀 총영사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1일

워싱턴주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회
시애틀 벨뷰 통합한국학교 이사회
이사장 정은구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벨뷰 통합 한국학교 교장
권은정

부슬부슬 쉼 없이 비가 내리는 시애틀의 겨울이 아직도 한창인 어느 날,
현관문을 나서는 저의 코끝에 문득 향긋한 꽃내음이 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꽃은 보이지 않는데.. 살짝 스치는 꽃내음만으로도 아..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곧 봄이 오겠구나 싶어 팬스레 마음이 간질간질해집니다.

답답하고 우중충한 긴 겨울을 지나듯 코비드로 인해 집안에서만 지내며 힘들게 온라인 수업으로 또 일 년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한글 수업을 열심히 잘해 준 벨뷰 통합 한국학교 학생들이 참 대견하고,
어린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여력으로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신 재단 이사회, 특별히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벨뷰 통합 선생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매일매일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호기심과 우리들의 열정은 쉬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 무섭고 어두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좀 끝이
나려나 싶다가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폭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아직은 아닌가 싶어
다시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꽃내음을 스치듯 맡고.. 하루가 지나면 다른 꽃향기가 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빨간
꽃과 노란 꽃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울긋불긋 꽃잔치가 열리는 봄이 우리의 뒤틀에 내려와 있음을
느끼듯, 우리 학생들의 미소와 웃음으로 희망을 품고 우리 모두의 열정과 사랑으로 이 시간을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곧 좋은 시절이 오겠지 희망을 품어봅니다.

모쪼록 이 힘든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벨뷰 통합에 속한 가정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그리고 내일을
세워 갈 우리 자녀들과 벨뷰 통합의 앞날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권은정 교감 이윤경

연구부장 김부연 교무부장 이원정 재무부장 정지연 관리부장 이모란 음악 진현정

유아, 유치부장 정은희 초등 1,2학년 부장 이경희 초등 3-5학년 부장 홍선의 중고등 부장 정동순 성인반 부장 김은주

유아 유치반

나비 윤성현 담임주 임수진 사슴 박영주
강아지 정경숙 코알라 정지연 원숭이 정지연 고양이 오현숙 너구리 주정아

초등 1,2학년

파랑새 안예슬 꾀꼬리 김현미 비둘기 꽈수진 앵무새 박계영
부엉이 이지은 종달새 안영아 방울새 김선영 보라매 이경희

초등 3-5학년

개나리 홍선의 무궁화 박태은 진달래 이보영 채송화 김화령
민들레 이은정 수선화 김선경 해당화 성은영 나팔꽃 김부연

중고등반

매화 박영희 난초 정동순 참나무 장지연 소나무 이윤진 국화 이원정 대나무 조지숙

성인반

성인1반 김경미 성인2반 김은주 성인3반 민경희

특활반

종이랑 미술이랑 안영아 미술 1 유안나 미술 2 정지연 미술 3 심재경
종이접기 이경희 손바느질 김재희 고급 글쓰기반 김현미
한국역사반1 민경희 한국역사반2 이원정 TOPIK & SAT 2 Korean 이윤경

Pre-K • Nabi

담임: 윤성현

인턴교사: 구지애

조교: 스틸웰 세라, 이동렬, 정우제

김소망, 시느갈 모모, 안은정, 오하루

이태오, 최시우, 프리스테라 연아

해일 루크



- 나비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이번학년이 끝나고 우리 나비반 학생들이 유치반으로 올라간다는게 믿기지가 않아요! 나비반 친구들, 이번년 너무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즐거움도 많았어요! 선생님은 우리 나비반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이 많아요. 꼭 계속 한글을 연습하고, 또 중요한한건 한국 문화를 잊지말고 우리는 한국사람들이란 것을 잊지 마세요! 나비반 친구들 선생님은 우리 반을 너무 사랑하고 선생님은 우리 나비반을 꼭 기억 할께요! 여름방학 잘 보내고 내년에 봐요!

Hi nabiban friends! I can't believe we are done with this year and you are going into kindergarten! I am so excited for you! This year, you did an amazing job studying hard, working hard, and most importantly having a lot of fun! I am so so proud of each and everyone of you and thank you so so much for studying with me this whole entire year. I have lots of hopes and dreams for you. Continue to study Korean! Never forget your Korean culture! Never forget that you are a Korean-American! I love each and every one of you so much and I will never forget the memories we've made. Have a fantastic summer break and see you nex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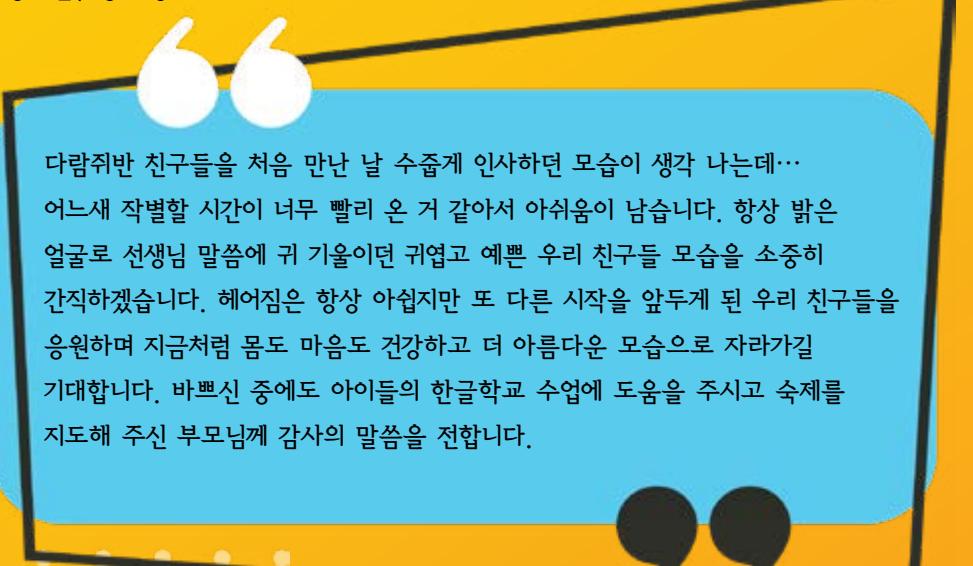




다람쥐반

담임: 임수진
조교: 서혜림

안필립, 윤라준, 김지호, 정라온, 정화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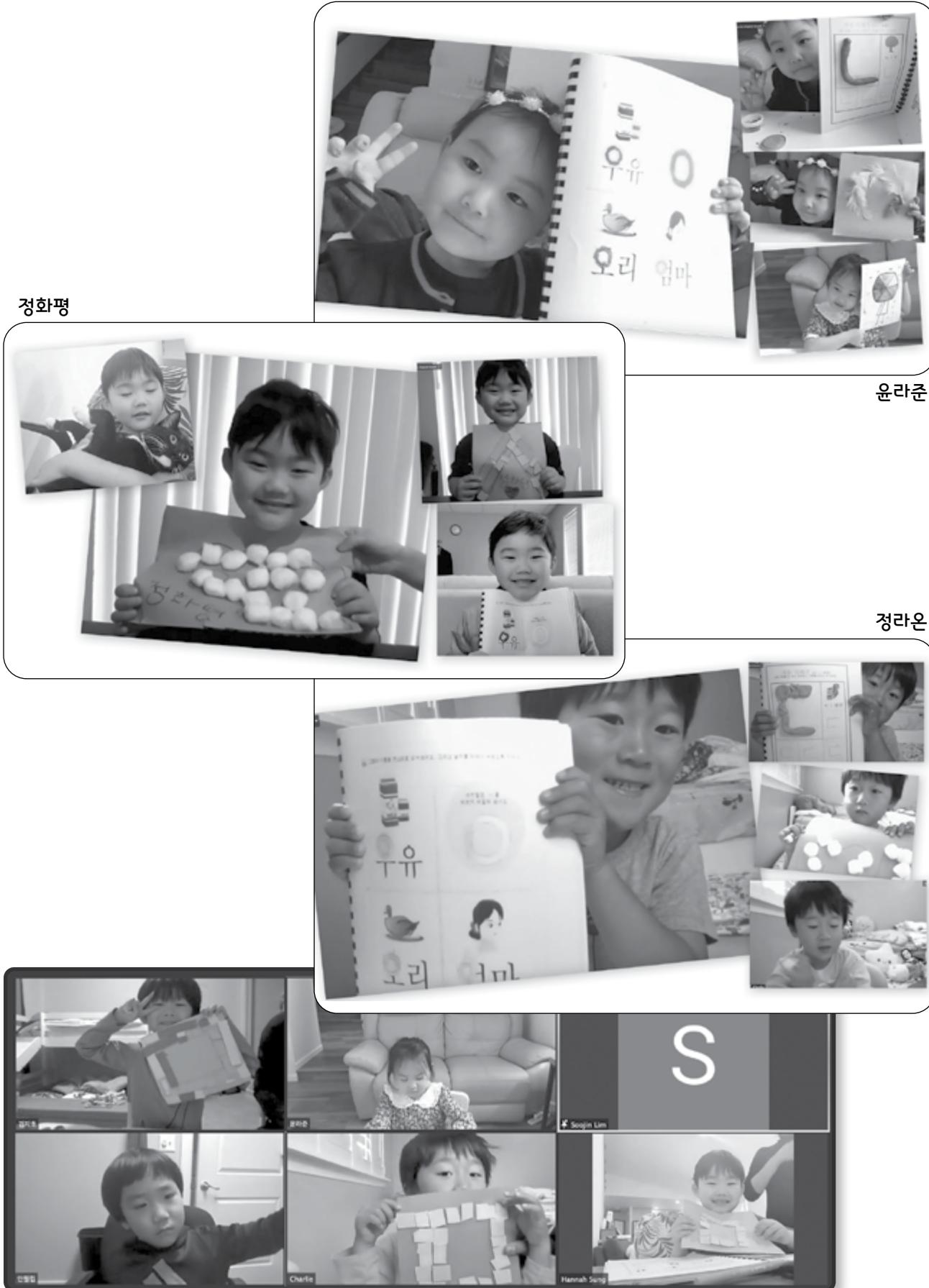
김지호



안필립



Pre-K • 다람쥐 Daramji



Pre-K • 다람쥐 Daramji



사슴반

담임: 박영주
조교: 김나희, 정다은

김다운, 김제나, 박세아, 송이나, 신지원, 이민재, 이예성, 이태민

벌써 한 해를 마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수업이 즐거움으로 가득 찼기를, 그래서 앞으로 한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윤이, 제나, 세아, 이나, 지원이, 민재, 예성이, 태민이,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슴 반 졸업을 축하합니다. 조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사슴 반 모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한 매순간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일 년을 가능하게 해 주신 열정 가득한 부모님들께 모든 공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4.8. 날씨 맑음 기분 ☺☺☺☺



별글 대비는 무섭
다. 1 리고 코가
별글하고 책을
좋아해요.

2020-2021
명동 단국학교
김다운 김제나 박세아 송이나
신지원 이민재 이예성 이태민
사슴반
졸업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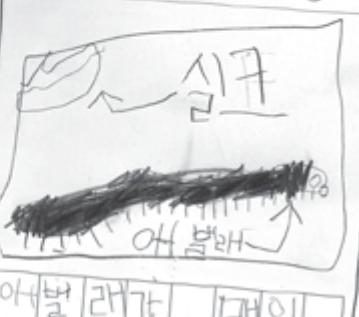


2021.3.30. 날씨 맑음 기분 ☺☺☺☺



언니랑 펭이 만
들었어요. 좋았어
요

2021.4.6. 날씨 맑음 기분 ☺☺☺☺



실구
애벌래가 매일
자라고 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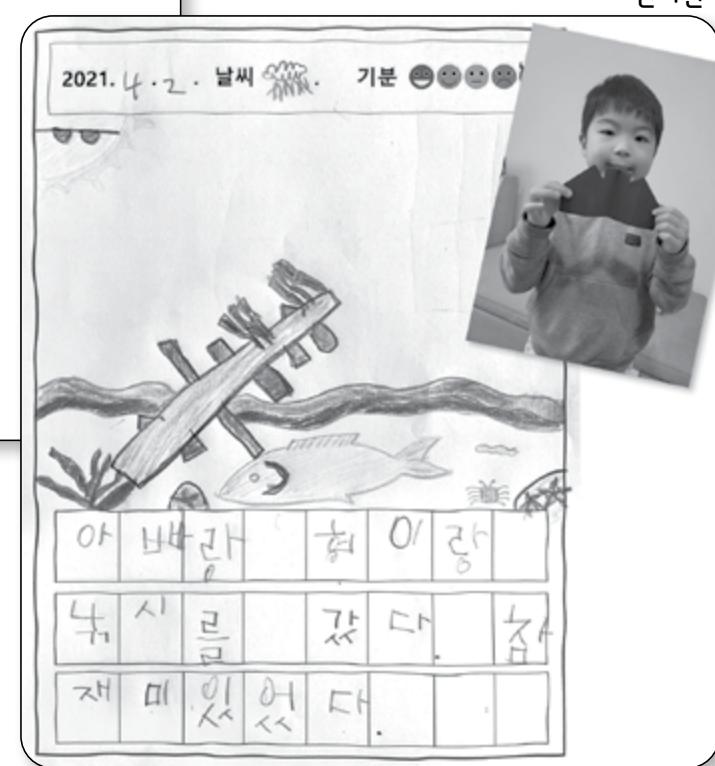
2020-2021
명동 단국학교
김다운 김제나 박세아 송이나
신지원 이민재 이예성 이태민
사슴반
졸업을 축하합니다.

https://youtu.be/OZ8p_KGBw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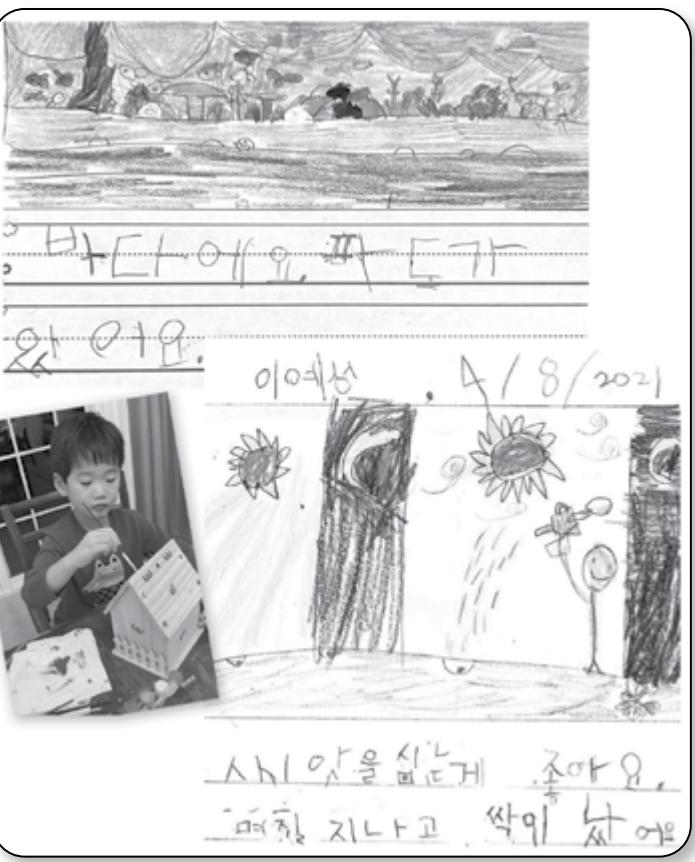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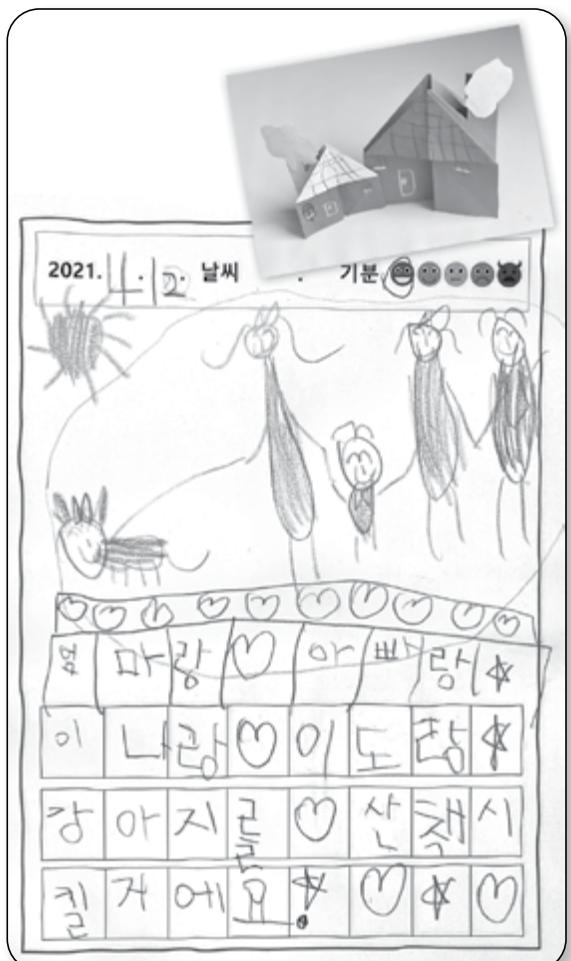
이민재



신지원



이예성



송이나



Pre-K • 사슴 Saseum



Pre-K • 사슴 Saseum



Pre-K • 사슴 Saseum

Kindergarten • KangAhJi

강아지반

담임: 정경숙
조교: 이승민, 이세미
김나예, 김노아, 김애영, 다니엘,
클레어, 예주, 우이나, 웬디, 하울

참으로 긴 유행병이 해를 넘어 섰습니다.

길고 답답한 기간동안 우리 강아지반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번씩 만난다는게 정말 갈증나는 세월이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라운 집중력으로 처음엔 절 쫓아오더니 중간평가 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더 많은것들을 배우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린이들로 변해버렸습니다. 학년초에 세운 교과 계획안 진도를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켜 주는대로 마구 마구 습득해 버리는 통에 다른 해와 달리 더 많은 수업준비를 하면서 제 얼굴은 늘 미소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대견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한명 한명을 푸근히 껴애텨면서 칭찬을 푹푹 심어주고 심은데 “참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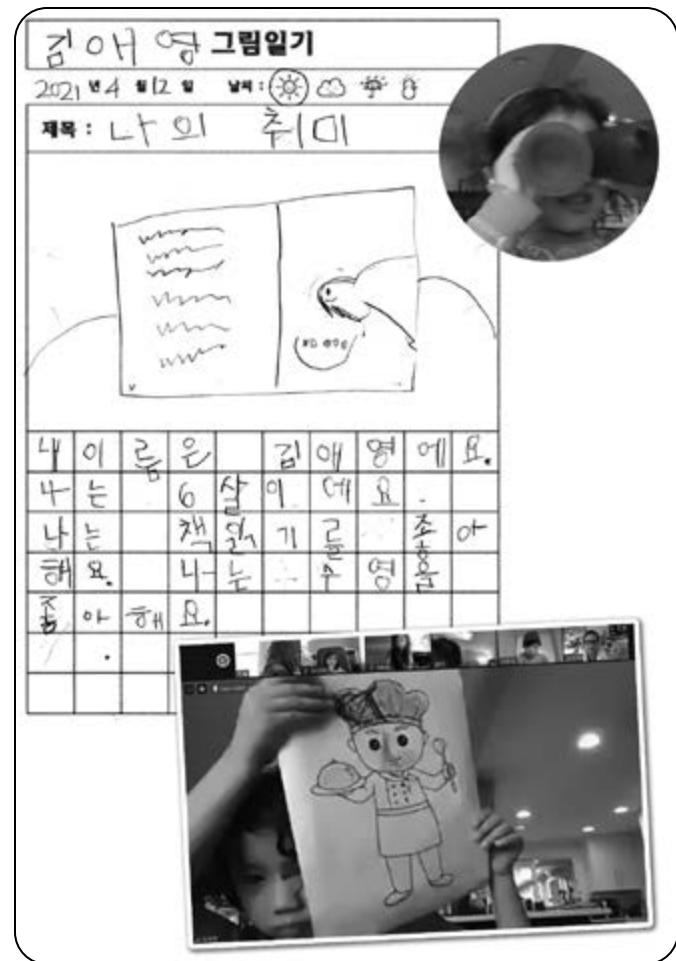
제게 너무 소중하고 귀엽고 유특한 강아지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매번 수업 마치는걸 늦장 부렸었는데 어느새 진짜 우리 강아지들과 헤어져야 할 날이 도래 되었네요. 학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들 옆을 끝까지 지켜주신 학부모님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만큼이나 아니 더 많이 열정으로 함께하신 이유로 감동과 기쁨을 아이들로 부터 받으실수 있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릴겁니다. 새학기엔 꼭 학교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한해동안 우리 강아지반에서 봉사를 함께한 우리 조교 이승민 학생과 이 세미 학생도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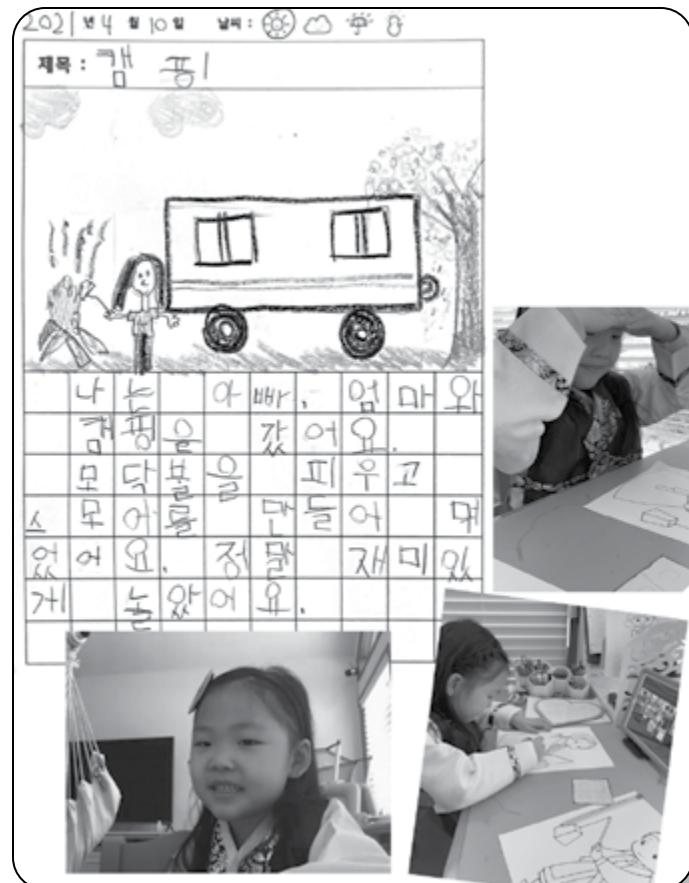
두 분도 함께 감사합니다.





하울





클레어



코알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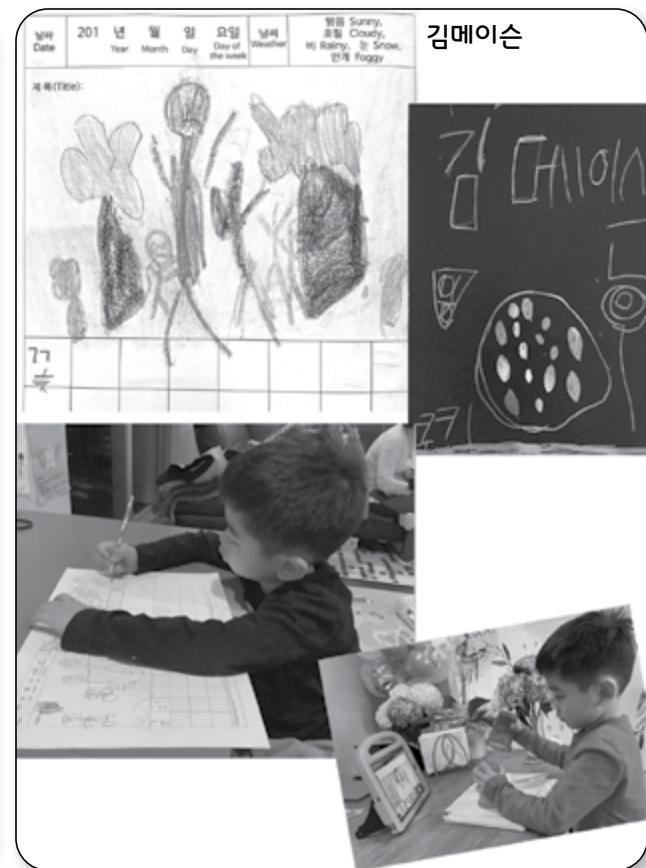
담임: 정지연
조교: 류동현, 박도현

강수인, 김메이슨, 김찬희, 김하윤, 이민희, 이여준,
이지호, 정이안, 조민식, 조한솔, 최나린

“
안녕하세요? 코알라반 담임 정지연입니다.
수줍게 얼굴을 내밀던 첫 수업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초롱초롱 예쁜 눈을 마주치며 더듬더듬 한 글자씩 읽기 시작하고, 작은 손으로
또박또박 예쁘게 글씨를 쓰며 서로 자신이 쓴 글씨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던
코알라반 친구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사랑받는 코알라반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수업을 위해
곁에서 늘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 수고해 주신 박도현, 류동현 조교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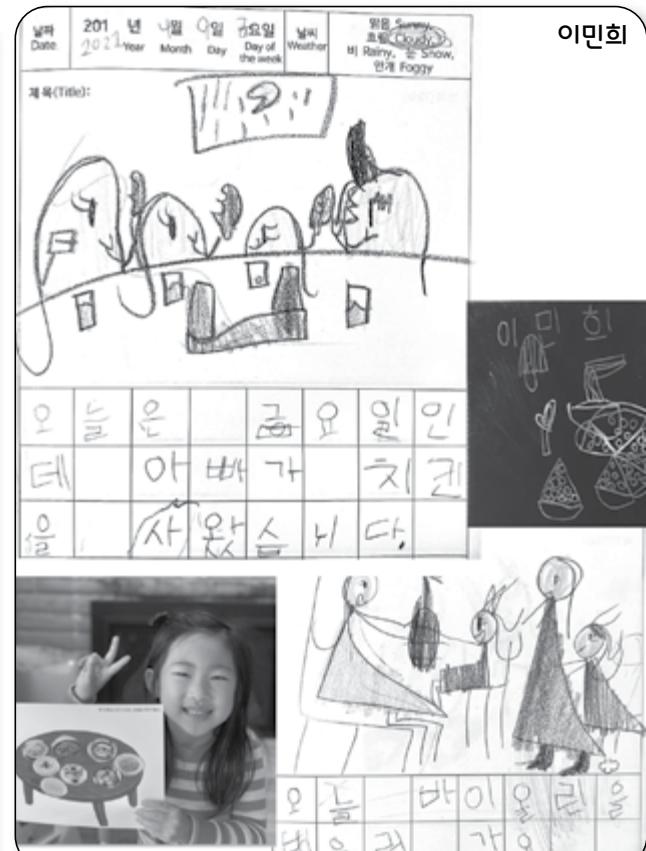
강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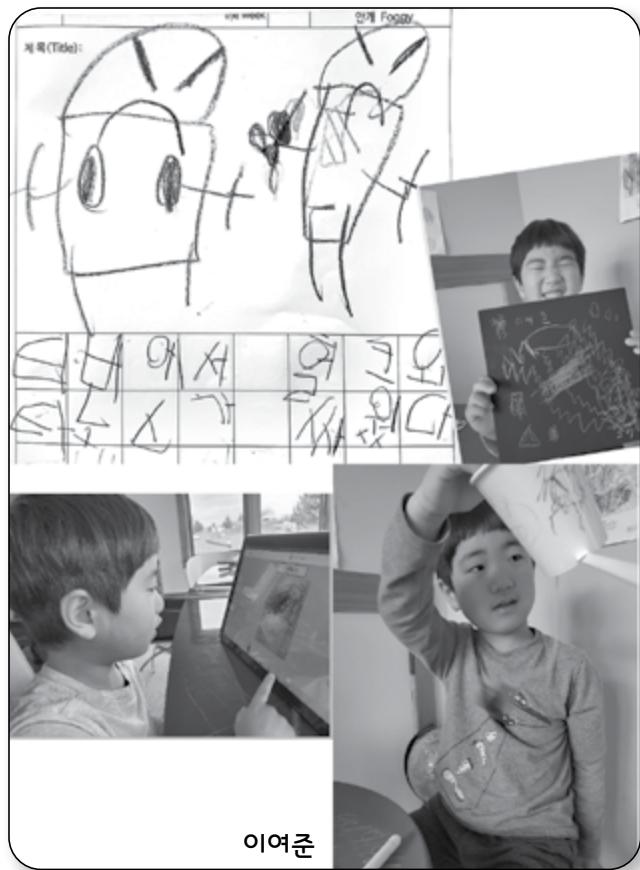
김메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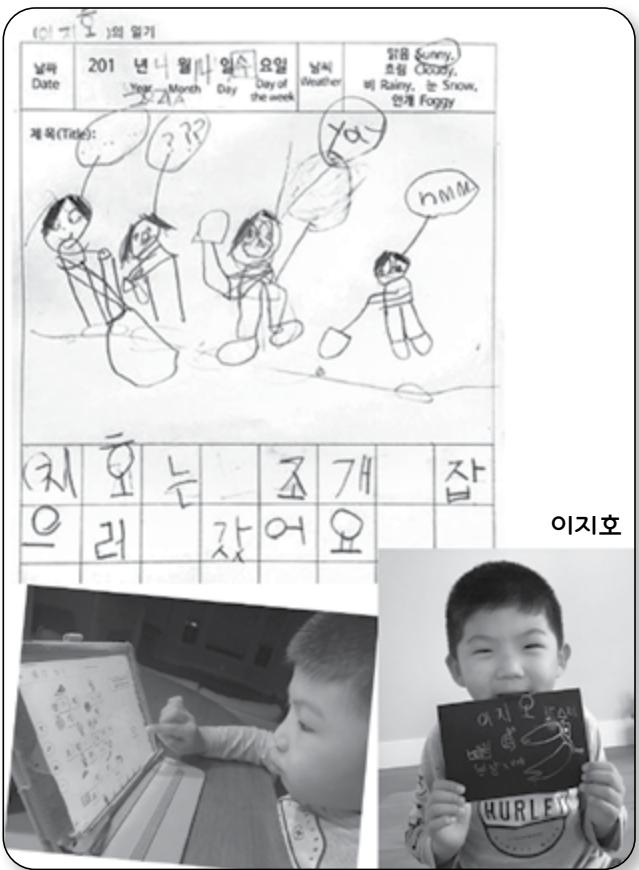
김하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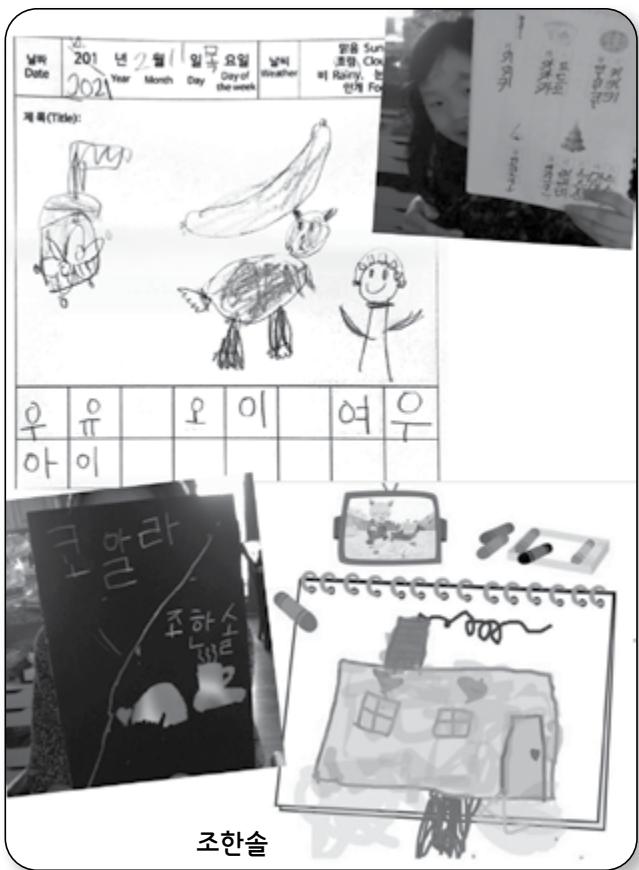
이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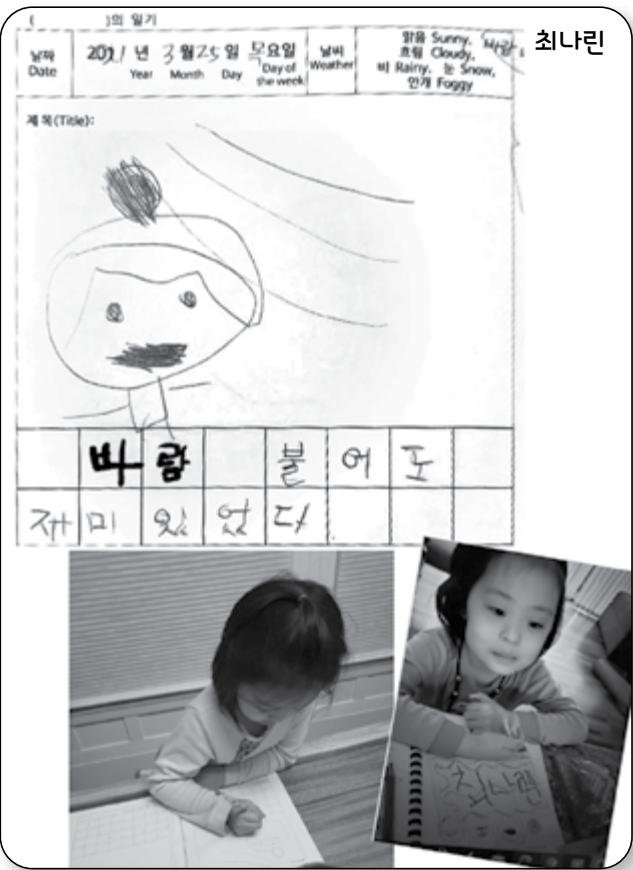
이여준



이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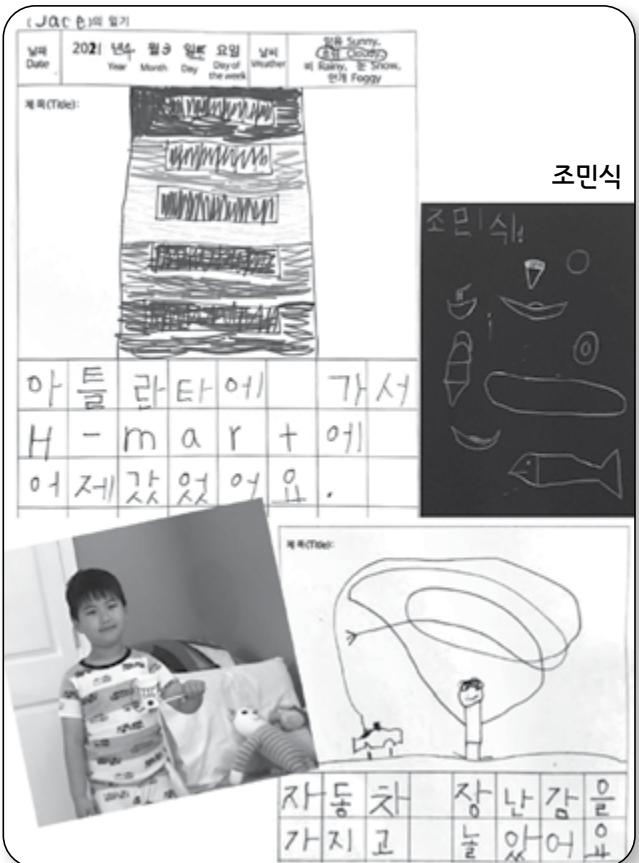
조한솔



파	람	불	어	도
자	미	있	었	다.



정이안



조민식



Kindergarten • 코알라 Koalla



Kindergarten • 코알라 Koalla

Kindergarten • WonSoongYi

원숭이반

담임: 정지연
조교: 박채연, 박도현

김두한, 김서준, 김선재, 김진유, 박리안, 손재민,
손태민, 신지우, 안유겸, 이태준, 한이수

“

안녕하세요? 원숭이반 담임 정지연입니다.
늘 밝은 얼굴로 참새처럼 째잘째잘 즐겁게 수업하는 원숭이반 친구들!!!
원숭이반 친구들 덕분에 매 주 토요일을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더듬더듬 한 글자씩
읽어내던 아이들이 책 한권을 뚝딱 읽어내는 것을 보니, 한 해 동안 많이 성장한
우리 원숭이반 친구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있게 무엇이든 해내며, 늘 사랑받는 원숭이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동안 수업을 위해 곁에서 늘 도움을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박도현,
박채연 조교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Alex 그림일기 김서준 김서준
2021년 3월 10일 날씨: ☀️ ☁️ ☀️ ☀️

제목 :



오	느	뜻		자	동	차	를	
타	조	.	남	대	문	을	간	어
요.			남	대	문	은	쓰	한
수	짜	마	캡	이	에	요.		
내	가	제	일		조	아	하	는
거	은		한	이	즈	크	김	입
니	나							

그림일기

김선재

2021년 3월 12일 날씨 : ☀️ ☁️ ☂️ ☃️ ☄️

제목 : 구름?

김진우

그림일기

김진유

2024년 3월 10일 날씨: ☀️ ☁️ ☂️ ☰

제목: 태권도

태권도 뱡트 테스 드
를 밟고 그린 맷 틸 르
땅다. 기분 이 좋 았다.

그림일기

신지우

2021년 3월 3일 날씨: ☀️ ☁️ ☀️ ☀️

제목: 친구랑 자전거 탄 놀.

나	가	서	차	를	타	서
누	리	터	에	가	서	친
구	를	기	다	려	서	요.
구	다!	친	구	야	자	친
타	자.	기	분	이	조	와
서	요.	친	구	와	헤	어
서	술	퍼	서	요.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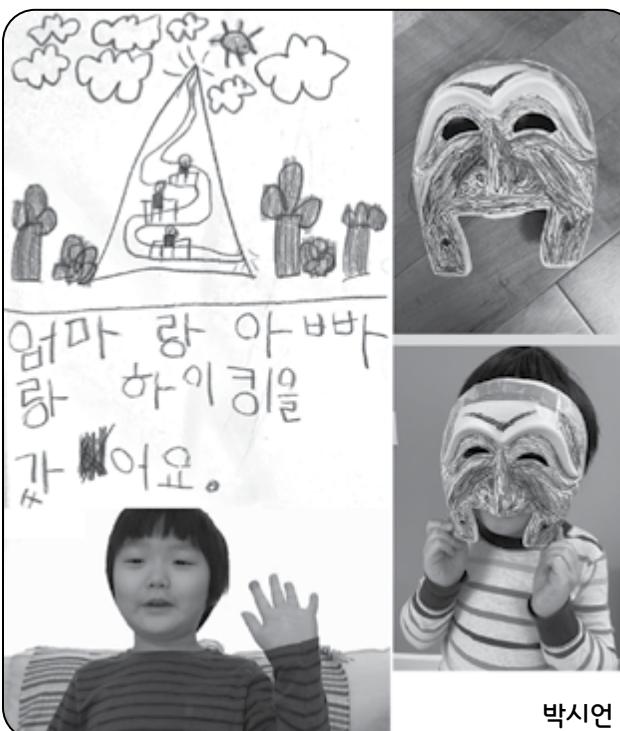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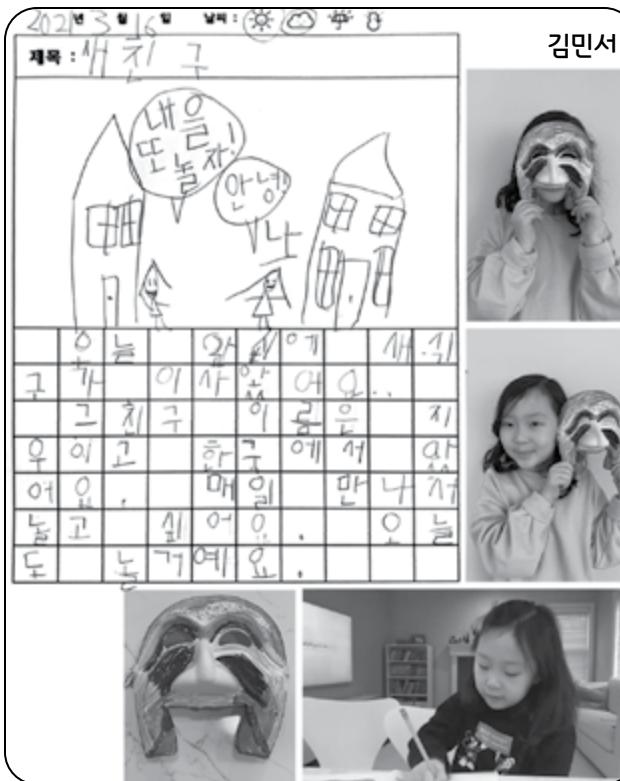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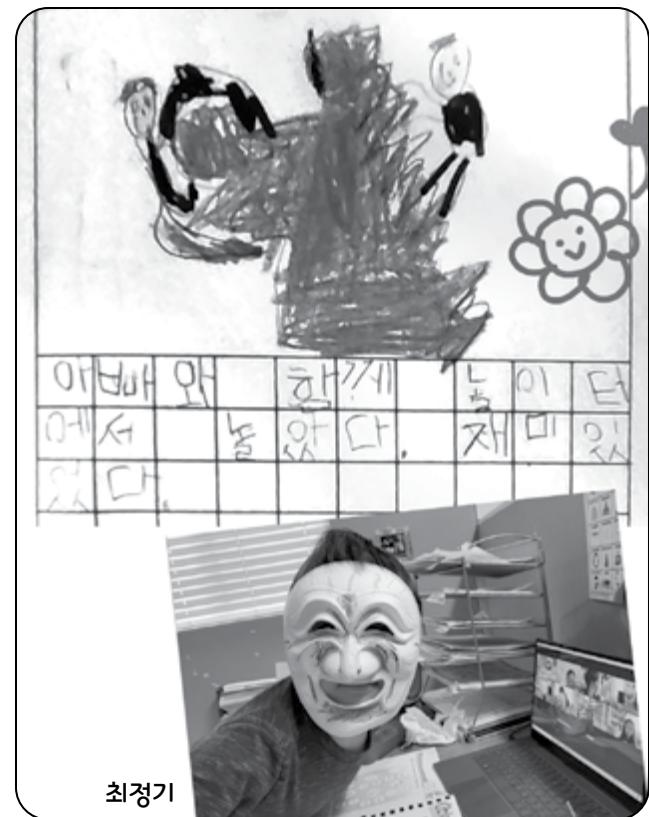
고양이반

담임: 오현숙
조교: 박채연, 박도현

신정원, 조민서, 김민서, 박시언, 김민태, 최정기, 김진경

“ 사랑스런 고양이반 아이들과 만난지 몇일 안된 것 같은데 마지막 인사를 하려니
아쉽고 벌써 보고싶네요. 고양이반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한글공부를 해줘서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많이 행복했고 또한 한글실력이 뛰어나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 동안 공부했던 사진들을 정리하는데 한명 한명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절로 웃음을
짓게 만들니다.
또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결석없이 열심히 공부해준 우리 고양이반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아이들에게 공부와 울동을 가르쳐 주신 이예원, 성민조교
선생님께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지금처럼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밝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고양이반 친구들 모두 모두 사랑해!!! ”





엄마가	아빠에게	뽀뽀		강아지가	울양울양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뽀뽀		고슴도치는	뾰족뾰족	합니다.
나만 빼고 뽀뽀				사자기	꿀꿀	깁니다.
나만 빼고 뽀뽀				참새기	짹짹	노래합니다.
아빠가 나에게 뽀뽀				오리기	챙챙챙챙	수영합니다.
아빠가 나에게 뽀뽀						



Kindergarten • 고양이 KoYangYi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Kindergarten • 고양이 KoYangY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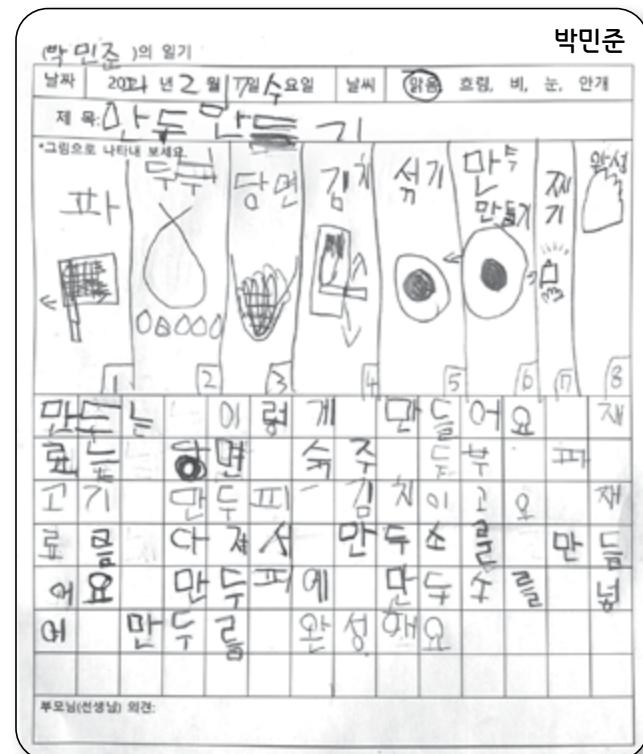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너구리반

담임: 주정아
조교: 강채연, 김유나, 박솔

김영빈 박민준 신태주 엄희주 오서준 이세민
이채원 임준수 원시우 장유나 채리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너구리반 아이들을 만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도 끝나갑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선생님을 만나면서도 항상 즐겁게 한글공부를 해준 우리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밝은 미소를 잊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1년동안 너구리반 수업에 함께 힘써준 우리 강채연, 김경주, 김유나, 김나연, 박솔, 이예원 조교님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날짜	2012년 9월 9일	요일	금요일	날씨	맑음	기온	비, 눈, 안개
제목	개미						

*그림으로 나화나 보세요.

저는 개미가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면 땅에 있고에서 선생님
이 책을 읽어주고 그 책안에는
개미가 사랑을 먹고 흙처럼 먹고
저는 주 아파드 줄이 터에 있
을 때 개미 밟기 도 않거든요.

임준수

날짜 2021년 3월 26일 월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제 목: 무서운 꿈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꿈에서 우리집에 정말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도망다니느라 엉들 엉어요.
그 괴물을 귀엽게 생각지
만 그래도 무서워어요. 다음
에 다시 만나면 친구하자고
얘기할래요.

부모님(선생님) 의견:

1. 작고나 100 이 이기

2. 2017년 3월 31일 수요일

3. 만 2세

4. 국어, 길 잔

5. 그림으로 나태내 보세요.

6. 저는 칭찬해 주는 걸 정말 좋아해
요 그리고 저는 칭찬해 주는 걸 정말 좋아해
요 그리고 엄마도 저를 칭찬해
주세요 이 있거든요 소재를 끌내
엄수고 했어 우리 땔 유나 최
고 래고 말하세요 그 때 가
제일 좋아요!

(리마)의 일기

날짜 2011년 3월 18일 목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제목: 떠난 나비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저	는	나	비	가	줄	아	요,	가	는
엄	마	가	꽃	에	줄	주	고	이	는
데	나	비	가	날	아	와	어	요,	팔
팔	락	예	쁘	날	개	가	너	무	리
이	여	어	요,	날	서	입	못	잠	아
지	만	다	음	에는	나	비	스	한	반
만	져	보	고	심	어	를			

부모님(선생님) 의견:



Kindergarten • 너구리 NeuGooRi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신태주

날짜	2011년 3월 2일	주제	한국 독립기념일
제목	우리나라의 영사님 어게	내용	한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사님 어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용기 내어 독립운동을 해주세요
서기사합니다. 저는 대한
민국 국민이여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용기 있는 사람
이 되겠습니다.



Kindergarten • 너구리 NeuGooRi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위로와 행복을 주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엄희주



저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싶어서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일들도 그림 속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해서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그릴 수 있는데 그걸 그리고 색칠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행복해져서 좋습니다.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 저는 매일 그림 연습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예쁜 동물이나 캐릭터를 보면 저만의 그림 노트에 따로 그려 놓기도 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그리는 연습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알게 된 것은 교회에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입니다. 그 그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멋지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저 그림 누가 그렸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엄마는 그 후 집에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책을 읽고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더 좋아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모든 분야에 뛰어난 멋진 화가가 되었습니다. 다빈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빈치처럼 멋진 화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에서 “그리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대신 표현해주는 화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며 느끼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에 대하여

오서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살이 6개월차인 오서준입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역사책을 즐겨 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책은 한국사, 세계사, 삼국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사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두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을 이야기 하는데 1592년이 임진년이라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사실 임진왜란은 1592년 4월부터 1593년 4월까지 1년간의 전투이고 1593년 명나라의 지원군으로 인해 그해 4월부터 1597년까지 휴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침입하여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육군과 수군은 일본군을 모두 물리치고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사망하여 전쟁의 서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당시 경복궁과 불국사와 같은 문화재들이 불에 타 많이 화손되었고 조선의 훌륭한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어 일본의 도예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난세영웅이 있듯이 임진왜란에도 영웅이 존재하였습니다. 1592년 10월 진주대첩에서 4000대 3만인 열세에도 일본군을 물리친 김시민 목사, 1593년 부녀들이 치마폭에 돌을 주워 담아 병사들에게 공급해 준것으로 유명한 행주대첩을 지휘하신 권을 장군, 그리고 바다의 신, 학익진, 일자진으로 한산도대첩과 명량대첩을 이끄신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용기란, 지혜란, 패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사람

채리아



“리아는 꿈이 뭐야?”

‘꿈?’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잘 때 꾸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께서 내가 좋아하고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것도 꿈이라고 알려 주셨어요. 아빠 말씀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노래 부르기, 달리기, 동화책, 퍼즐…’

전 정말 좋아하는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소꿉놀이 할 때가 가장 재미있어요. 제가 똑똑똑똑 차린 음식을 엄마아빠와 동생이 맛있게 먹어주는 순간,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물론 그게 진짜 음식은 아니지만요.

소꿉놀이도 이렇게 재미있는데, 제가 만든 진짜 요리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진짜 요리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힘든 일도 있나 봐요. 한번은 저녁준비를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엄마 왜 그래요?”라고 여쭤보니까,

“음… 양파가 너무 매워서 그래.”라고 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 주시려고 눈물까지 흘리는 엄마 모습을 보니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저는 미끌미끌한 오징어를 만질 용기도 없고, 절 쳐다보는 것만 같은 생선 눈알만 봐도 도망가고 싶어요. 위험한 칼도 무서워서 아직 잘 다루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엄마처럼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음식인 국수와 비빔밥을 모두에게 맛 보여 줄 거예요. 또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음식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나눠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때 최고 행복하거든요.

요리 말고도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앞으로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된 모습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벨뷰 한국학교의 <행복을 꿈꾸는> 채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파랑새반

담임: 안예솔
조교: 호진서, 장민아, 도예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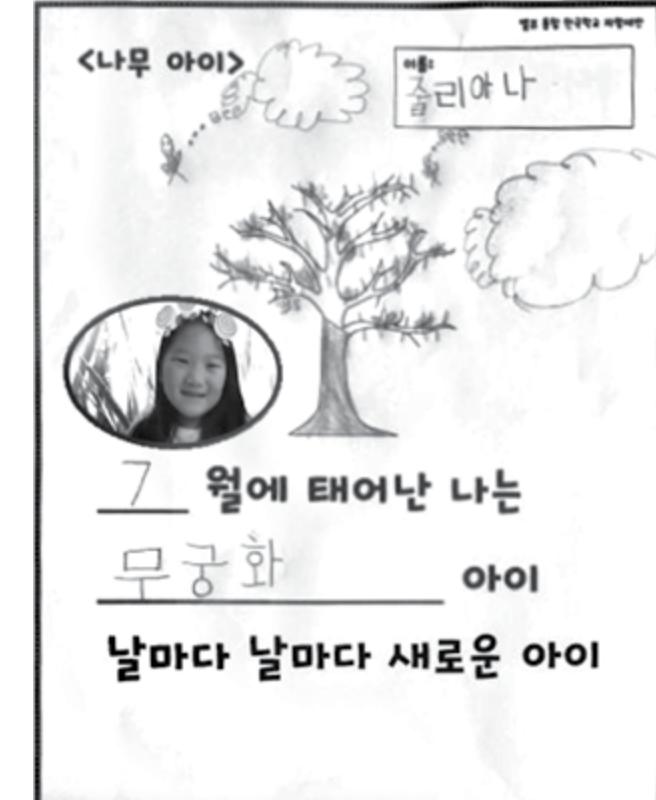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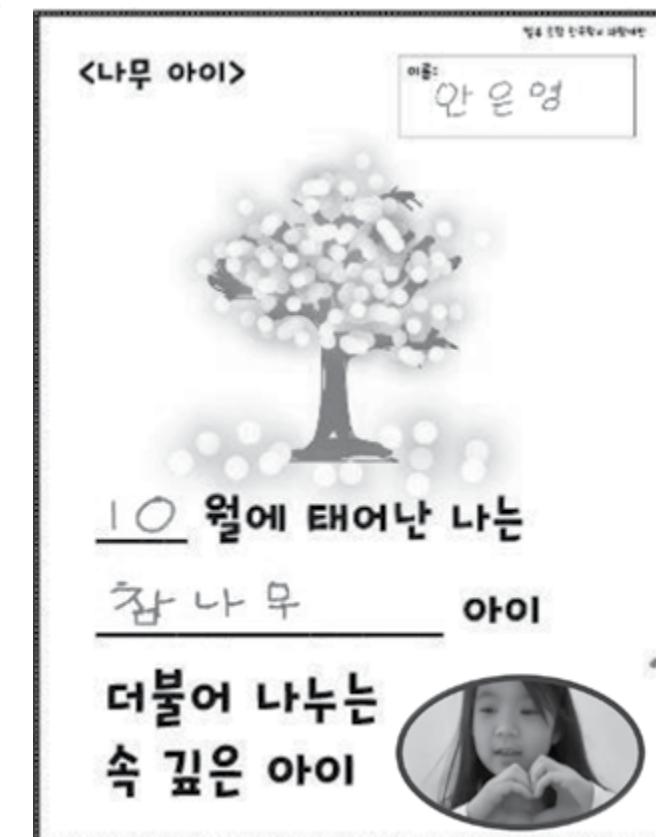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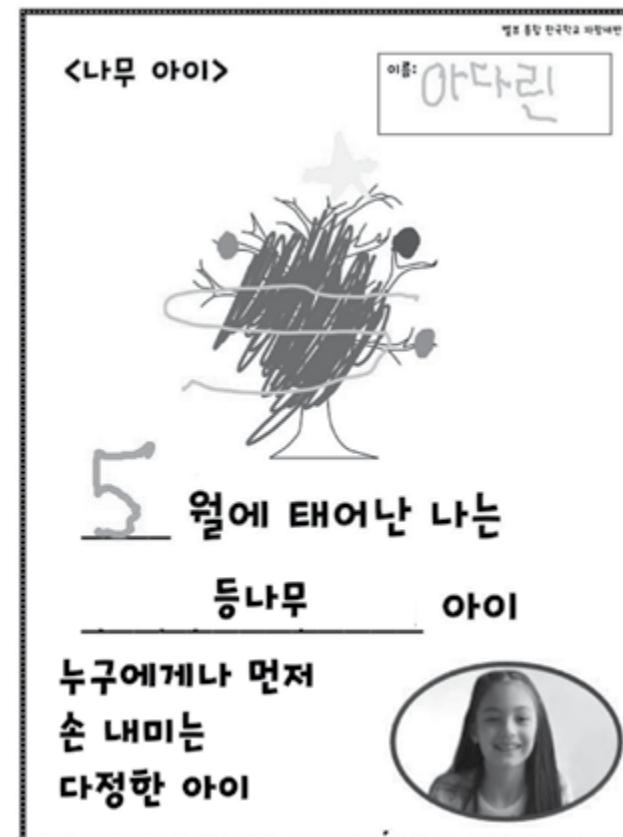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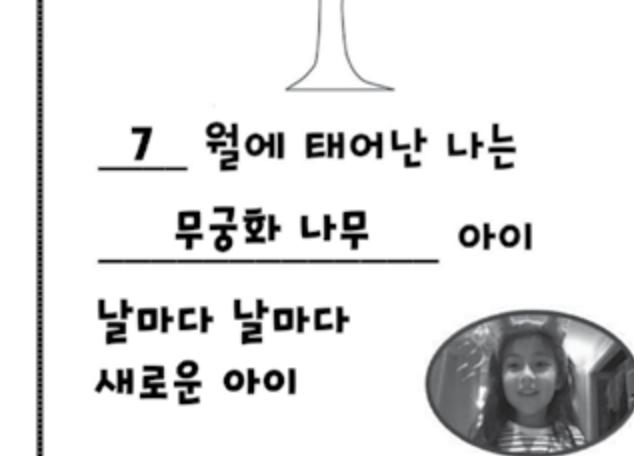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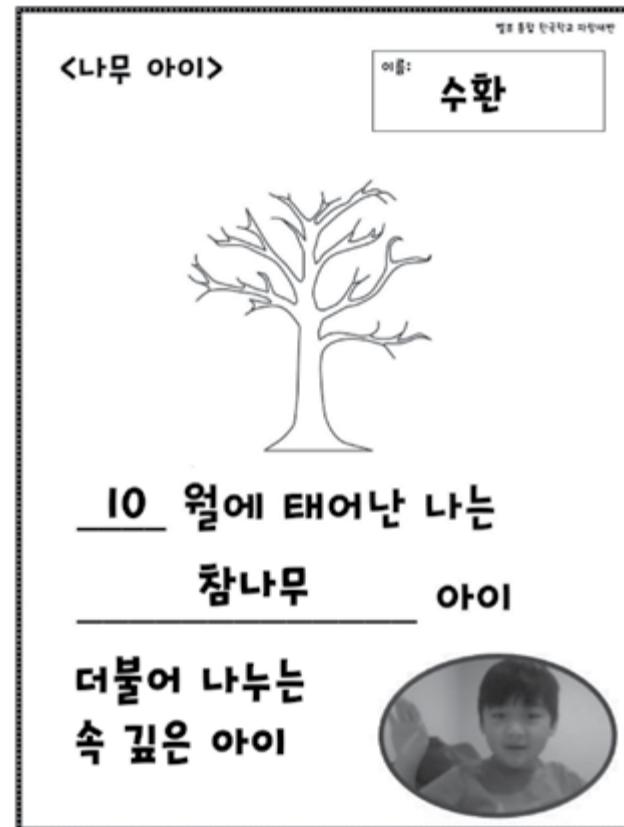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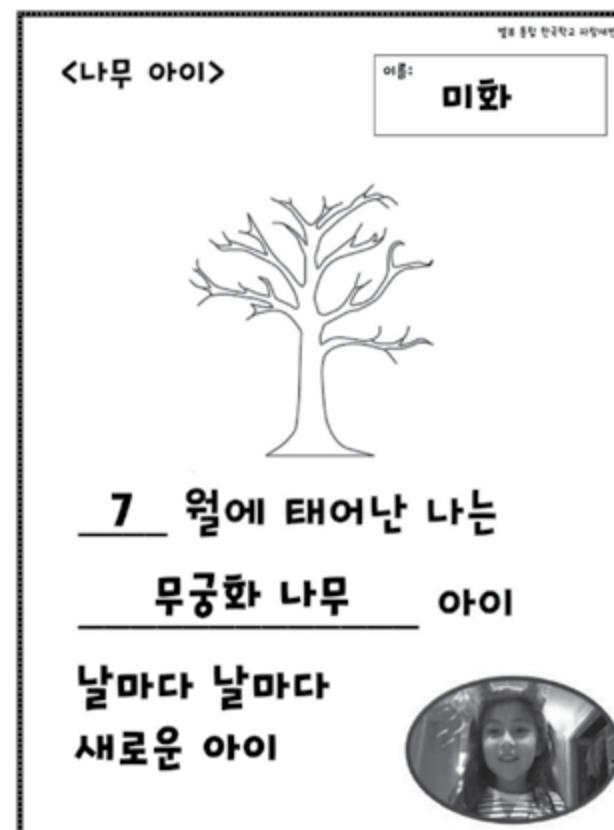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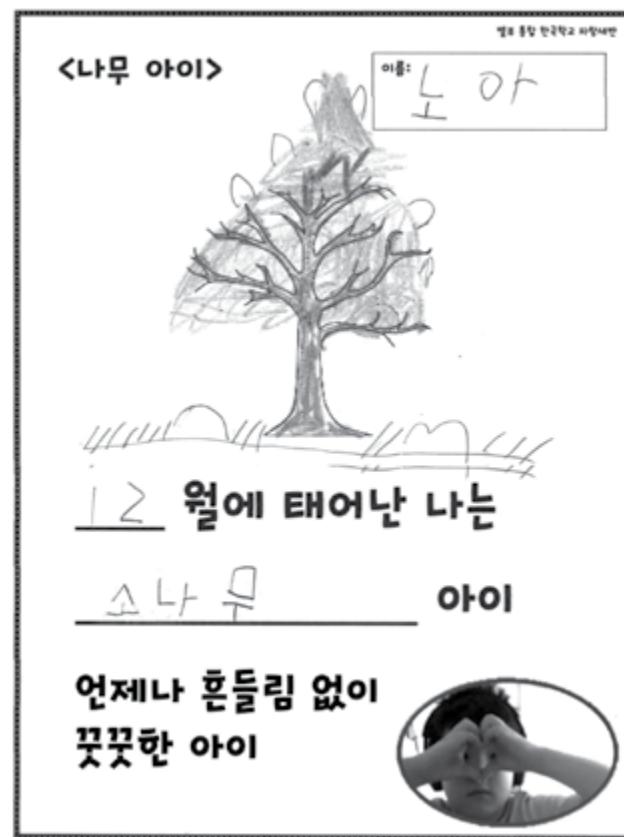
김수환, 김효진, 노아 해일, 노지아, 미화 시걸,
아다린 카덜웰, 안은영, 이주은, 줄리아나 성, 하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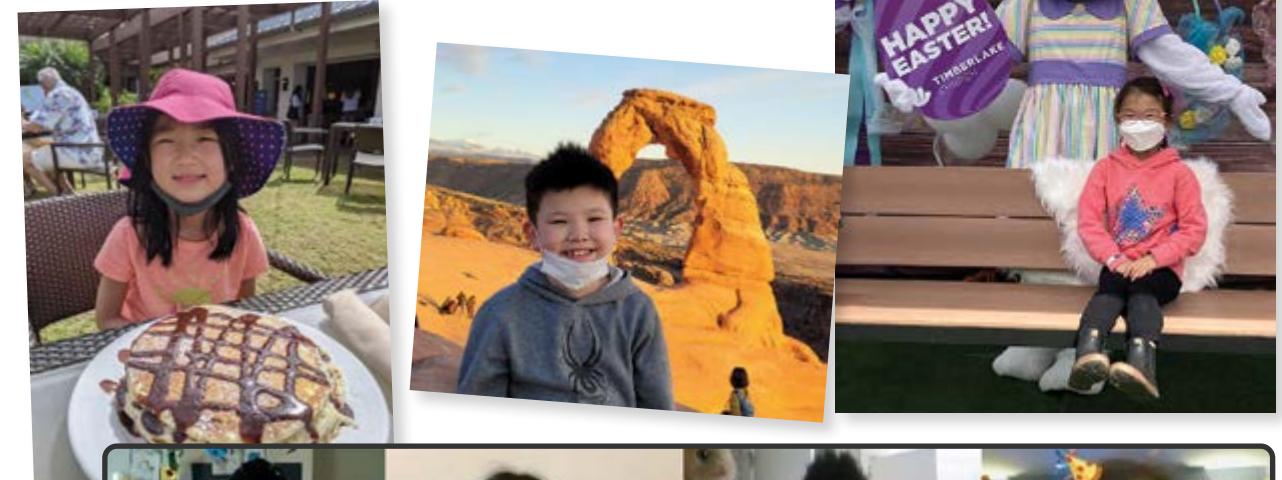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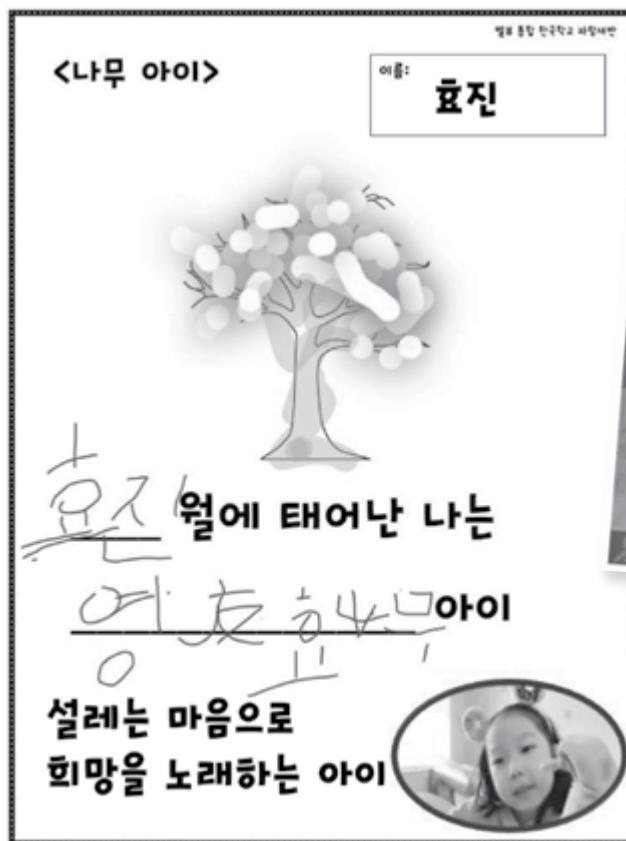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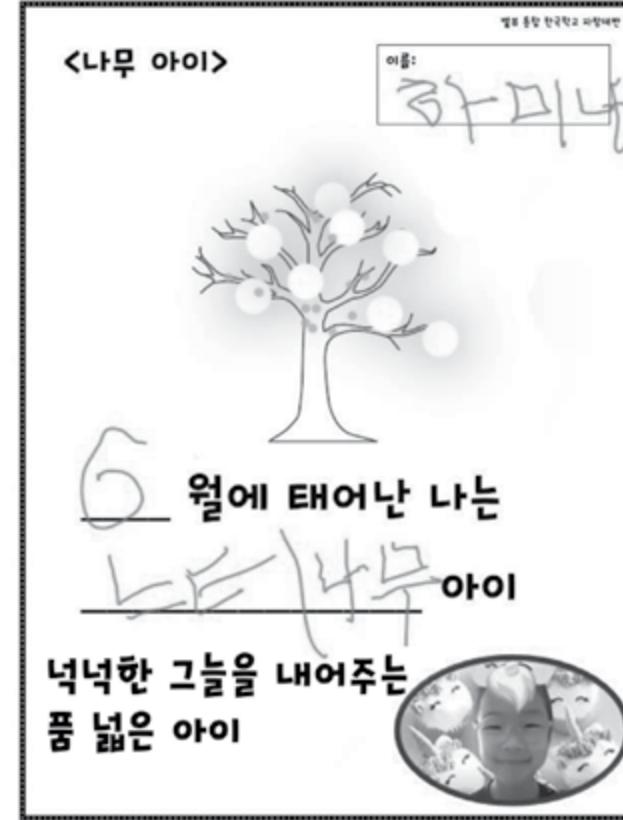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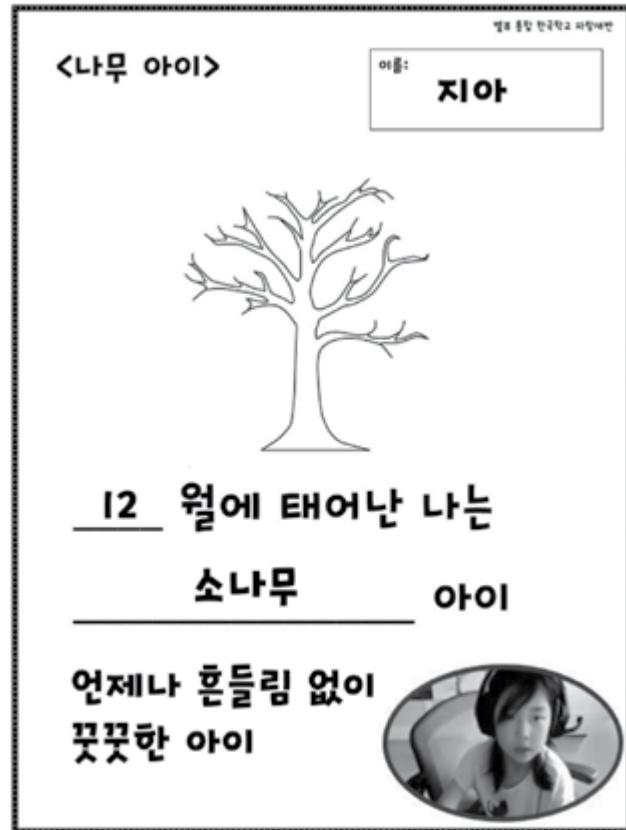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안고 시작했던 온라인 수업을 순탄하게 마무리하기까지...

컴퓨터로 참여하는 낯선 환경에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 어려웠을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즐겁게 수업에 참여해준 파랑새반 친구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수업 내내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세 조교 선생님을 비롯해 온라인 수업으로 그 어느때보다 가정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해에 함께 아이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특별했던 한 해. 쉽지 않았던 만큼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운 2020-21년이 우리 파랑새반 친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길, 예쁘게 반짝이는 마음들이 내딛는 길에 늘 희망과 웃음만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As we wrap up this school year full of new challenges, I am reminded of joy, laughter, and the good memories shared in Parangse Class. I appreciate our Parangse students' courage to dive into the new learning style and their grit, patience, and commitment to learning Korean. I am grateful for our amazing families who have supported our class in launching and carrying on the remote learning with trust and partnership. I also want to give a big shout-out to my three teaching assistants, who have been helping to make each class more effective. As our Parangse students voyage out into the world, I hope they keep the memories in Parangse class with them and know that I will always be here rooting for them.







꾀꼬리반

담임: 김현미
조교: 김효린, 김효정

김윤, 레이첼 메이슨, 박준,
서이현, 서현준, 우세린,
이다나, 이루이,
조이, 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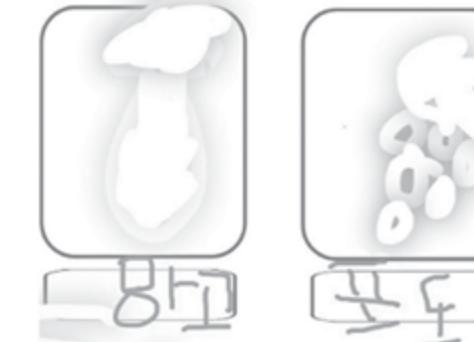
수업 준비물을 나눠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할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워줘서 정말 기특하답니다. 다음 학년에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 재미있고 즐겁게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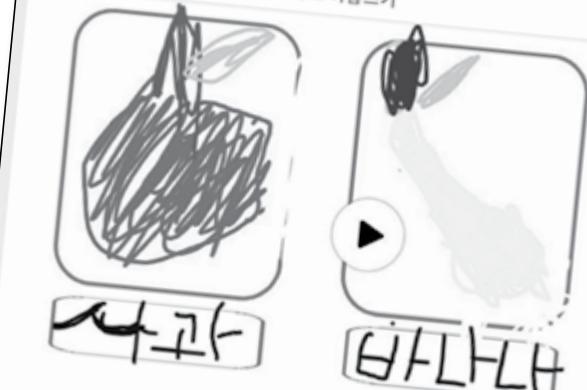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업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도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옆에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동안 꾀꼬리반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알고 수업을 잘 도와준 효정
조교와 효린 조교도 고마워요.



In response to: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이름쓰기



In response to: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이름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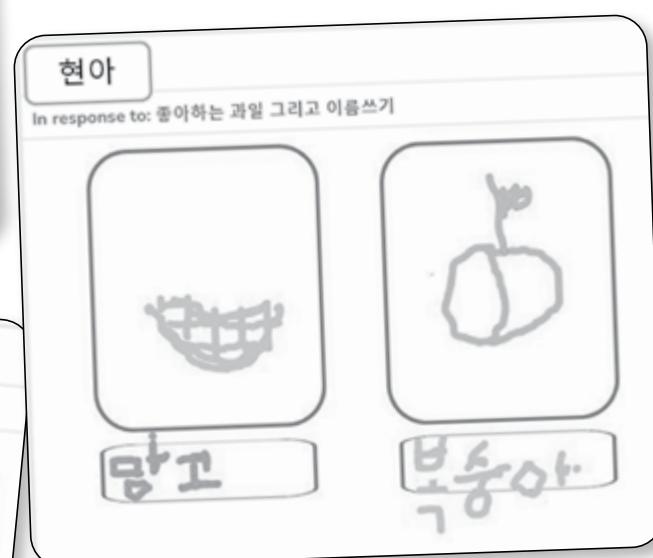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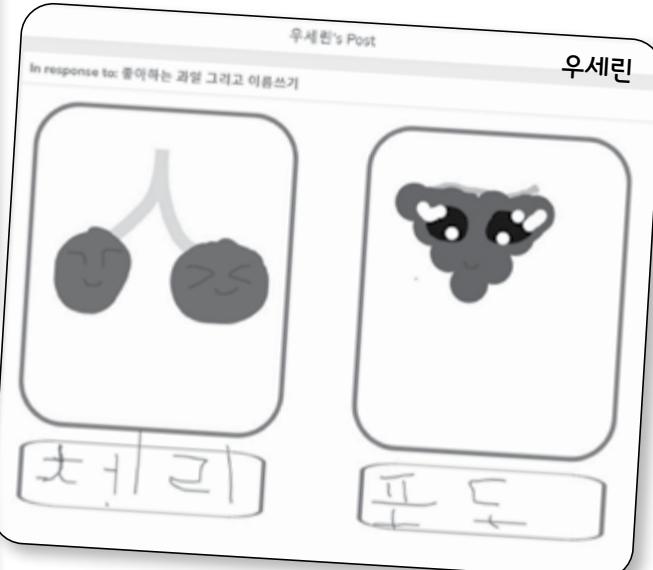


In response to: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이름쓰기



In response to: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이름쓰기





비둘기반

담임: 곽수진
조교: 이보명, 박준희, 임다인

김성준, 김리우, 황은아, 조한주,
드리스콜 이든, 프리스테라 유나,
김진우, 김태성, 주해나, 황소망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게 된 비둘기반 친구들. 일주일에 한번 온라인 수업만으로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새학기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매주 비둘기반 친구들의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도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환한 미소 그리고 아주 가끔 우는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모두 우리가 서로 연결 되어있다는 소중한 선물로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준 비둘기반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매주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채워주신 비둘기반 학부모님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도와준 조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리우

김성준

김진우

김태성

The collage consists of four panels:

- Top Left:** A drawing titled "조한주" (Johanju) featuring a sun and the Korean phrase "해가 나오" (The sun rises).
- Top Right:** A handwriting guide titled "한글 자료표" (Hanja Material Chart) showing various strokes and their names.
- Bottom Left:** A photograph of a young boy sitting at a desk, writing on a piece of paper with a laptop nearby.
- Bottom Right:** Two cards titled "내가 좋아하는 것들" (Things I like). The top card shows a bus and the bottom card shows a lego figure and a toy airplane.

황소망

동물들의 이야기
나는 나는 병아리
비비악 비비악 말을 하지요.

나는 나는 흑양이
야옹 야옹 말을 하지요.

나는 나는 고양이
야옹 야옹 말을 하지요.

나는 나는 강아지
멍멍 멍멍 말을 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자 강아지 토끼

풀고기 기린

주말에 한 걸

나는 친구네
깜빡иж구려
도와야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비행기

The collage consists of five separate images:

- A drawing of a yellow bird with long, dark, flowing tail feathers, labeled "황은아" (Hwang-eun-ah) at the top left.
- A drawing of a blue whale, labeled "돌고래" (Dol-gorae) at the top center-left, with a box above it containing the Korean characters for "drawing animal".
- A girl sitting on a couch, reading an open book titled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 A drawing of a white cat, labeled "나옹이" (Na-ong-i) at the top right, with a box containing Korean characters for "my pet".
- A girl sitting at a desk, writing in a spiral notebook with a pencil.





1st – 2nd Grade • 비둘기 BeeDoolGee

1st – 2nd Grade • AengMooSe

앵무새반

담임: 박계영
조교: 고연준, 남윤서

강재은, 김루아, 송해인, 유지연,
이영, 이예준, 이환희, 정대호,
조강현, 최재원

“안녕하세요 앵무새 반 친구들^^
앵무새 반 친구들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Covid-19
으로 인해 일년동안 온라인 수업으로만 친구들을 만나 너무 안타까웠지만, 힘든 수업
환경에도 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앵무새 반 친구들 덕분에 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수업도 과제도 늘 열심히 공부해 준 기특한 앵무새 반 친구들 모두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그리울 거에요. 여름 방학도 즐겁게 보내고 늘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들,
그리고 앵무새 반 수업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연준, 윤서 조교 선생님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1st – 2nd Grade • 앵무새 AengMooSe

조강현

https://youtu.be/V5TSIu72TC0

정대호

https://youtu.be/V5TSIu72TC0

이예준

https://youtu.be/V5TSIu72TC0

김루아

https://youtu.be/V5TSIu72TC0

이영

https://youtu.be/V5TSIu72TC0

송해인

https://youtu.be/V5TSIu72TC0

앵무새반 선생님과 조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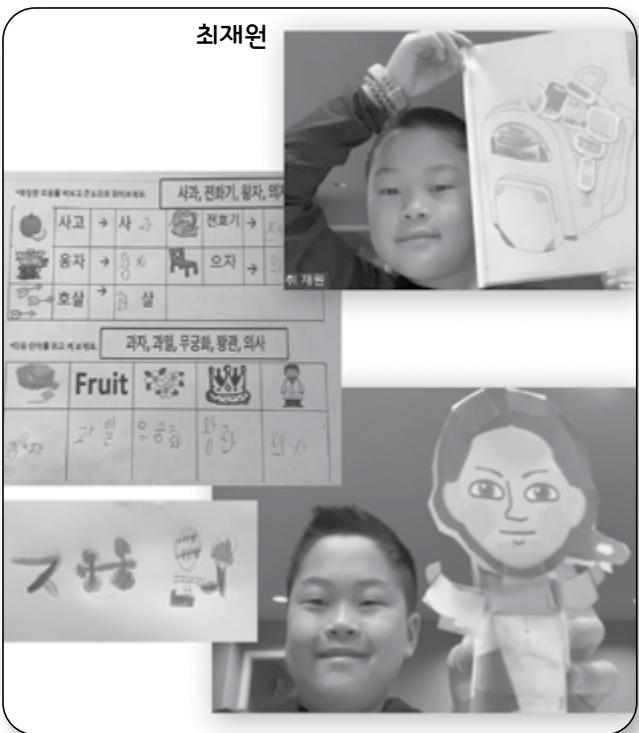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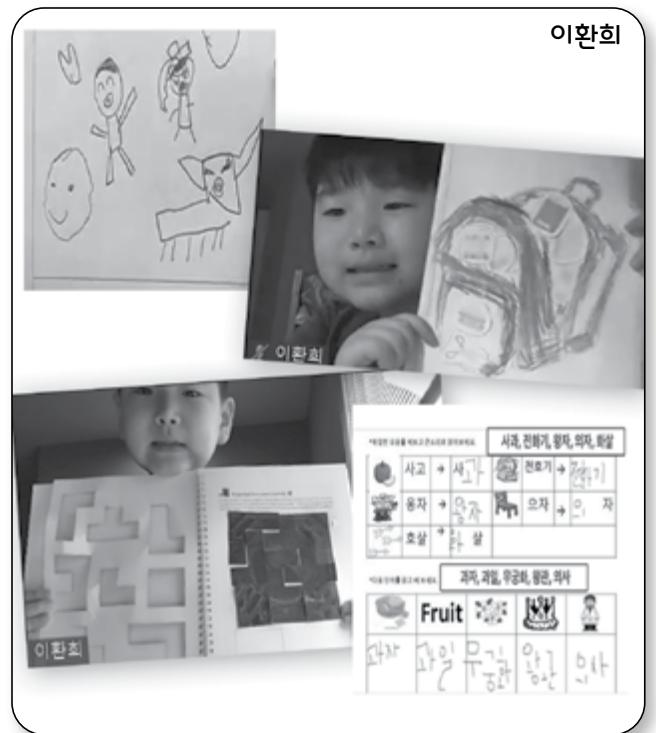
https://youtu.be/V5TSIu72TC0

강재은

https://youtu.be/V5TSIu72TC0

유지연

https://youtu.be/V5TSIu72TC0



부엉이반

담임: 이지은
조교: 김나연, 정이안

강재인, 김민음, 김태경, 나유신,
배재인, 유강연, 유민지, 임효린,
전수영, 주아영

“
코로나로 인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한글을 향한 작은 마음들은 하나가 되어 만났습니다.
어색했던 첫 Zoom 만남을 시작으로
몇 달이 지난 뒤에 모두 부엉이반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다 된다 책을 읽으며 몸으로 자음을 만들던 모습,
운동주 시인의 동시를 큰소리로 따라하던 순간,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를 신나게 부르던 음악시간,
카톡 게임을 하면서 흥미진진해 하던 모습들,
열심히 해준 부엉이반 친구들 모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무엇보다 각 가정에서 열심히 서포트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TA 김나연, 정이안 조교! 모두 감사합니다.”



(강재인)의 일기

날짜 Date	2021년 3월 18일	요일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맑음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한국에 가고 싶어요																																
<table border="1"> <tr><td>코</td><td>로</td><td>나</td><td>바</td><td>미</td><td>러</td><td>스</td></tr> <tr><td>없</td><td>어</td><td>지</td><td>면</td><td>비</td><td>행</td><td>기</td></tr> <tr><td>타</td><td>고</td><td>한</td><td>국</td><td>에</td><td>가</td><td></td></tr> <tr><td>그</td><td>시</td><td>교</td><td>으</td><td>요</td><td>.</td><td></td></tr> </table>					코	로	나	바	미	러	스	없	어	지	면	비	행	기	타	고	한	국	에	가		그	시	교	으	요	.	
코	로	나	바	미	러	스																										
없	어	지	면	비	행	기																										
타	고	한	국	에	가																											
그	시	교	으	요	.																											
부모님(선생님) 의견: Parent/ Teacher's comment																																

(김민음)의 일기

날짜 Date	2021년 1월 1일	요일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맑음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놀았어!																												
<table border="1"> <tr><td>나</td><td>는</td><td>코</td><td>비</td><td>드</td><td>가</td></tr> <tr><td>사</td><td>라</td><td>지</td><td>면</td><td>래</td><td>고</td></tr> <tr><td>드</td><td>에</td><td>가</td><td>고</td><td>싶</td><td>어</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나	는	코	비	드	가	사	라	지	면	래	고	드	에	가	고	싶	어						.
나	는	코	비	드	가																							
사	라	지	면	래	고																							
드	에	가	고	싶	어																							
					.																							
부모님(선생님) 의견: Parent/ Teacher's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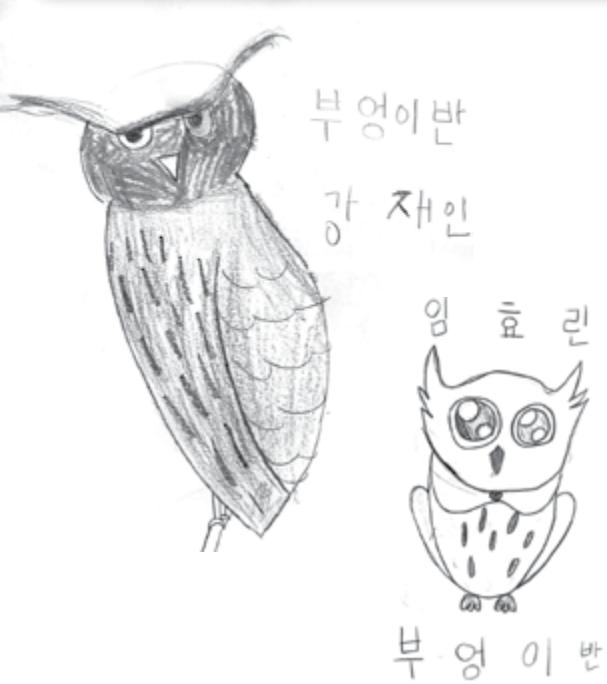
(김태경)의 일기

날짜 Date	2021년 4월 3일	요일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맑음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Covid-19 사라진 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table border="1"> <tr><td>코</td><td>로</td><td>나</td><td>19</td><td>이</td><td>사</td><td>라</td></tr> <tr><td>지</td><td>고</td><td>나</td><td>면,</td><td></td><td></td><td></td></tr> <tr><td>는</td><td>엄</td><td>마</td><td>아</td><td>빠</td><td>와</td><td></td></tr> <tr><td>함</td><td>께</td><td>Disney</td><td>Land</td><td>가</td><td>고</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코	로	나	19	이	사	라	지	고	나	면,				는	엄	마	아	빠	와		함	께	Disney	Land	가	고								.
코	로	나	19	이	사	라																																	
지	고	나	면,																																				
는	엄	마	아	빠	와																																		
함	께	Disney	Land	가	고																																		
						.																																	
부모님(선생님) 의견: Parent/ Teacher's comment																																							

(나유신)의 일기

날짜 Date	2021년 3월 27일	요일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맑음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코로나가 끝난날																																												
<table border="1"> <tr><td>코</td><td>로</td><td>나</td><td>다</td><td>가</td><td>한</td><td>나</td><td>면</td></tr> <tr><td>수</td><td>영</td><td>장</td><td>가</td><td>고</td><td>한</td><td>국</td><td>에</td></tr> <tr><td>한</td><td>국</td><td>서</td><td>울</td><td>한</td><td>국</td><td>서</td><td>울</td></tr> <tr><td>니</td><td>집</td><td>에</td><td>갈</td><td>려</td><td>니</td><td>집</td><td>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코	로	나	다	가	한	나	면	수	영	장	가	고	한	국	에	한	국	서	울	한	국	서	울	니	집	에	갈	려	니	집	에								.
코	로	나	다	가	한	나	면																																					
수	영	장	가	고	한	국	에																																					
한	국	서	울	한	국	서	울																																					
니	집	에	갈	려	니	집	에																																					
							.																																					
부모님(선생님) 의견: Parent/ Teacher's comment																																												

(부자기)의 일기					
날짜 Date	2011년 3월 2주일 1요일 Year Month Day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세상					
<p>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랑 놀이터 그리고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p>					



(유강연)의 일기					
날짜 Date	2011년 4월 4일 1요일 Year Month Day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코비드가 끝나고 하고 싶은 일					
<p>나는 코비드가 끝나면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자 초등학교에 만나고 싶어요.</p>					

(주아영)의 일기					
날짜 Date	2011년 3월 2주일 3요일 Year Month Day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코비드가 끝나면 식구들과 중국식당에서 먹고 싶어요.					
<p>부모님(선생님) 의견: Parent/ Teacher's comment</p>					

(임효린)의 일기					
날짜 Date	2011년 4월 4일 1요일 Year Month Day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p>나는 코비드가 사라지고 나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p>					



(전수영)의 일기					
날짜 Date	2011년 4월 20일 1요일 Year Month Day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p>나는 코비드가 사라지고 가면 텍사스 크레올라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p>					

(유민지)의 일기					
날짜 Date	2011년 3월 2주일 2요일 Year Month Day Day of the week	날씨 Weather	Sunny, 흐림 Cloudy, 비 Rainy, 눈 Snow, 안개 Foggy		
제목(Title): 코로나가 없어지면					
<p>마스크 없이 학교에 가서 보고 싶은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 놀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일 파티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p>					



말하기 대회 장려상 수상

그림과 이야기로 기쁨을 주는 사람

1학년 임효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효린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녔을 때, 친구 티셔츠에 있는 기린 그림이 너무 예뻐서 따라서 그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때 그 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같은 기린 그림을 몇 장 더 그려서 선생님들께 드렸어요.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며 선생님 자리에 제 그림을 붙여 두셨습니다. 저는 제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림 그리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하늘은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이 섞인 아름다운 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본 하늘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그 때 본 하늘입니다. 그 후 저는 여러 다른 하늘의 색을 상상을 하였어요. 해가 뜰 때의 하늘, 해가 질 때의 하늘, 그리고 밤 하늘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이 그림들을 보면 그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온라인 수업 후 숙제를 끝내고 남는 시간에 조금씩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Timothy's first day at school"이라는 이야기 책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것이 제가 만든 책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읽고, 엄마 아빠께도 읽어드렸어요. 제 엄마께서는 제 이야기와 그림을 좋아하셔서 그림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그림과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가 느끼는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st – 2nd Grade • 부엉이 BuEongEe

1st – 2nd Grade • JongDaSe

종달새반

담임: 안영아
조교: 김소연, 호윤서, 김주하

이지한, 조예나, 김아인, 김혜나,
이린아, 서윤하, 박해성, 백유진, 장유하,
정라임, 고윤아, 조연서, 전승우, 윤해나

종달새반을 보내며...라고 쓰고 나니 여러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 옵니다. 보내게 되어서 기쁨보다는
슬픈 마음이고, 보내게 되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보내고 나면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해본 것에 대해
아쉽고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남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 최선을 다해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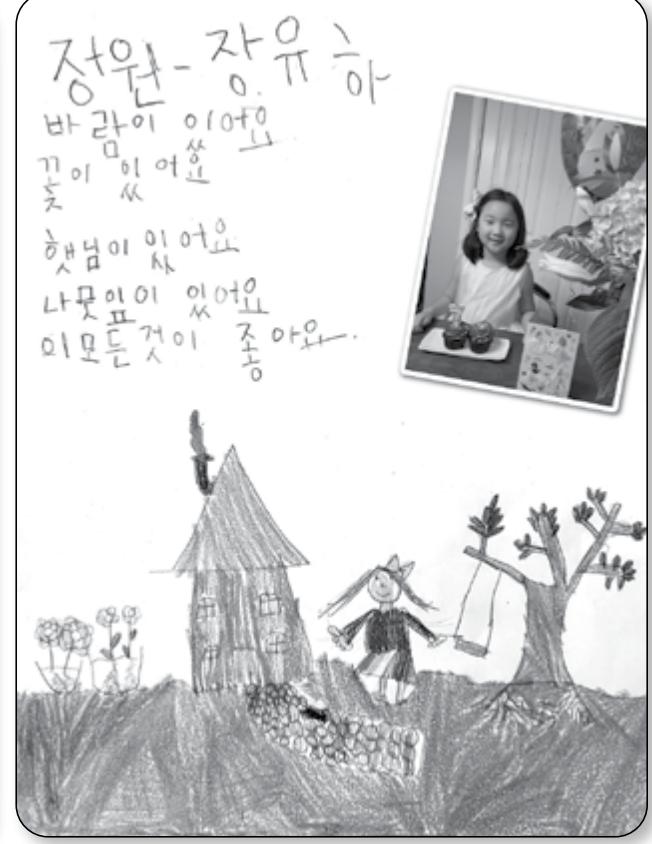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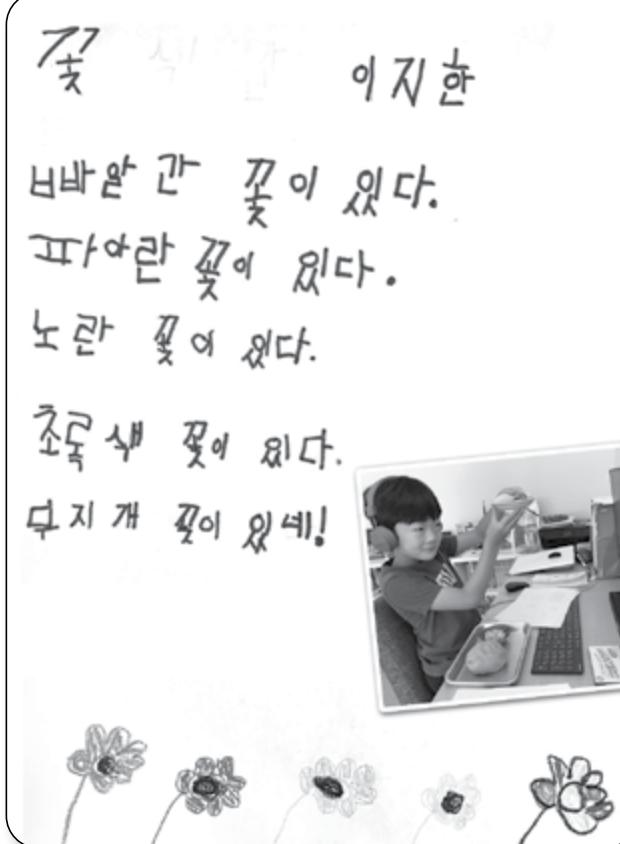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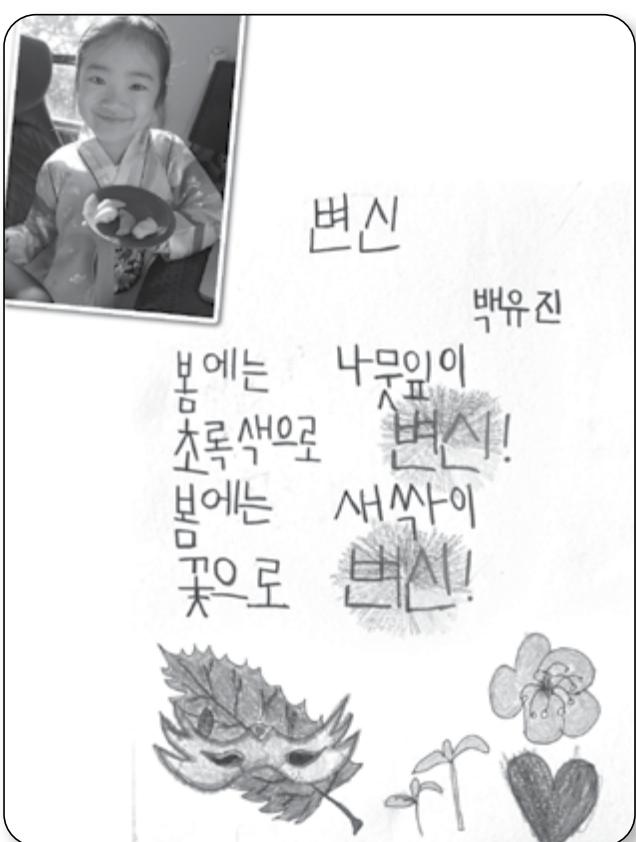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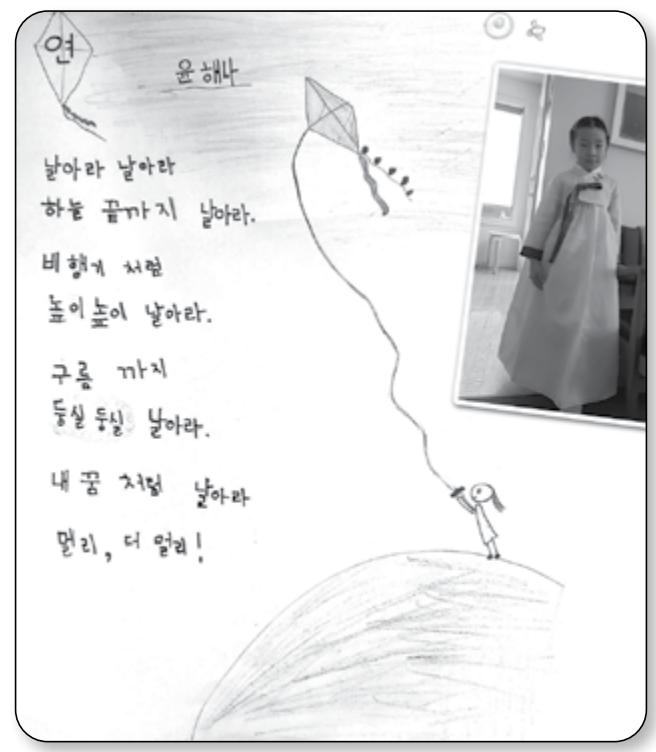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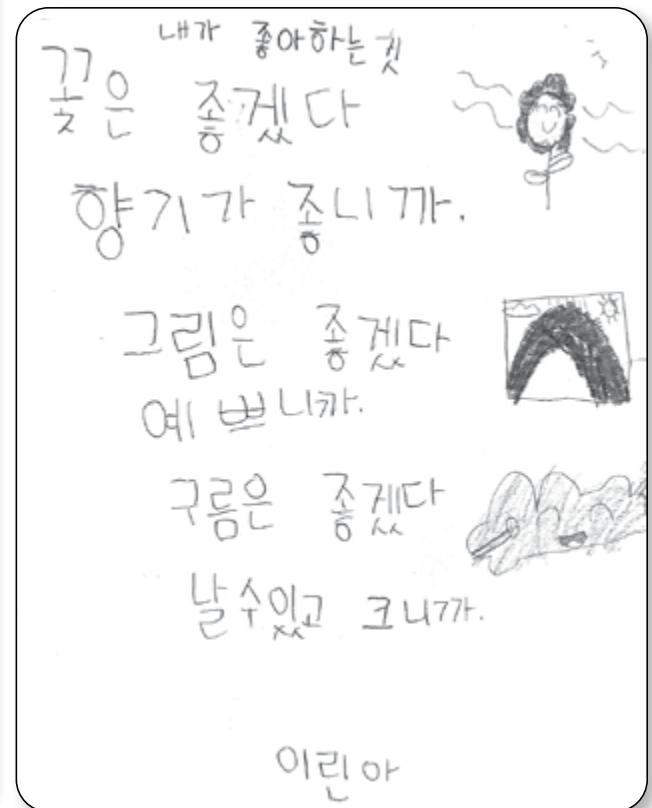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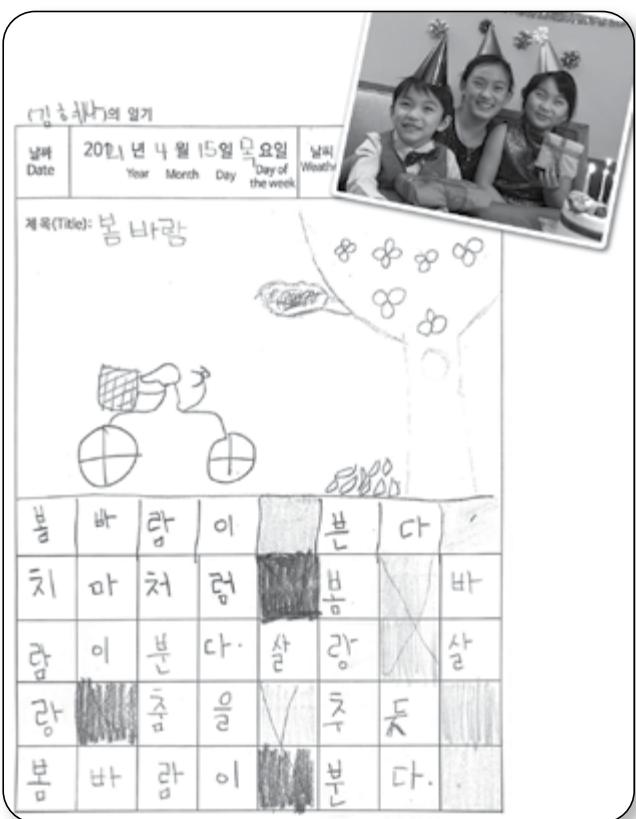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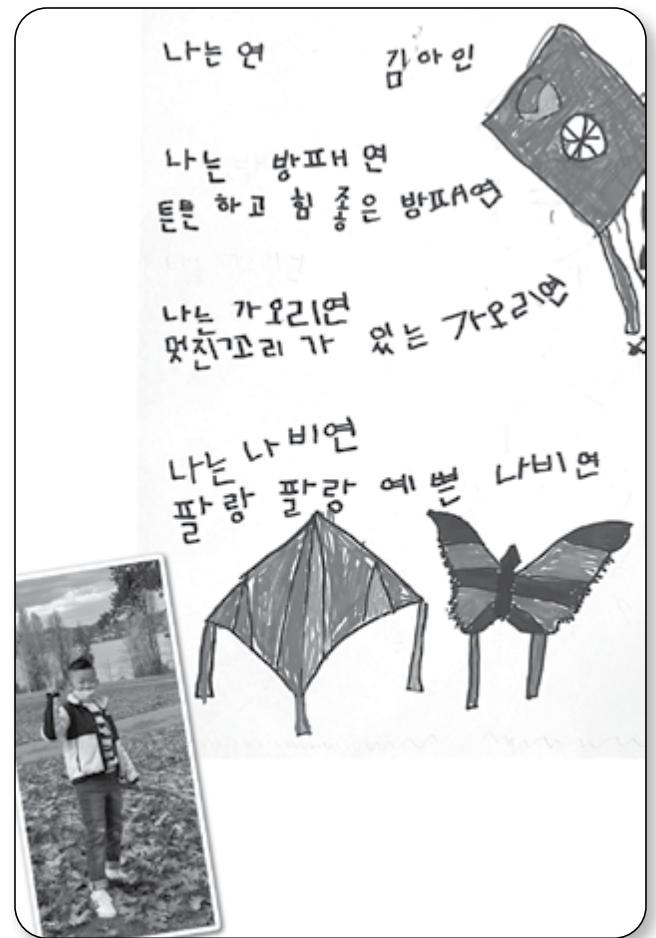
부족한 저를 함께 끌고 밀며 함께 해준 우리 종달새반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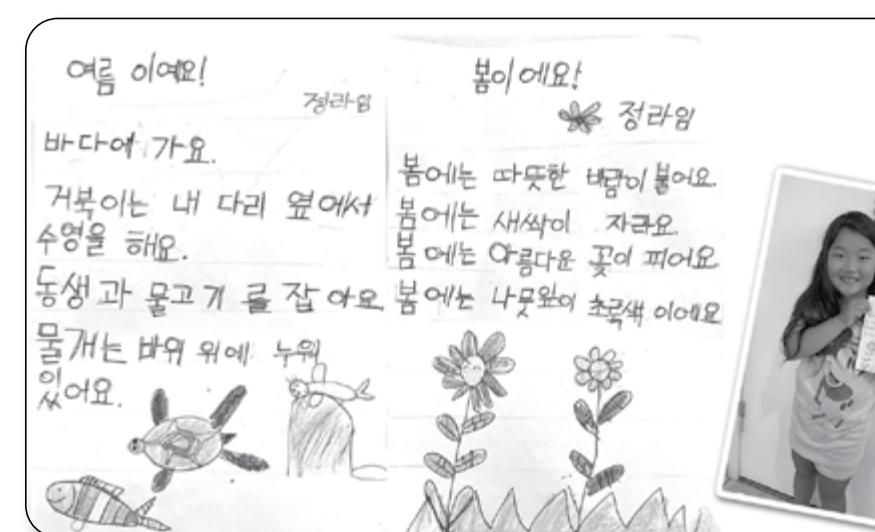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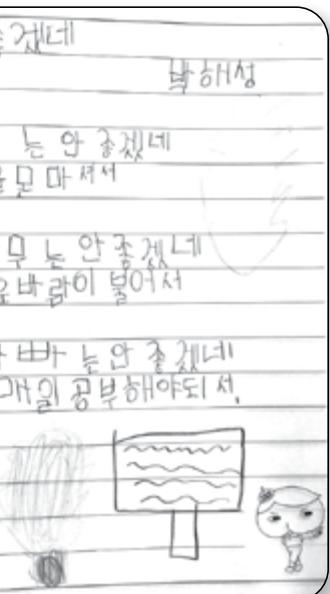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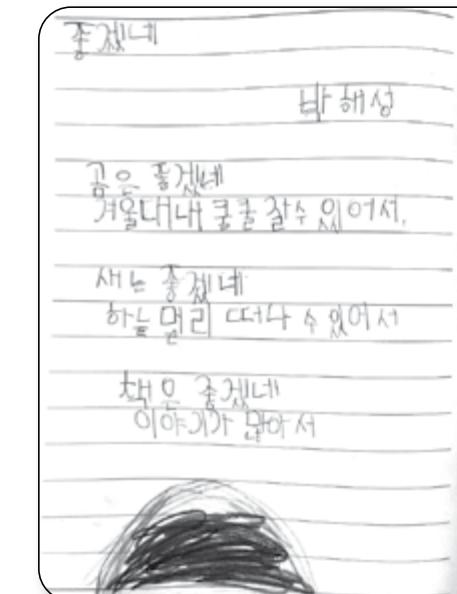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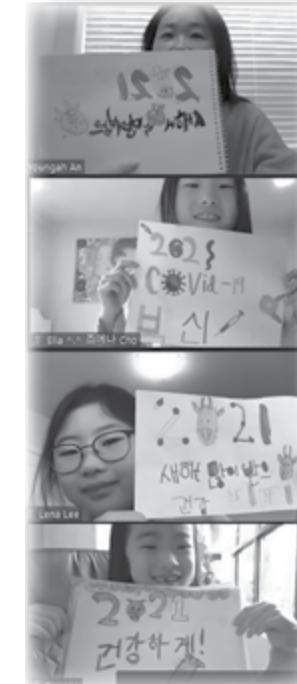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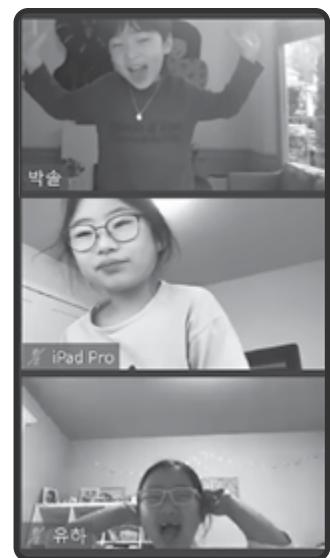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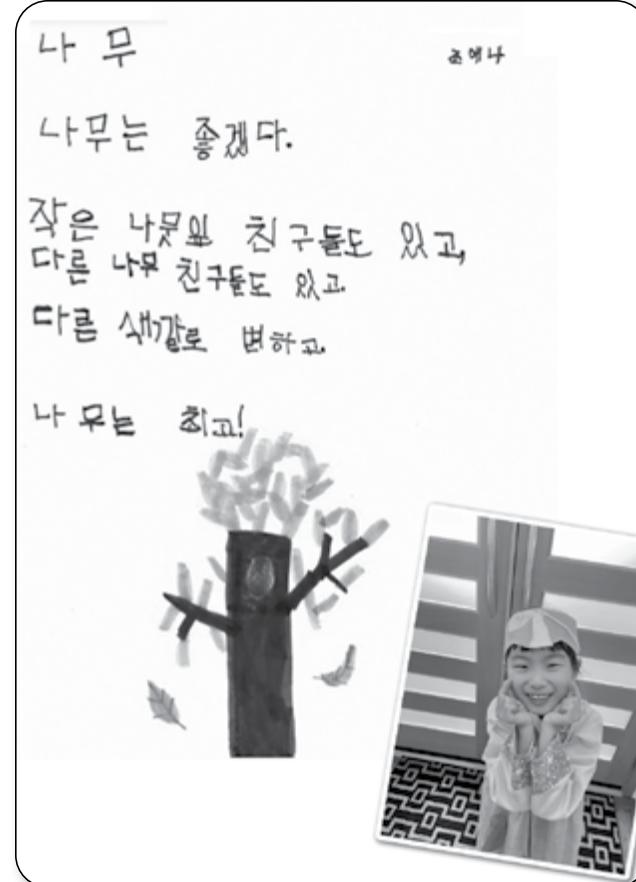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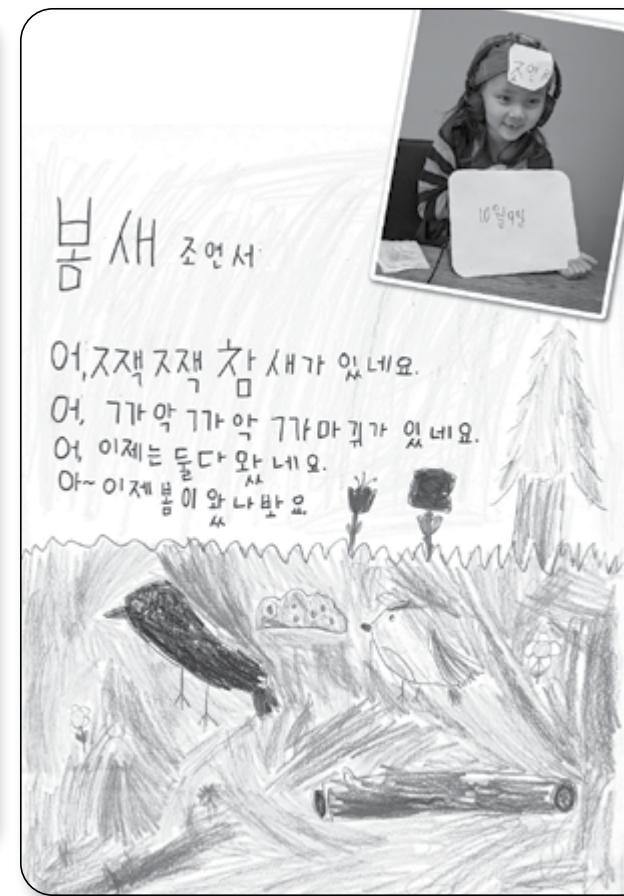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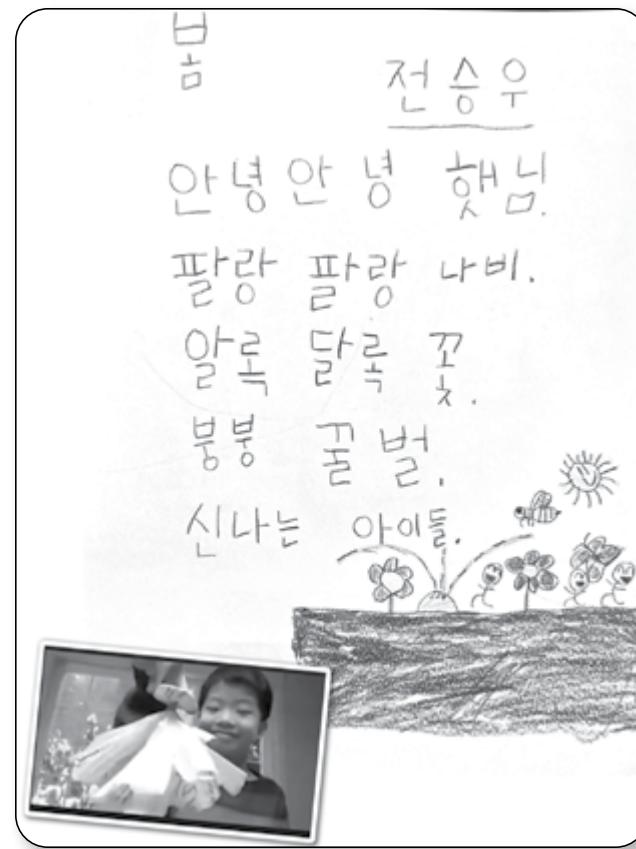
작은 친구들에게서 커다란 세상을 보며 배우는 것도 많은 한해였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며 지냈던 1년.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으며 보낸 한해...
그동안에 우리 친구들 키도 한뼘 예쁜 맘도 한뼘씩 자라서 이제는 '안녕'을 말할 시간이 왔네요. 처음 만날 때도 '안녕'
또 다른 시작도 알리는 말이라... 멋지게 안~녕을 고해 봅니다.

언제 어느곳에 있던지 찬란하게 빛날 우리 종달새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꿈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종달새반에서
배웠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맘으로 언제나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했던 조교 선생님들. 타고난 기계치라 토요일 아침이 트라우마였던 저를 도와 열심히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움과 감사를 전합니다. 김소연, 김주하, 호윤서 선생님. 선생님들의 찬란하게 빛날
미래에도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1st – 2nd Grade • 종달새 JongDaSe

1st – 2nd Grade • BangWoolSe

방울새반

담임: 김선영
조교: 박성희, 박진우

강주은, 김단아, 김세린, 김예은,
박주한, 서한솔, 손규리, 안서윤,
오마루, 위다현, 이서경, 이세준
이지완, 최이수, 최지아

친구들을 처음 만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조금씩 자라는 친구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호기심 가득했던 친구들을 매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지만 새로운 곳에서 밝게
빛날 친구들을 생각하면 설레이고 기대도 됩니다. 이제는 익숙해지는 온라인 수업도
올해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1년동안 매주 아침 친구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방울새 반 학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그리고 한 학기동안 저를 도와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주신 조교 박성희,
박진우 선생님께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동후활동>

♡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10가지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기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0가지
 엄마 막을 끄?
 내 말이 놀라니깐?
 놀게 살리?
 같이 그림그리? 라?
 같이 모래사장가?
 헤나초 찾기?
 올마을 봄?
 소탕 찾기?
 레이크 만들기?
 드림에 춤추기?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방법 10가지>

그려는 도와주기.
 2. 축제 참가하기.
 3. 놀고 치우기.
 4. 거울장착기.
 5. 아빠 일을 때려 엄마 말 자를까.
 6. 피아노 연습하기.
 7. 종이 연습하기.
 8. 드라인 치우기.
 9. 엄마 속는 사람 쭈기.
 10. 예쁜 차기.



강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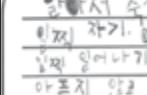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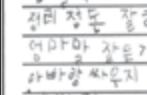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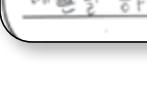
<동후활동>

♡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10가지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기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0가지
 나가서 놀라라.
 숙제 두지 마.
 장난기 끼치지 마.
 사탕 먹어.
 TV 봐 솔로.
 놀자!
 계임 흡사지!
 벌레 차아지!
 노체 자도 돼.
 네가 원두는 꽈리.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방법 10가지>

한에서 주제 하기.
 히제 차기. 
 일자 일어나기.
 아프지 않고 건강 하기.
 밥 잘 먹기.
 실례 짱 두 잘하기!
 엄마나 산을 기 다버리고! 
 아버랑 쓰운지 악기 엄마 배고! 
 예쁜 말 하기 등 다 빼!



김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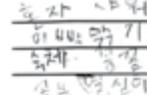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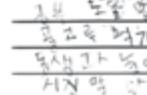
<동후활동>

♡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10가지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기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0가지
 고장 나면.
 귀 입구나.
 끄는 걸.
 사탕을 드린.
 신기하게 경나.
 징징거리나.
 징징거나.
 가방 찾았나.
 미니스카트 찾았나.
 여기 있다.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방법 10가지>

제가 그렸다.
 주자 
 미니스카트.
 속자 
 솔직한 면접을 하자.
 솔직한 면접을 하자.



박주한

서한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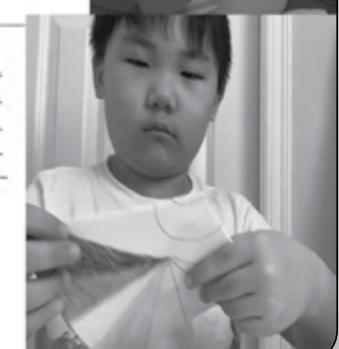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10가지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기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0가지
 솔직한 예도 많아.
 부끄러운 이유.
 미친 면접대자.
 미친 면접대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10가지

주제 하기.
 꿈꾸는 면접 학습.
 면접.

<동후활동>

♡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10가지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기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0가지
 사랑해.
 티비 봐.
 음악 드는데도.
 선물준끼.
 흰 치즈를 먹어 봐라.
 춤보는 걸.
 냄새에서 끄는 데.
 치즈네.
 스누피야.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방법 10가지>

꼭 놀기.
 티비 봐 보기.
 드림에요. 삼이 좋게 놀기.
 디자인기.
 텨 짧여기.
 소내마이 앤먹기.
 후드 절하기.
 양분는지.
 정기 정돈 청하기.
 책 읽기.



김세린

김예은

<동후활동>

♡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10가지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기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0가지
 강남 간 산증.
 간 해어요.
 티비 많이 보도록.
 그만한 악아도.
 여행 가자!
 유통 줄기.
 자랑해.
 고마워.
 누고 해여.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방법 10가지>

밥 먹리 잘하기.
 2. 신발 정리하기.
 3. 이불 정리하기.
 4. 텨 말 두침에 누워 먹기.
 5. 아침에 아파하는 엄마 약해 주기.
 6. 애 채 잘 먹기.
 7. 사랑한다고 말하기.
 8. 안아주기.
 9. 네 라고 대답하기.
 10. 애치 기가죽이 하기.



김예은

<동후활동>

♡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10가지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기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0가지
 걱정 하다.
 사랑해.
 친하다.
 고마워.
 딸장 악는다.
 암보장 하에.
 언니랑 시어머니네.
 흥루 잘한다.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방법 10가지>

언니와 사이 좋게 놀기.
 꼴그루 잘 먹기.
 꿈보일 실내 한다.
 아교에서 치수와 잘 놀기.
 책만들기.
 엄마 일 도와 주기.
 적기 잘하기.
 딸이 좋지 않기.
 아기 자고 일찍 일어나기.
 양보 잘하기.



손규리

안서윤

<동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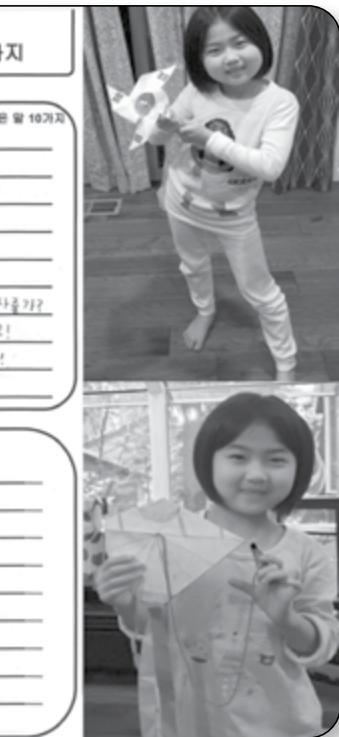
♡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1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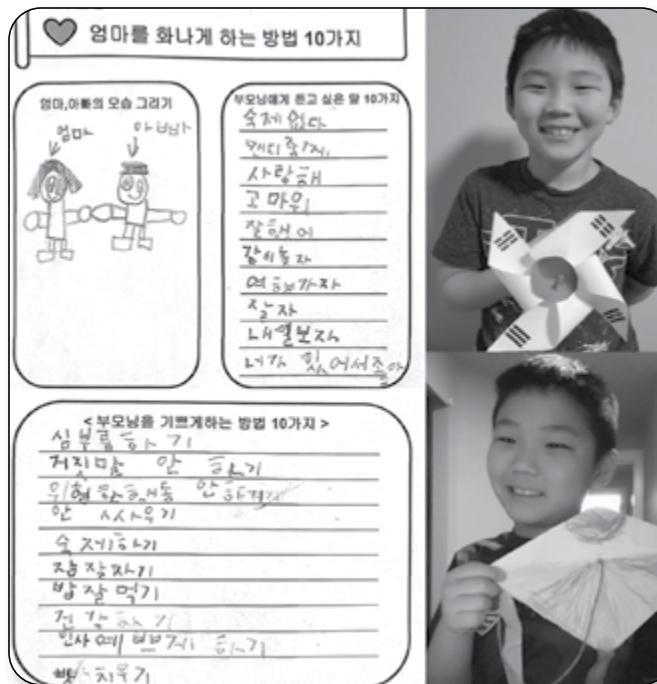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기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0가지
 1. 고마워.
 2. 아이스크림.
 3. 친 친히 해.
 4. 잘 했어!
 5. 사랑해.
 6. 티비 봐.
 7. 선물 묵은 사줄까?
 8. 웃고 웃고.
 9. 산책 가자!
 10. 미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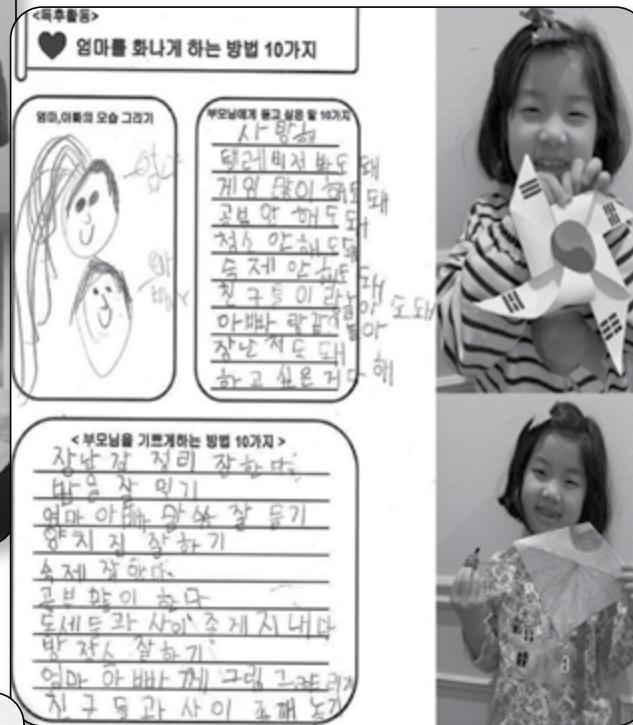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방법 10가지>

- * 냄새 흡수하기
- * 시간을 흡수해서 비디오 재생할 때
- * 차운탕 고기 먹기
- * 미리 미리 준비하기
- * 일화 및 꽃 듣기
- * 어울림 이야기 허설, 대화 활동회 하기
- * 빙 손으로 안 먹기
- * 손 치즈 먹기
- * 강아지 피피포드 치우기
- * 강아지 간식 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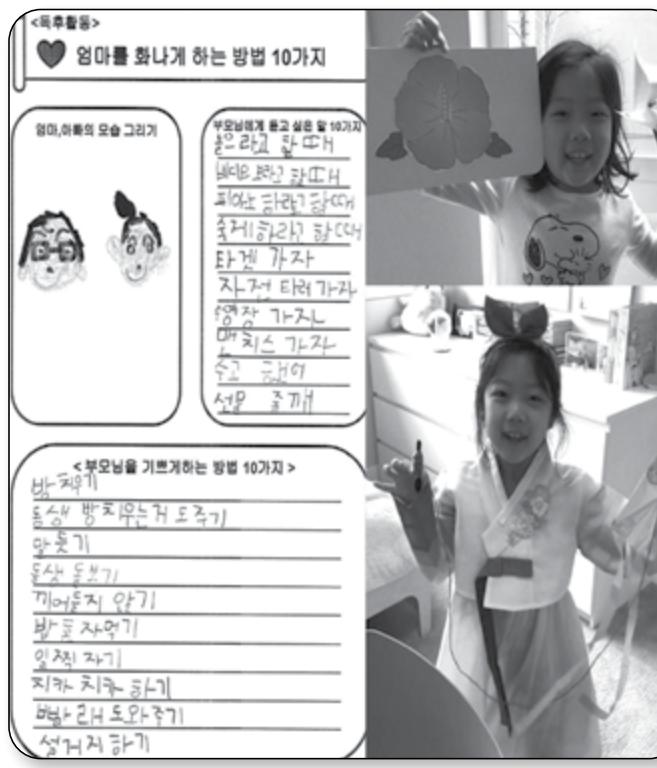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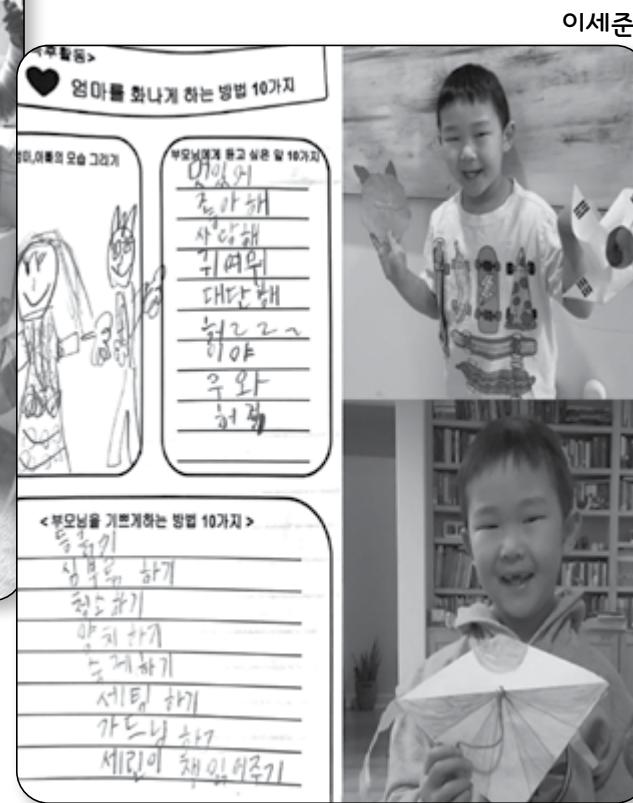
오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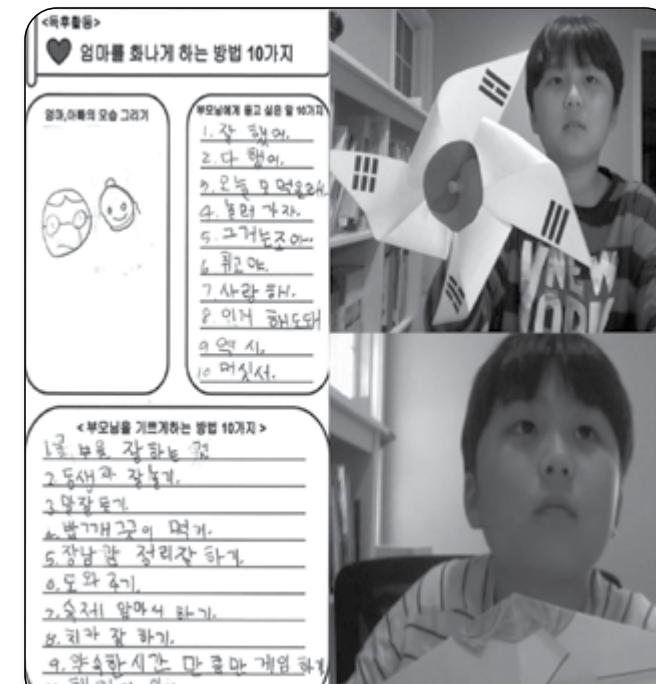
위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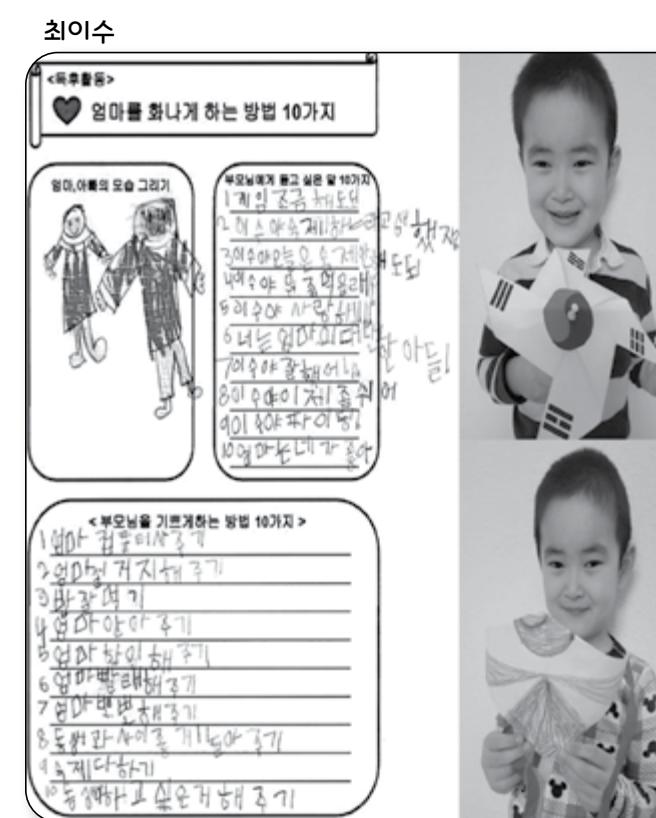
이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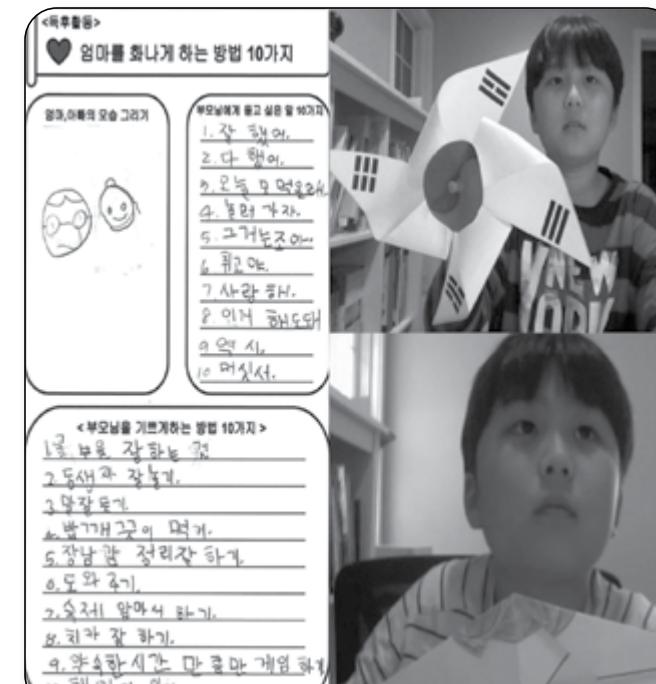
이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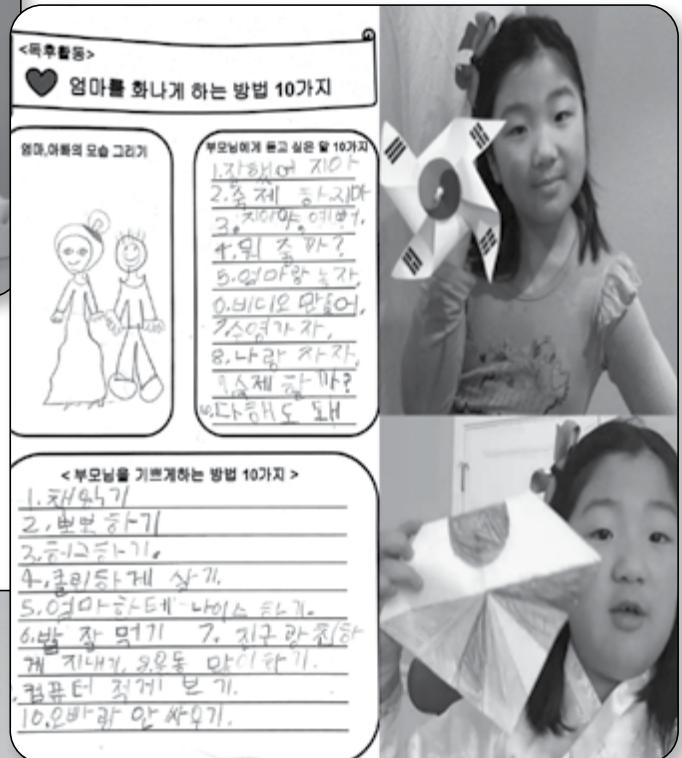
이지완



1st - 2nd Grade • 방울새 BangWoolSe



최지아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글쓰기 대회 집현전상 수상

1학년 이세준

제 10 회 교내 글쓰기 대회		
반: 1-3	학년: 1-3	학교 이름: 방울새학교
한국 예술: 이세준	영어 이름: Lee Se-jun	
미국에 거주한 연수(평균): 5년 이상 미국 일국 연도(선택):		

제목: 떡볶이

거느는 떡볶이 끓이 미국 친구들
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떡볶이는 매콤해서 어떤 사람
들은 아이나 아기가 먹기 편하게
설탕이나 꿀을 백례 먹기도 하지만
저는 대문경 좋아해서
떡볶이에 매콤한 맛을 살려서
먹습니다. 떡볶이 맛은 벌써
가려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 냄비에 넣고 물과 함께
끓입니다. 거기다 떡볶이 소스를
넣고 다시 끓입니다.
떡이 하나를 떠오르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고 여물을 넣어서 또
끓입니다. 끓지나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으면 완성!
저는 떡볶이가 맛이어서
미국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미국 친구들도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pf99lZEeUuE>

말하기 대회 으뜸상 수상

나의 꿈. 마법의 피아니스트

1학년 이세준



건반 위를 춤추는 10명의 손가락 요정들을 아세요? 피아노를 칠 때마다 만나는 제 친구들이에요.

저는 요즘 피아노에 푹 빠져 있어요.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엉뚱한 소리만 났었죠. 답답했어요. 그래도 계~속 연습했죠. 그런다 어느새 듣기 좋은 음악이 되었고, 리듬과 박자를 맞추어 노래도 흥얼거리게 되었죠. 건반 위에서 각자 다른 손가락 요정들이 춤을 추며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혼이나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방에 올라가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 슬프고 화났던 마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게 되죠. 밤 하늘에 반짝반짝 별도 구경해요. 쿠키 나라에 가서 콩쾅콩쾅 달리기도 하고요. 무지개 나라의 비행사가 되어 슈웅~ 날기도 해요. 피아노를 통해서 열리는 '새로운 세상' 상상만 해도 신나지요?

가족과 함께 피아노를 쳐도 즐거워요. 저희 가족은 매주 금요일 'Family Movie Night' 을 해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신이 난 동생들과 저를 위해 아빠는 영화 곡을 피아노로 쳐 주세요.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악자지껄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이럴 때 피아노는 우리 가족을 '행복한 하나' 가 되게 하는 마법의 상자가 돼요.

하루는 베토벤을 좋아하는 아빠가 로테르담 필하모닉 연주자들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코로나로 연주자들은 다른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장면이었죠. "랄랄라 랄라랄라 랄랄랄랄라라라"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합창은 너무나 멋졌어요. 아빠는 말씀해 주셨어요. "세준아, 마지막 합창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 '슬프게 갈라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의 형제가 된다는 내용이야.'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작곡했을 때는 국가가 완전히 멀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듣지 못 했던 베토벤이 세상과 단절 된 것처럼 요즘 우리도 코비드로 세상과 단절 되었어요. 하지만 훌륭한 음악을 통해 '세상은 하나' 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피아노라는 '마법의 상자' 를 열고 매일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저와 손가락 요정들이 만드는 음악으로 떠나는 세상. 사람들을 마법처럼 '하나의 형제' 로 만들어주는 피아니스트! 정말 멋지지 않나요?



동물을 사랑 하는 세상

1학년 김단아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 고양이 깅냥이랑 같이 살고 있고 지금은 물고기 한 마리 브랜든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더 많은 동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 중의 하나입니다. 병아리, 오리 같은 귀여운 동물들을 키우는 농장 주인이 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지렁이, 콩벌레, 달팽이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아주 잘 찾아내는데 농장 주인이 되면 제가 벌레들을 많이 찾아서 동물들에게 직접 모이를 주고 싶습니다.

또 수의사도 되고 싶습니다. 우리집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 병원에 간적이 있었는데, 검사도 하고 예방주사도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의사가 된다면 우리집 고양이와 다른 아픈 동물들을 직접 도와 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바닷속 희귀한 생물들을 찾아내는 연구가와 아마존 열대 우림의 신기한 생명체를 찾아다니는 연구가들을 본 이후로 저도 그곳에 가서 함께 신기한 생물들을 찾아보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바닷속, 땅 속 그리고 우주에 사는 희귀한 생명체를 찾아 연구하는 일은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큰 체험 동물원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샌디에고에서 태어난 저는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동물원과 씨월드에 다니며 많은 동물들을 만나 왔습니다.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샤무, 돌고래, 상어, 거북이, 호랑이, 원숭이, 기린 등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만지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은 많이 있었지만 집에도 데려와서 함께 생활하게 해주는 동물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동물원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은 동물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동물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로봇 발명가

1학년 최이수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방울새 반 최이수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커서 되고 싶은 것도 아주 많답니다. 군인도 되고 싶고 요리사도 되고 싶고 소방관도 되고 싶어요. 저는 종이접기나 레고처럼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레고나 종이접기 할 때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로봇 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고 싶은 게 많지만 그 중에서 로봇 발명가가 되고 싶어요.

제가 만드는 레고 로봇은 변신도 할 수 있고 핵체도 할 수 있어요. 동물 모양의 로봇도 만들어 보고 자동차나 건물 모양의 로봇도 만들다 보니 저는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실제로 로봇을 만든다면 레고 로봇이나 종이 로봇보다는 훨씬 크게 만들 거예요. 저는 여러 종류의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우선 위험한 일을 대신 해 주거나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불이 나면 불을 꺼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피자도 배달해 주는 그런 로봇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구조 로봇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로봇, 다리나 팔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로봇 팔도 만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로봇 다리를 사용한다면 지팡이를 안 쓰셔도 되니까 정말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로봇들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런 장난감들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변신하고 움직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면 제가 정리를 안해도 로봇 장난감이 스스로 알아서 정리가 될테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로봇이 갖고 싶으세요? 저한테 말해주면 제가 로봇 발명가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로봇을 발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로봇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하니 무척 설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매반

담임: 이경희
조교: 류한결, 전서희, 정현욱

강윤서, 김규한, 김도연, 김민율,
김세린, 김세영, 김윤하, 김지훈,
박주호, 송아인, 송원욱, 이지안,
전이안, 조성호, 피터 스미스

보라매 반 친구들 안녕!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또 작별할 시간이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눈, 활짝 웃어주던 아름다운 미소, 또랑또랑 맑은 목소리로 항상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 주었던 학생들의 모습을 꼭 기억할게요. 컴퓨터 너머로 만나서 공부했지만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보라매 반 친구들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미국과 한국, 더 나아가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기대합니다.

많은 과제물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부모님과 수업을 위해 협력해 준 조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름: 강윤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곰곰이입니다. 곰곰이는 곰 인형인데 저희 엄마가 만들었어요. 내가 곰곰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귀여운 청바지와 예쁘게 바느질이 된 후드티셔츠를 입고, 항상 웃는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예요. 곰곰이를 안고 자면 좋은 꿈을 꾸고 포근해서 기분이 좋아요.

나도 크면 곰곰이 동생을 만들고 싶어요

학교 간날
이름: 김규한

이번주 화요일에 학교를 갔다. 일년만에 처음 학교를 간 것이라서 아주 신났다. 처음으로 간 곳은 학교 교실이었다. 교실이 어땠을지 생겼는지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다음으로 가고온 그날 사가 일하는 곳이었다. 그날 사는 병원에서는 어땠을지 알려주셨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놀이터였다. 여기서 30분을 놀았다.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을 때 가고 싶지 않았다. 아쉬웠지만 재미있었다.

이름: 박주호

작년 여름 방학에 로드트립으로 엘로스톤에 갔었다. 엘로스톤에서 가이저와 바이슨, 곰 등의 동물들을 봤다. 가이저 가까이 갔더니 이상한 병새가 났다. 그 중에서 올드페이스풀이 가장 멋있었다. 주차장에서 바이슨이 갑자기 우리 차 옆으로 다가왔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무서기도 했다. 그런데 높은 가까이 보니까 작해 보였다. 그리고 엘로스톤의 이름이 왜 엘로스톤인지 노란 돌을 보고 알게 되었다. 차를 오래 타는 건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여행이었다.

이름: 김세린

저는 한국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는 삼촌이 마을을 나오셨습니다. 외간집에서 지내면서 가족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와 먹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았습니다. 뜻데 좋은데 가수 머리띠, 가방도 사고 놀이기구도 많이 찾았습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도 한국에 오셔서 같이 수족관도 가고 타워를 보러 가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시면서 많이 못 뵙었지만 좋았습니다. 한국에 놀러 가는 것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이름: 김세영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신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일학년 때 디즈니 랜드 여행을 다녀왔는데 재미있었어요. 거울이었는데 날씨가 따뜻하고 햇볕이 반짝거렸어요. 디즈니 랜드에서는 꿈나루를 많이 보았어요. 공주들과 노래가 같이 나와서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게되면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놀기 기구를 더 많이 탈 거예요!

Ellen 2A

보라매 반 이름: 김윤희

제목: 호박 농장

아빠, 엄마와 함께 호박 농장에 갔다. 도착해서 지도를 보고 어디를 갈지 정했다. 제일 처음에는 어린이 미로를 갔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소처럼 생긴 기차를 타고 농장을 구경했다. 아주 아주 큰 어른 마로에 들어갔다. 지도가 있어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너무 오래 걸리어서 다리가 아팠지만, 미로를 봐서 나오니까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나는 이번 호박 두 개를 골랐다.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에 또 호박 농장에 놀러 가고 싶다!!

이름: 김민우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옷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지 벌써 소년이나 저나 친구들과 만나 놀고 싶은 마음이 굳뚝 같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온라인 수업도 좋은 점이 많아요. 차를 타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스코린을 오래 보나 해서 눈이 피곤하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 놀 수 없는 점이 아쉬워요. 빨리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을 적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름: 송아인

① 머리와 몸통을 그려요.
② 긴 다리 네개와 세모모양의 두 귀를 그려요.
③ 말발굽의 모양, 꼬기의 모양, 고리 모양은 좋아하는 것으로 골라서 그리세요.
④ 머리 위에 뿔을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그리고, 예쁜 얼굴을 그리면 완성입니다!

〈구여운 유니콘 그리기〉

Ellen 2A

이름: 김도연

나는 샌디에고 동물원에 2년 전 휴가 때 가봤었다. 나는 샌디에고 동물원이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고 그 동물들의 모습과 행동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 코알라였다. 코알라는 생각보다 엄청 작았고, 특히 나무에 매달려서 자는 것이 귀여웠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동물은 오랑우탄이다. 특히 아기 오랑우탄이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샌디에고 동물원이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라고 생각한다.

Ellen 2A

이름: 김도연

나는 샌디에고 동물원에 2년 전 휴가 때 가봤었다. 나는 샌디에고 동물원이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고 그 동물들의 모습과 행동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 코알라였다. 코알라는 생각보다 엄청 작았고, 특히 나무에 매달려서 자는 것이 귀여웠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동물은 오랑우탄이다. 특히 아기 오랑우탄이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샌디에고 동물원이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라고 생각한다.

Ellen 2A

이름: 송원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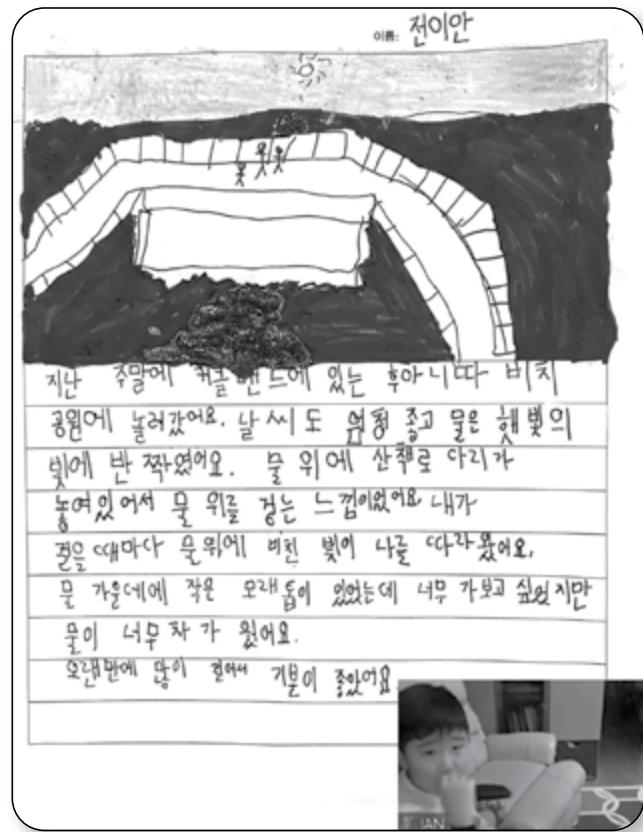
나는 샌디에고 동물원에 2년 전 휴가 때 가봤었다. 나는 샌디에고 동물원이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고 그 동물들의 모습과 행동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 코알라였다. 코알라는 생각보다 엄청 작았고, 특히 나무에 매달려서 자는 것이 귀여웠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동물은 오랑우탄이다. 특히 아기 오랑우탄이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샌디에고 동물원이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라고 생각한다.

Ellen 2A

이름: 이지안

수요일 오후에 나랑, 대형 에미바랑, 아얀 이랑 언니가 대형 집 백야드에서 트레플린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대형 집에서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놀이는 트레플린이었어요. 아시었던 거는 에미바랑 딜런은 숙제가 있어서 일찍 갔어요. 그런데 그것빼고 다 좋았어요.

Ellen 2A



조성호

날짜 2021년 11월 15일 일요일

제목: 이브 라이크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이 브 라이 크 공 원 에 가 다. 비
가 뚝 뚝 내 려 다. 비 가 주
금 만 내 려 서 늘 았 다. 동 그
란 길 을 세 번 이 나 드 았 다.
세 번 이 나 드 아 서 다 리 가 진
자 진 히 드 어 쌈. 점 에 드 자
마 자 침 대 쌈. 두 린 대.

부모님(선생님) 의견:

이름: 피터

지난 토요일에 발을 다쳤어요. 놀이터에 가서 점프를 하면서 다쳤어요. 발이 아파서 아빠랑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길스를 했어요. 발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글쓰기 대회 집현전상 수상

제 18회 교내 글쓰기 대회

반: 보라마 2	학년: 2	학교 이름: 세부통합 한글학교
한국 이름: 김규한	영어 이름: Aiden Kim	미국 거주한 연수 학기: 8
미국 입국 연도(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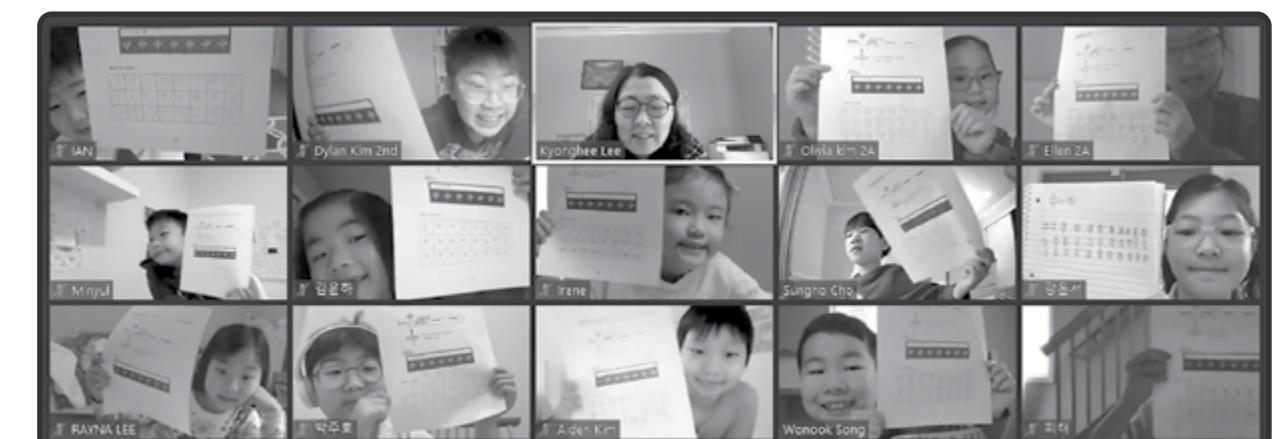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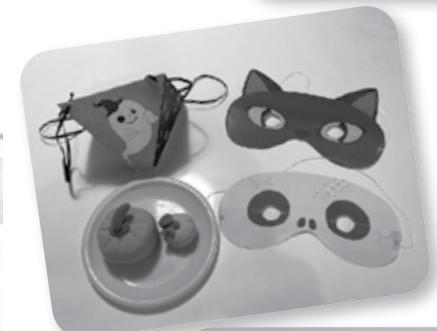
2학년 김규한

제목: 내가 소개하고 싶은 한국 음식
한국에는 여러가지의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가지를 제 1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김치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한국인들은 밥과 함께 먹지요. 김치는 배추만에 아니라 냉면을 끓고 먹고 만드는 것으로 종류가 다양하지요. 갈비찜은 고기를 짭짤한 양념에 버무려 구워요. 그리고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김치에 밥을 깔아 놓고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 놓고 둘을 말아 만드는 요리입니다. 김밥은 한국의 패스트 푸드라고 할 수 있지요.

떡볶이 풍부하답니다. 떡국은 네가지 종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에요. 떡을 물에 넣고 끓여 일종의 스프지요. 떡국은 새해에 꼭 먹는 음식이에요.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어보이더라고요.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세요. 최고입니다!



https://youtu.be/L_Xd4UE2oSo



내 꿈은 게임 개발자

2학년 김규한



안녕하세요. 벨뷰 통합 한글 학교 보라매 반 2학년 김규한입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섯 살쯤 처음 게임을 해 봤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눈은 이만하게 커졌어요. 입도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그 뒤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게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엄마께서는 게임이 그렇게 좋으면 프로게이머가 되는 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도 정말 멋진 게임을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재미가 일등이지요. 게임은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게임을 하며 서로 도울 수도 있고, 깔깔대며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도전을 하고 이루어 내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께 물어봤어요.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수학을 잘 해야 합니다. 코딩도 잘 해야 하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잘 해야 하고, 컴퓨터도 잘 다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답니다.

저는 개발자가 되어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가 잘 짜여 있어서 하면 할수록 흥미진진한 게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임을 내가 만든다고 상상하니 벌써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지금부터 하루 종일 게임만 해야 할까요? 그랬다가는 엄마한테 혼만 나겠지요.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게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멋진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 어린이들이 제가 만든 게임을 가지고 놀며 저처럼 꿈을 키우고 행복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나리반

담임: 홍선의

누스밤리암, 메이슨잭, 맥글레넌아람, 손에스튼, 시걸미영,
이엘라, 이하람, 이해나, 오현택, 첸유민

새로운 환경의 수업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수업 방법으로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열심으로 이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나아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아쉬운 학기였습니다. 조금 알까? 하는
시기에 학기가 끝났습니다. 더 열심을 내서 한국어를 배우고, 나아가 미래의 리더로서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나리반 학생들 미래를 위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It has been a year since Zoom classes started.

The hard work of parents and students has shown, and they all finished this semester well. It is a little unfortunate for the students who are improving their Korean that we are already at the end of the school year. I hope you will all continue to learn Korean and be an example as a future leader.

The Kaenari students make me hopeful for the future! I appreciate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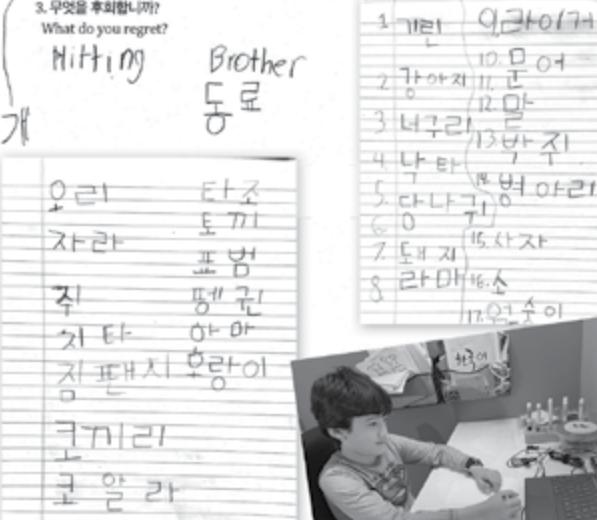


답은 한국어와 영어로 해 주세요. Answer in Korean and English.
이름 (Name): 리암

1. 나이가 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et older?
고생 과학자
be a palientalotist

2. 제일 쉬운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일 힘든 직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easiest job? What is your most difficult job?
(a) babysitter being in army

3. 무엇을 후회합니까?
What do you regret?
Brother
Hitting
동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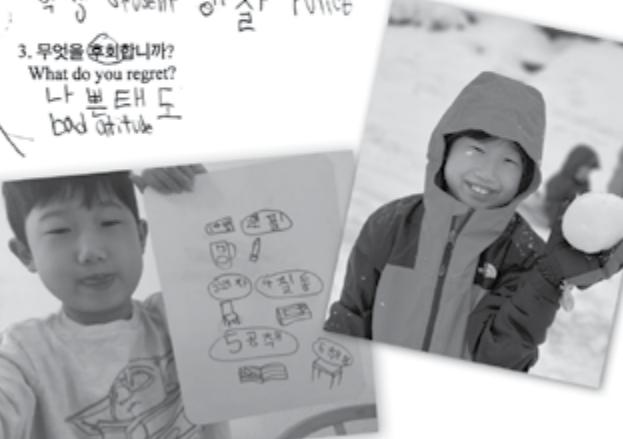


답은 한국어와 영어로 해 주세요. Answer in Korean and English.
이름 (Name): Nathan Oh

1. 나이가 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et older?
I Don't Know 모르겠어요

2. 제일 쉬운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일 힘든 직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easiest job? What is your most difficult job?
학생 student 경찰 police

3. 무엇을 후회합니까?
What do you regret?
나쁜태도 bad attit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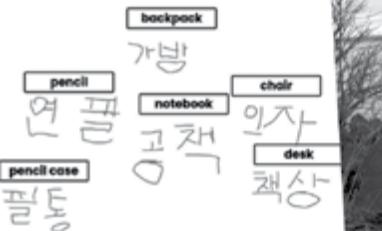


I want to be an engineer when I grow up. I think the hardest job to do is being a doctor. The easiest job is a McDonald's worker. I regret wasting my dad's money on roblox.

자라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가장 힘든 일은 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직업은 맥도날드의 일꾼입니다. roblox에 아버지의 돈을 낭비한 것을 후회합니다.

--Hannah miyoung

1. 미영 시장
In response to: 알맞는 단어를 써 보세요.



답은 한국어와 영어로 해 주세요. Answer in Korean and English.

이름 (Name): Eston 에스튼

1. 나이가 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et older?

의사 Doctor

3. 무엇을 후회합니까?

What do you regret?

Nothing
아무것도
안해요

Sleeping
자는일

Military
군인



답은 한국어와 영어로 해 주세요. Answer in Korean and English.

이름 (Name) 이그리트 EVA Lee.

- 나이가 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et older?
- 제일 쉬운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일 힘든 직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easiest job? What is your most difficult job?
- 무엇을 후회합니다?
What do you regret?

최고 경영자 CEO
I'm not sure.
후회 없다.
No regret!

천유민

스포츠

천유민

In response to: 반대역 만드는 법을 적어 보세요. How to make the Korean bindaeduk? What are the ingredients?

mung bean
kimchi
green onions
pork
garlic
salt and pepper
soy sauce
sesame oil
bean sprouts
chilly pepper
cooking oil.

겉은 바삭바삭 속은 맛있는 뉘두전.
Inぱ진짜 맛있는 뉘두전.

답은 한국어와 영어로 해 주세요. Answer in Korean and English.

이름 (Name) 이하람

- 나이가 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et older?
Engineer
- 제일 쉬운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일 힘든 직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easiest job? What is your most difficult job?
Making paper art for my friends
- 무엇을 후회합니다?
What do you regret?
I regret climbing and breaking my arm

a good seed will grow good and neat and happy like a seed that does not rush or give up will be good like humans.

답은 한국어와 영어로 해 주세요.
Answer in Korean and English.

이름 (Name): 이해나

- 나이가 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et older?
- 나이가 들면 작가가 되고 싶다



답은 한국어와 영어로 해 주세요. Answer in Korean and English.

이름 (Name) 짐 Zach

- 나이가 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et older?
Doctor
- 제일 쉬운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일 힘든 직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easiest job? What is your most difficult job?
Garbage man Doctor
- 무엇을 후회합니다?
What do you regret?
I regret eating a Medium Shawarma instead of a Small

메이슨작



3rd – 5th Grade • 개나리 KaeNaRi

3rd – 5th Grade • MooGoongHwa

무궁화반

담임: 박태은

조교: 김경주, 박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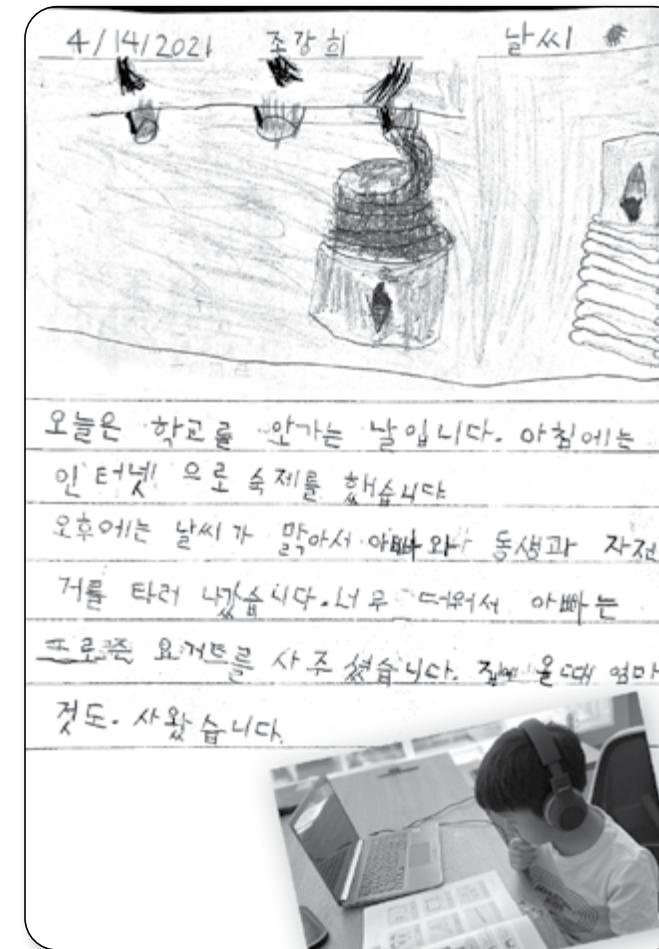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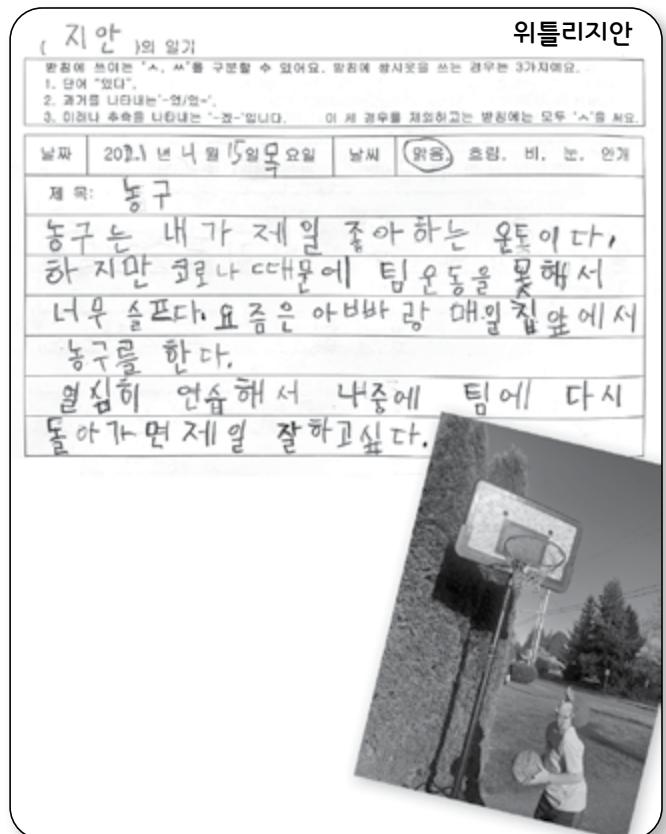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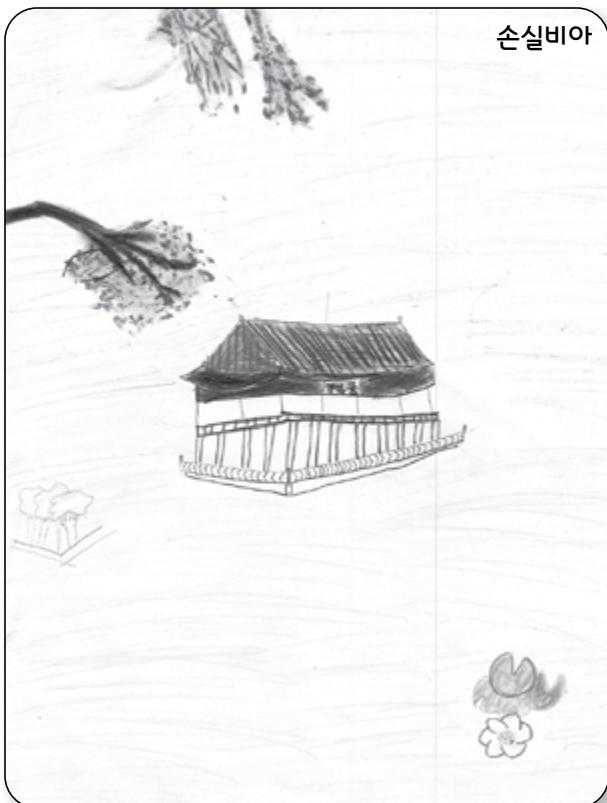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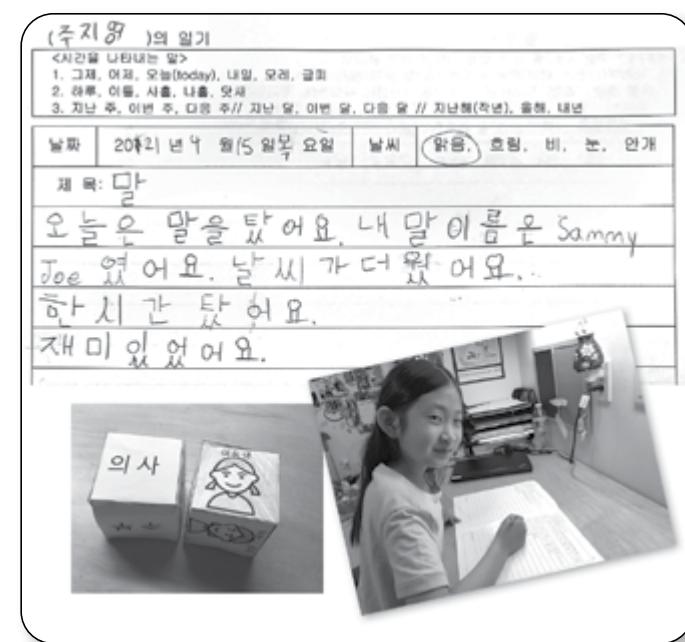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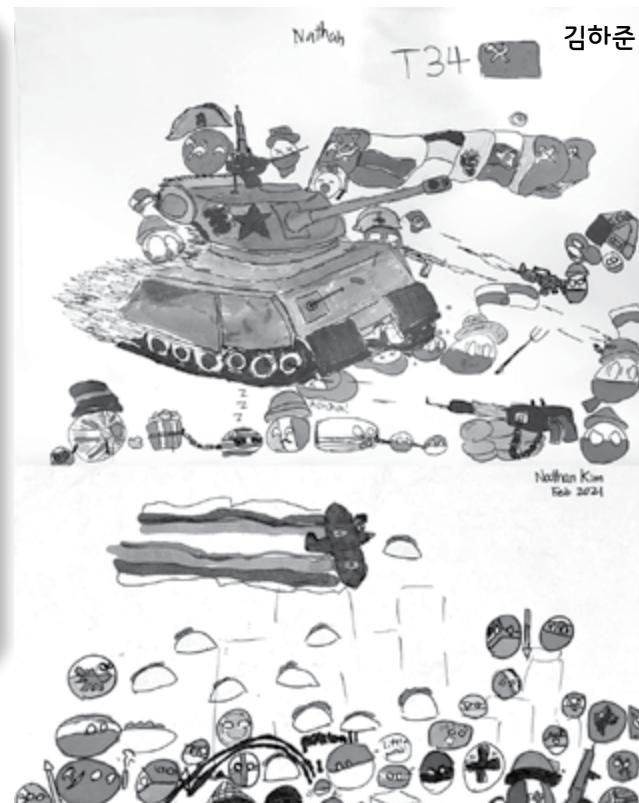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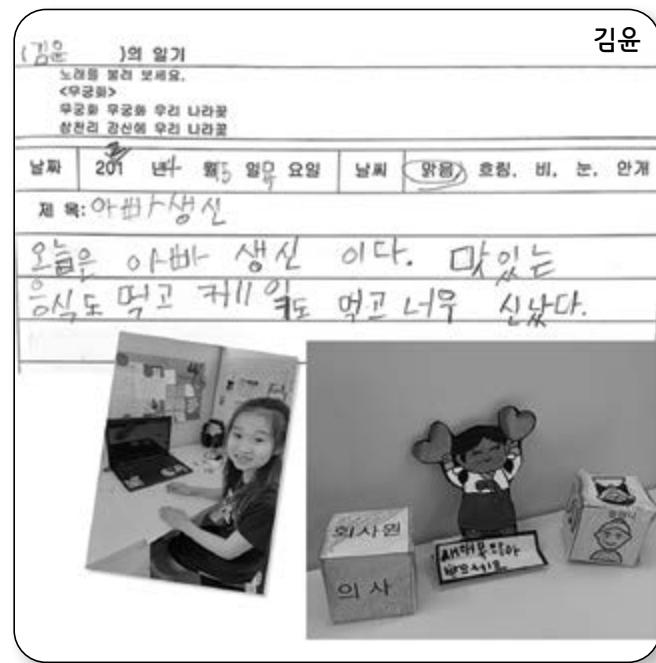
강경식, 김윤, 김하준, 노지원, 박은아, 손실비아,
윤지오, 위틀리지안, 조강희, 주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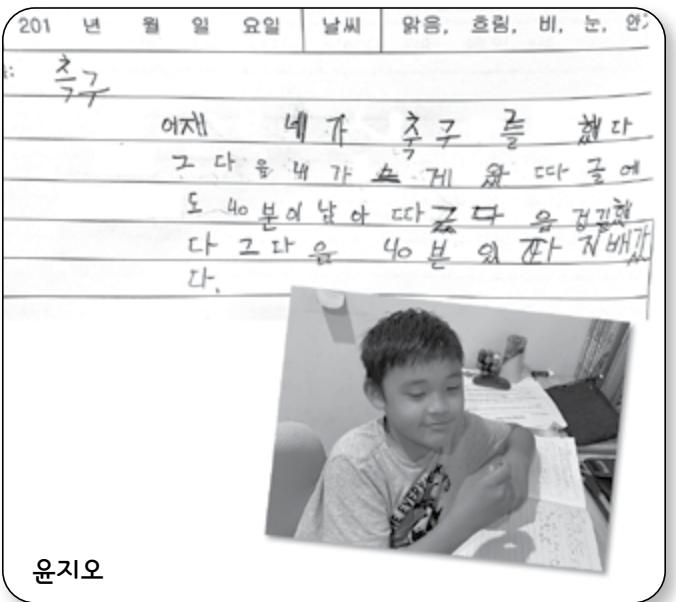
선생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무궁화반 친구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난 나의 첫 제자들! 우리반 친구들의 이름을 적은 예쁜 보드가 우리 식탁 옆에 붙여져 있고 나는 매일 아침마다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1주일에 한번 만나는 수업시간이지만 선생님에게는 매일 보는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답게 균형잡힌 리더로 살아갈 우리 무궁화반 친구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문화와 한글 공부 열심히 하며 영향력있는 한국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업과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역할연기와 소그룹인도를 잘 해준 우리반 김경주, 박비건 조교선생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3rd – 5th Grade • 무궁화 MooGoongHwa



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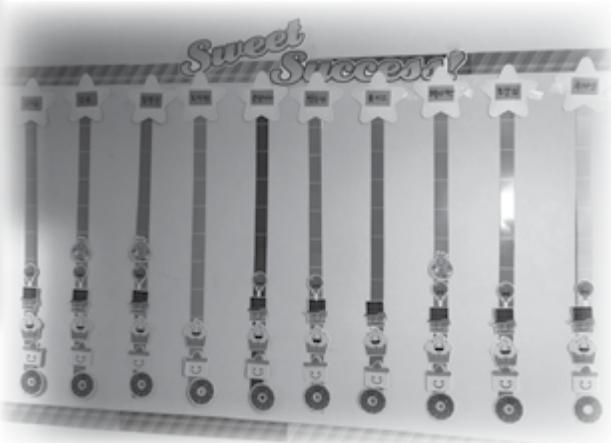
(강경식)의 일기

<놀림말>
법 → 전지, 생일 → 생신, 집 → 댁,
오다 → 오시다, 있다 → 계시다 아파다 → 민망으시다
자다 → 주무시다, 나이 → 연세 할 → 말씀

날짜 2020년 3월 5일 금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제 목: 라볶이

오늘의 점심은 라볶이 먹었습니다.
누나가 요리해서요, 내가 제일 좋은것은
먹이에요. 메운음식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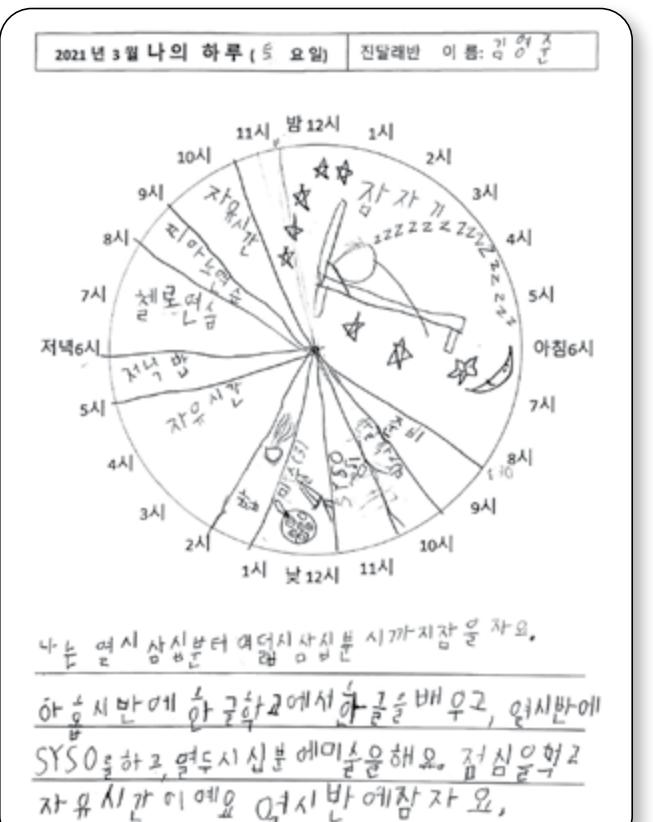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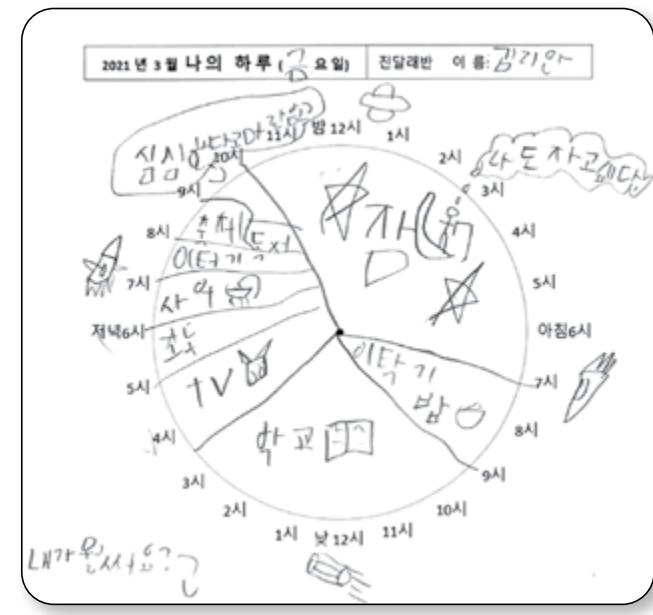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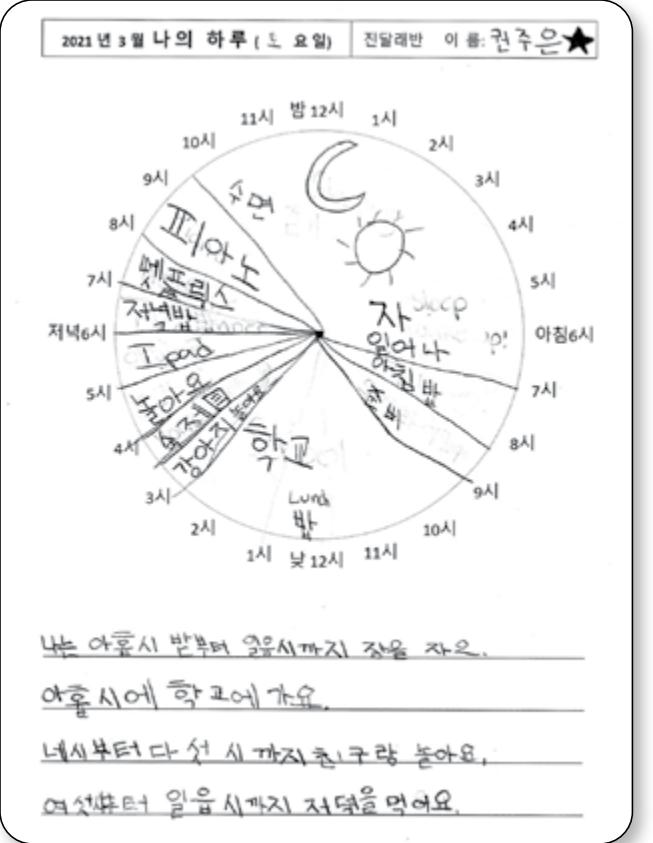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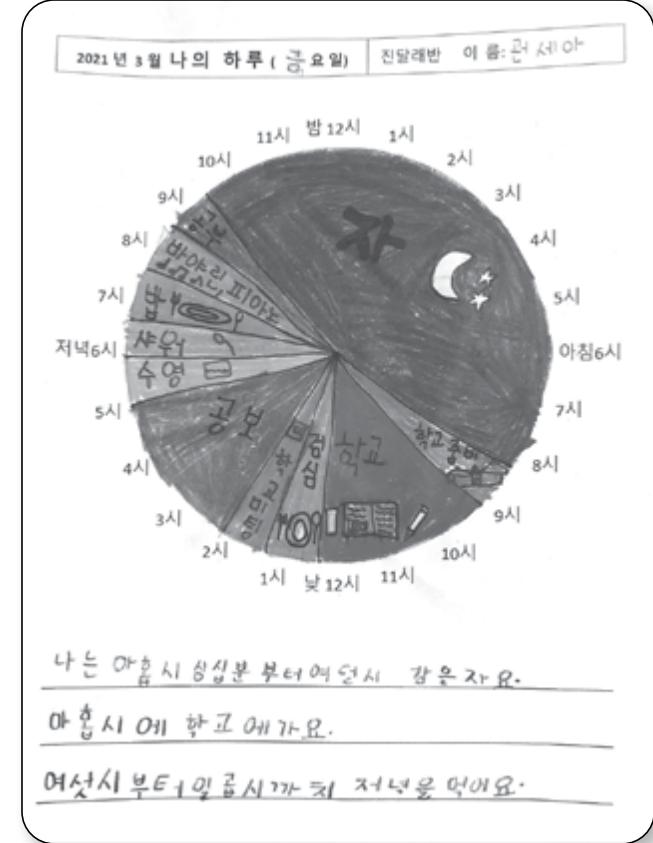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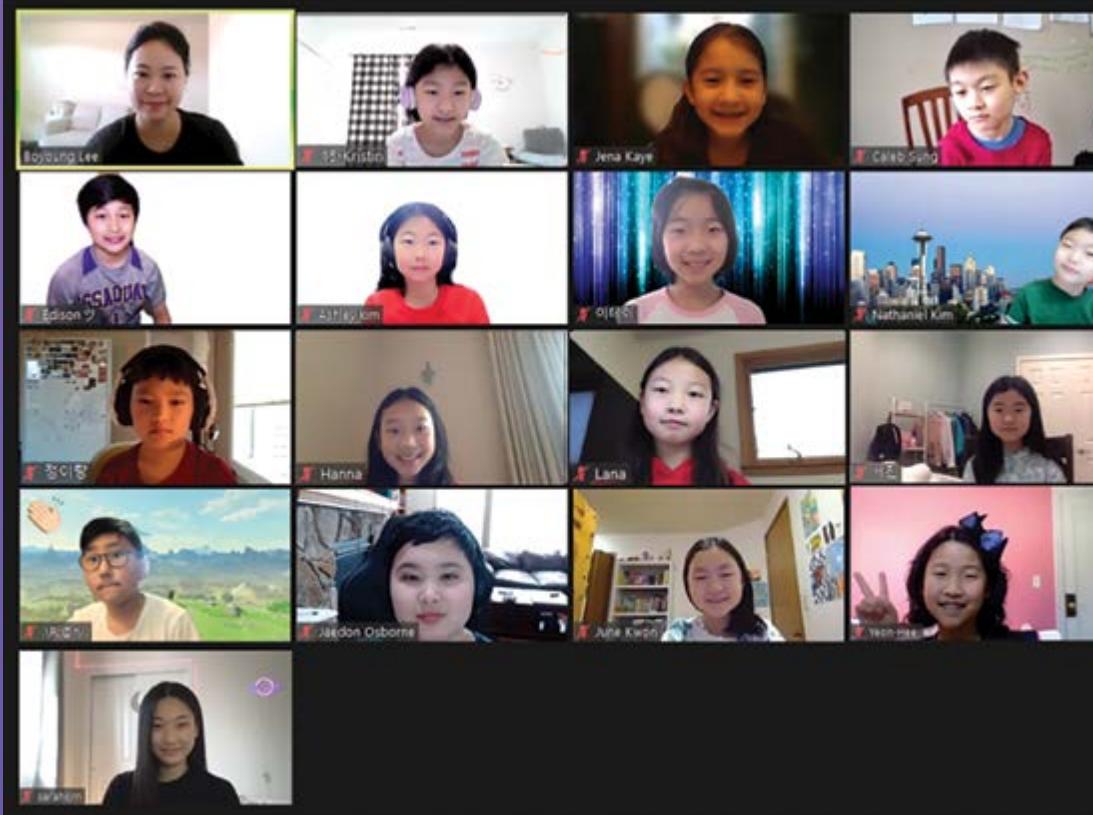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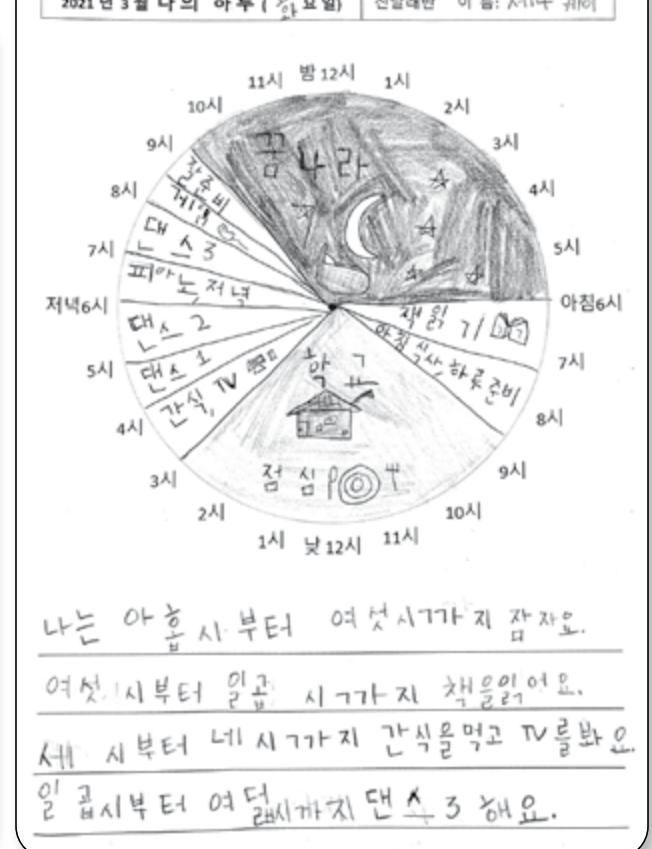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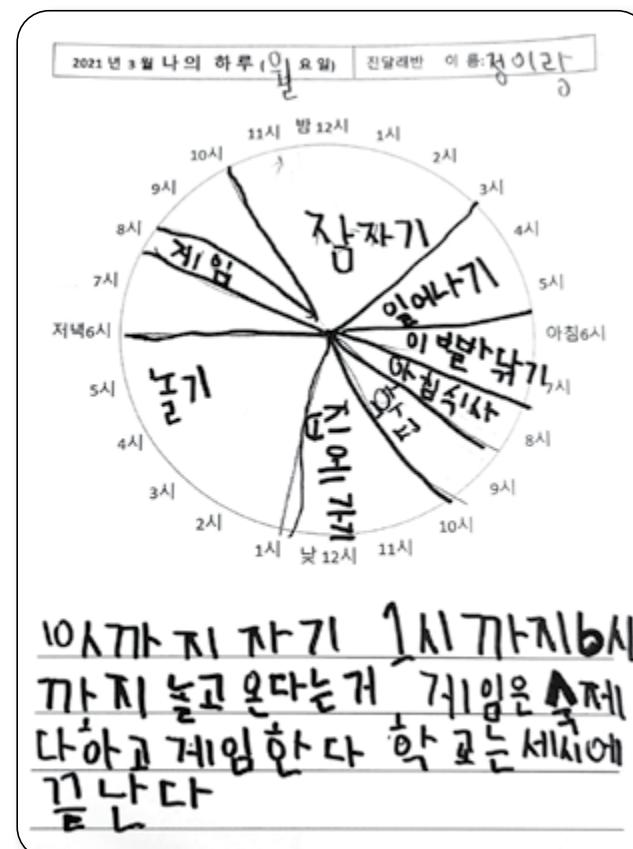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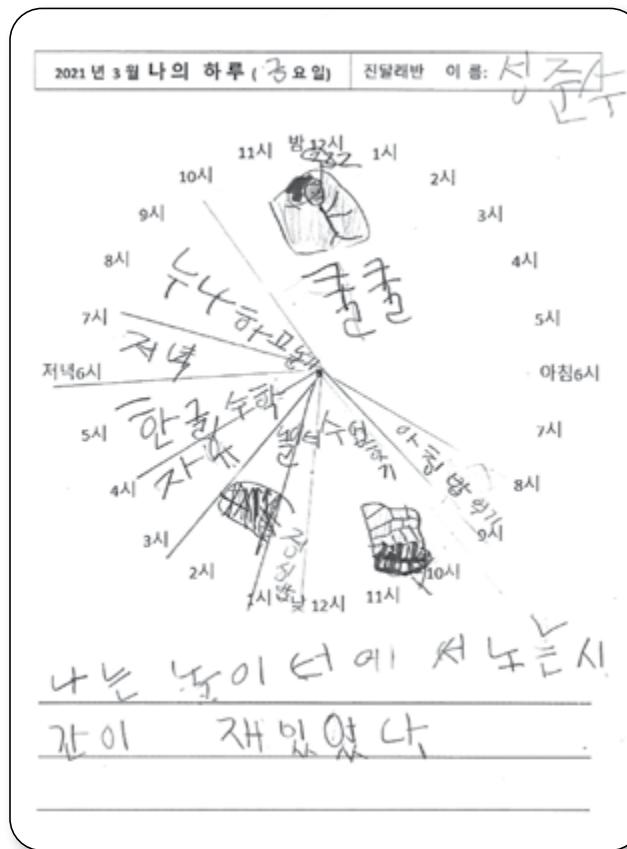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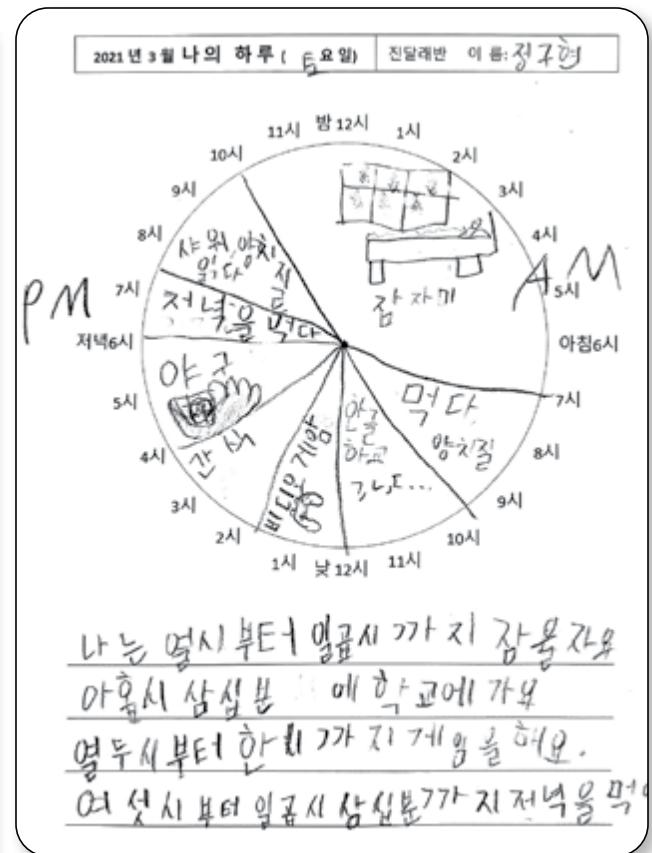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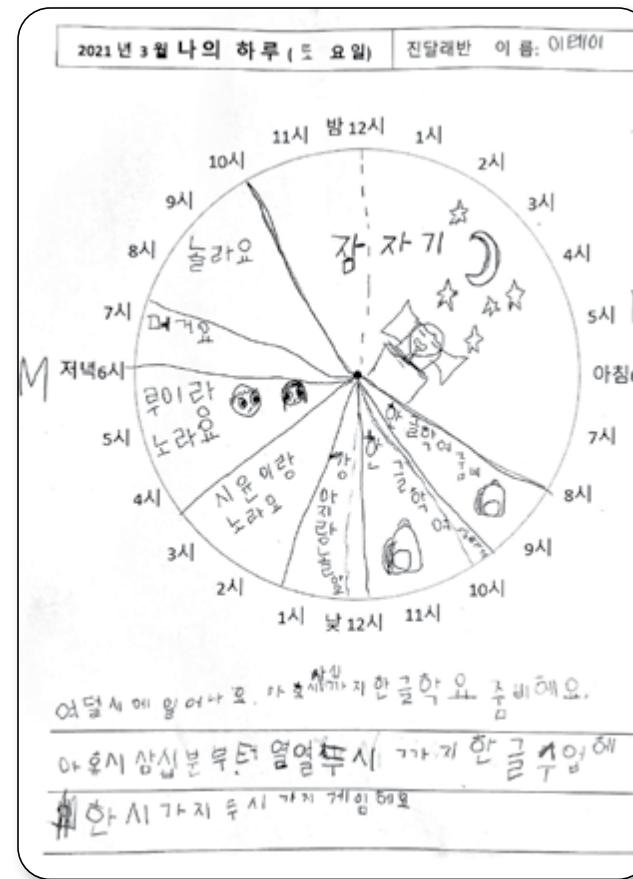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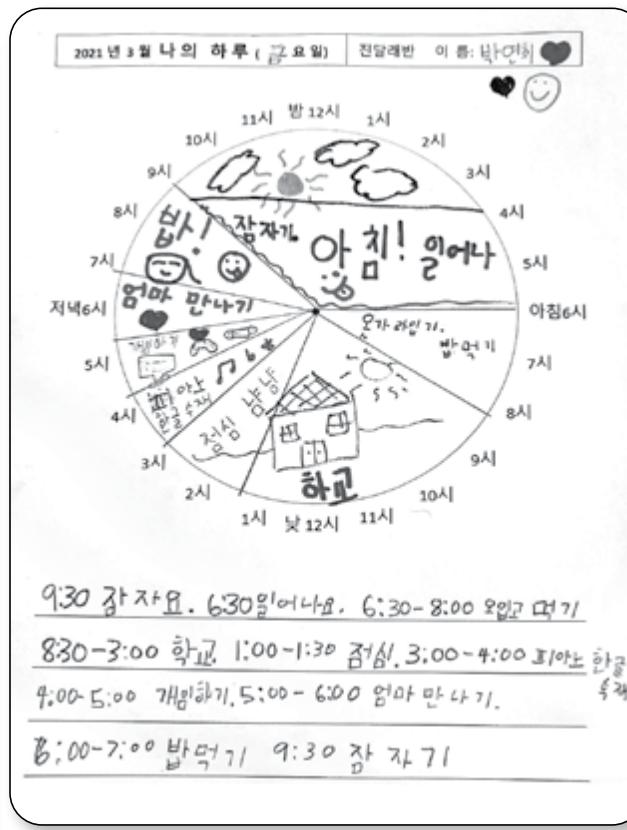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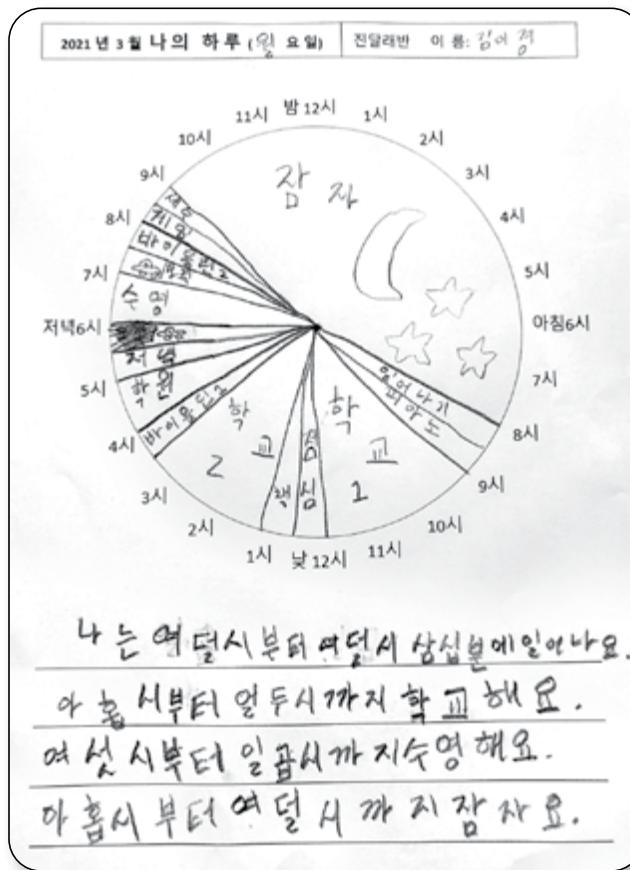
진달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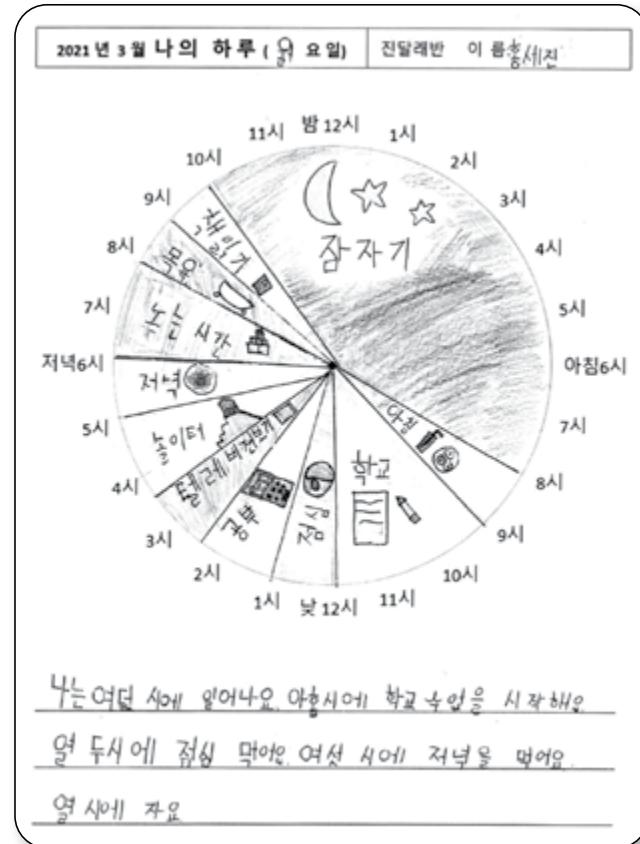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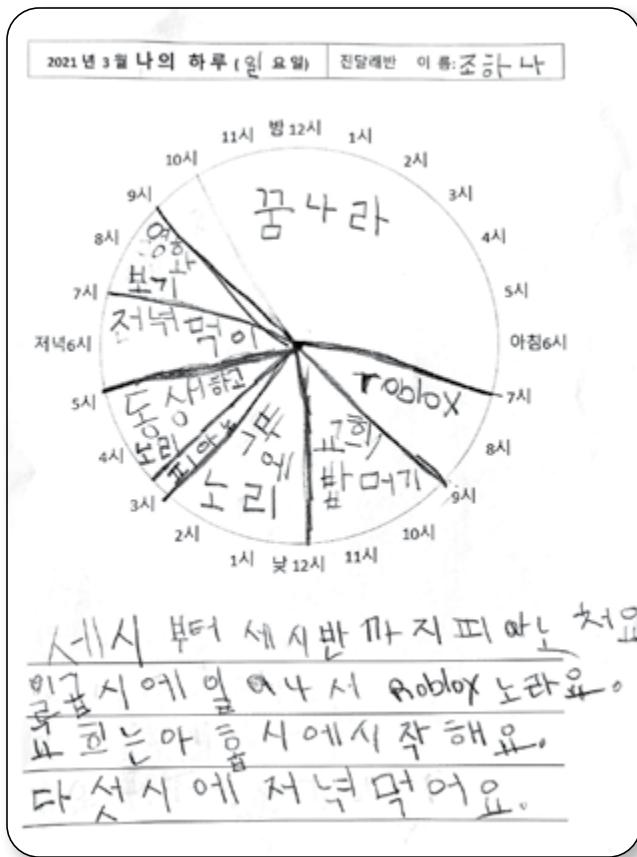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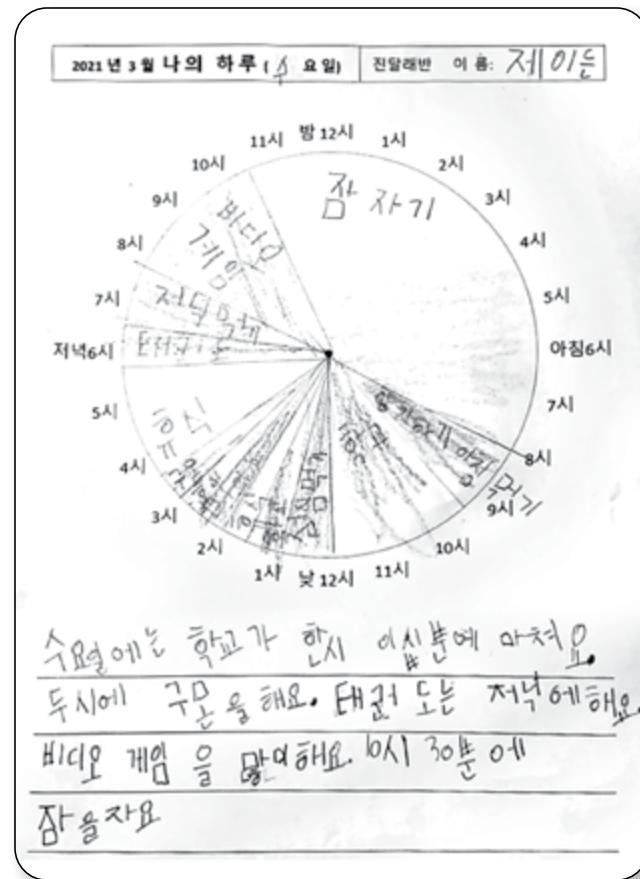
담임: 이보영
조교: 김선주

권세아, 권주은, 김리안, 김영준, 김이경, 박연희,
박해영, 성준수, 이테이, 정구현, 정이랑,
제나케이, 제이든오스본, 조하나, 홍세진

올 한 해는 온라인 수업만 하며 결국은 교실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지나갔네요. 아쉬움이 크고 안타까운 해였지만 모두에게 더욱 특별하게 기억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진달래반 친구들 화면 속에서 선생님을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맙고 대견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 공부 열심히 하며 멋진 한국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곁에서 수업에 열심히 도움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주 조교도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말하기 대회 장려상 수상
패션 디자이너의 꿈
3학년 진달래반 박연희

안녕하세요, 저는 벨뷰 통합 한국 학교에 다니는 3학년 박연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취미가 있나요?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저는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칭찬해주세요. 그래서 재활용을 사용해
만들기를 하고 또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장난감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만들 때
정말 신이 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커서 뉴욕이나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싶어요. 그리고 패션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가볍고 실용적인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을 만들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코코 샤텔을 알고
있나요? 저희 속모가 한국에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준 책인데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이 생겼죠.
코코 샤텔이 처음부터 유명하고 돈이 많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주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이였지만 삼촌 집에서 도움을 받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계속 포기하지않고 열심히 옷 만드는 것을 배우고
결국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지요.

저도 코코 샤텔처럼 되기위해서는 지금 학생이 해야하는 숙제를 열심히 하고, 바느질 책도 많이 읽고 천이나 다양한
소품으로 생각했던 옷이나 가방을 자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분들의 작품도 보며 좋은 생각들을 많이
배우는 것을 노력해보려고 해요. 연습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다시 만든 작품을 망가뜨려 또 시작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저의 꿈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달려갈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화이팅을 와침니다!



저는 꿈이 아주 많아요

3학년 진달래반 제나 케이



안녕하세요, 벨뷰 통합 한국학교 3학년 제나 케이입니다.

나는 커서 되고 싶은 게 아주 많아요. 댄서, 댄스 선생님, 아티스트, 교회 선생님,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 토이 메이커, 발명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커서 뭐가 되는 게 좋은지 엄마와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엄마와 아빠는 그냥 웃었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먼저 제일 좋아하는 걸 네 개 골랐어요: 프로 댄서, 발명가, 교회 선생님, 아티스트예요.

댄스는 제가 3살 반 때부터 시작했어요. 댄스 팀에는 6살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댄스를 계속 하고 싶어요. 엄마가 돈은 많이 못 번대요.

발명가는 제가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꺾다, 저기로 조였다 하면서 여러 모양을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교회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들이 저보고 커서 잘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주일에 나 혼자 블루 박스 설교도 만들어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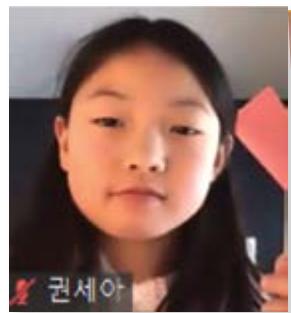
그리고, 나는 그림을 망쳤을 때 그걸 더 망쳐서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이 항상 좋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아티스트를 일등으로 뽑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커서 어떤 아티스트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권주은



박연희



채송화반

담임: 김화령
조교: 이예진, 박정호, 이예림

강한솔, 김리아, 김세연, 김엘라, 김해나, 백예슬, 손유니스,
신승민, 양시레이, 장민호, 장소은, 정이선, 최아린, 한은수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가득했던 2020-2021학년.
주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잘 대응하며 최선을 다해 준 채송화반 모두를 칭찬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살려, 다 함께 10권의 동화도 집중하여 읽을 수 있었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훌륭한 위인, 속담에 대하여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으로 격려하며
지원해주신 학부모님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든든하고 멋졌던 이예진, 박정호, 이예림 조교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책임감 강한 조교님들 덕분에 채송화반 수업이 더 풍성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알찬 도전의 시간들을 보낸 우리 채송화반 친구들, 최고였습니다.
더욱 멋질 다음 학년도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름방학 되세요!



3rd – 5th Grade • 채송화 ChaeSongHwa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김리아

나를 나타내는 5 가지 단어

고양이를 좋아해요

나한테 수학을 재미 있어요

한글 학교에 가요

이름: 김리야

한국 사람예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내가 만든 태극기

편지!

종아 하는 음식은...

서렁탕을 너무 좋아해요!

서렁탕에 고기가 맛있고 보무러워요!

저 엄마가 서렁탕을 맛있게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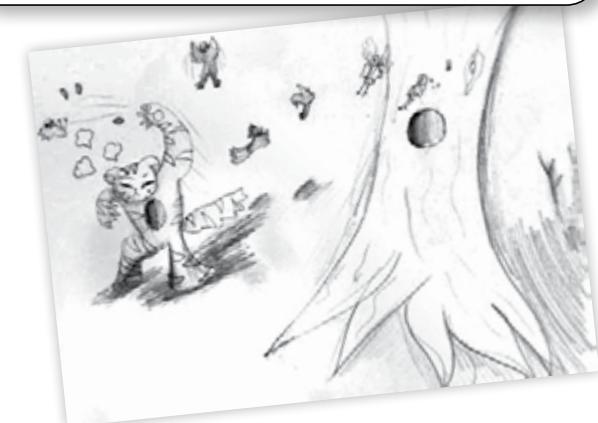
더라도 기도 좋아해요.

그다보기가 맛있지만 노부 애워요.

김밥은 맛있어요.

H-마트에 짜금 맛이 어어요. ~~~

저엄마가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요! ☺



3rd - 5th Grade • 채송화 ChaeSongHwa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김엘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나무가 소년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사과 나무가지 구루타기

나무는 왜 행복했을까요?

내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와서요 내가 만든 꽈찌요 스티커요

민화 호작도: 까치와 호랑이

내가 좋아하는 동물: 강아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나는 디더嬖기 조아해요. 나는 매운디더嬖기
두 잘 먹어요. 나는 크그근에 다섯 개 먹고 시았어요.
나는 디더嬖기 너무 맛시세요. 뜨거운 디더嬖기 두
간 치아요. 나는 어뜨때는 디더嬖기 가속 달아
구마래요. 나 가족들은 디더嬖기 조아해요. 그
Next week 애다사먹구 퍼요.

백예슬

'비밀이야'를 읽고

나의 작품

만약 내가 우리집에서 특별한 동물을
키운다면 저는 거북이를 키우고 싶어요.
동갑질이 색이 예뻐요. 수족관에서 넣어서
키우면 되요. 오래오래 같이 살수있어요.
그리고 쉽게 키울수있어요.

세종대왕에 대하여

세종대왕은 한국 네 번째 왕이었어요.
한글을 만들 사람이에요.
해시계, 베시계 그리고 화살도 만들었더
요. 박성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훌륭한
왕이에요.
엄청 뚝뚝한 거 같아요.
세종대왕을 만나면 한글을 만들어줘서 감
사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신승민

멋진 작품을 감상 후 나만의 작품을 그려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제가 우리 엄마 왜 우리 엄마를 좋아하나면 요리를 잘해서. 그리고 저랑 같이 놀아요. 우리 엄마는 어려운 숙제를 같이 해요. 미술도 잘해요. 우리 엄마는 친절해요. 마지막은 게임을 싫어해요. 끝!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한 소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이름은 포켓몬 소드

포켓몬 소드의 특징이 거대한 포켓몬도 배틀해요

내가 왜 포켓몬 소드를 좋아할까요 저는 거대한 포켓몬을 배틀 이기면 잡을수도 있어요

포켓몬 고도 좋아요. 다음 숙제에도 내주새요!

김해나

나를 나타내는 10 가지 단어

세종대왕님께 쓴 편지

1. 세종대왕 님은 조선에 네 번째
이름은 이성음입니다.

2.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3. 세종대왕님께서는 측우기까지
불명하고 싶습니다.

4. 백성들을 위해 쉬운 글을 만드신
제종 폐스럽습니다.

5. 저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하고 싶습니다.

6.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image is a collage of several Korean children's book pages. At the top left, a box contains the title '양시레이' (Yangshiray) and a large stylized '양' character. Below it, another box shows the text '도서관에 간 사자를 읽고 이야기 창작' (Creating stories by reading a dragon at the library). The central part of the collage features a large illustration of a robot-like character with a speech bubble containing Korean text. To the left, there's a box with a clock and shelves, and another with the text '도서관에 간 원숭이는 긴 팔로 책장을 돌아 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The monkey at the library can read books by turning the pages with its long arms). On the right, there's a box with the text '그 다음으로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은?' (What do you want to do next?). At the bottom left, a box asks '무엇이 되고 싶나요?' (What do you want to be?) and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lawyer). In the bottom center, a cartoon hippo character says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요?' (What will I be like when I grow up?). To the right, a box asks '시인' (Poet) and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What am I working hard on now?). At the bottom right, a box says '법을 대변 하는 일' (Representing law), '무엇을 잘 해야 하나요?' (What should I do well?),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What am I still working hard on?), and '매일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I study hard every day). The bottom left also has a box with the text '법을 잘 알고 논쟁도 잘 해야함' (You need to know the law well and argue well).



<p>장소은</p>	<p>개미가 도서관에 갔어요. 개미가 책이 너무 끝거울/서 거나를 수었어요. 사자가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개미와 사자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어요.</p>
<p>도서관에 간 사자를 읽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p>	
<p>1. 내가 유관순이었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못써왔을 것 같아요.</p>	
<p>2. 내가 유관순이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까요? 내가 유관순이었다면 나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p>	
<p>3.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목숨을 걸고 싸워주시면서 고맙습니다.</p>	
<p>4. 일본은 과거는 과거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을 숨기고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사과를 해야 잘못을 알고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를 끝낼수 있어요</p>	
<p>도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것도 독립운동처럼 엿진 일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논绎해 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도 말해보세요. 유관순 언니가 용감하게 나라를 열심히 지켰는데, 한국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안네우연.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사람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p>	

최아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수자읽기

010-1234-5678
010-1234-5678
010-1234-5678

내가 잘 하는 것
피아노,
청소
산수
일기장 일어나기

내가 좋아하고 잘 하는 것
노래와 가기
노래 듣기
한글 읽기
생각하기
자전거 타기

여기서 아름
비로 합니다.
아름의 밤
그림을 그리는
아름의 풍
경을 바라보세요.

기쁨은 내 생일이에요
우리 학교 새울
시간 2020. 8. 17 일

Arpil's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rpil
Happy birthday to you

Quizlet

어휘연습 Quizlet

1. Read

4 Written questions

1. Set image

2. Set text

100%

1. Set image

2. Set text

3. Set text

4. Set text

5. Set text

6. Set text

7. Set text

8. Set text

9. Set text

10. Set text

11. Set text

12. Set text

13. Set text

14. Set text

15. Set text

16. Set text

17. Set text

18. Set text

19. Set text

20. Set text

21. Set text

22. Set text

23. Set text

24. Set text

25. Set text

26. Set text

27. Set text

28. Set text

29. Set text

30. Set text

31. Set text

32. Set text

33. Set text

34. Set text

35. Set text

36. Set text

37. Set text

38. Set text

39. Set text

40. Set text

41. Set text

42. Set text

43. Set text

44. Set text

45. Set text

46. Set text

47. Set text

48. Set text

49. Set text

50. Set text

51. Set text

52. Set text

53. Set text

54. Set text

55. Set text

56. Set text

57. Set text

58. Set text

59. Set text

60. Set text

61. Set text

62. Set text

63. Set text

64. Set text

65. Set text

66. Set text

67. Set text

68. Set text

69. Set text

70. Set text

71. Set text

72. Set text

73. Set text

74. Set text

75. Set text

76. Set text

77. Set text

78. Set text

79. Set text

80. Set text

81. Set text

82. Set text

83. Set text

84. Set text

85. Set text

86. Set text

87. Set text

88. Set text

89. Set text

90. Set text

91. Set text

92. Set text

93. Set text

94. Set text

95. Set text

96. Set text

97. Set text

98. Set text

99. Set text

100. Set text

101. Set text

102. Set text

103. Set text

104. Set text

105. Set text

106. Set text

107. Set text

108. Set text

109. Set text

110. Set text

111. Set text

112. Set text

113. Set text

114. Set text

115. Set text

116. Set text

117. Set text

118. Set text

119. Set text

120. Set text

121. Set text

122. Set text

123. Set text

124. Set text

125. Set text

126. Set text

127. Set text

128. Set text

129. Set text

130. Set text

131. Set text

132. Set text

133. Set text

134. Set text

135. Set text

136. Set text

137. Set text

138. Set text

139. Set text

140. Set text

141. Set text

142. Set text

143. Set text

144. Set text

145. Set text

146. Set text

147. Set text

148. Set text

149. Set text

150. Set text

151. Set text

152. Set text

153. Set text

154. Set text

155. Set text

156. Set text

157. Set text

158. Set text

159. Set text

160. Set text

161. Set text

162. Set text

163. Set text

164. Set text

165. Set text

166. Set text

167. Set text

168. Set text

169. Set text

170. Set text

171. Set text

172. Set text

173. Set text

174. Set text

175. Set text

176. Set text

177. Set text

178. Set text

179. Set text

180. Set text

181. Set text

182. Set text

183. Set text

184. Set text

185. Set text

186. Set text

187. Set text

188. Set text

189. Set text

190. Set text

191. Set text

192. Set text

193. Set text

194. Set text

195. Set text

196. Set text

197. Set text

198. Set text

199. Set text

200. Set text

201. Set text

202. Set text

203. Set text

204. Set text

205. Set text

206. Set text

207. Set text

208. Set text

209. Set text

210. Set text

211. Set text

212. Set text

213. Set text

214. Set text

215. Set text

216. Set text

217. Set text

218. Set text

219. Set text

220. Set text

221. Set text

222. Set text

223. Set text

224. Set text

225. Set text

226. Set text

227. Set text

228. Set text

229. Set text

230. Set text

231. Set text

232. Set text

233. Set text

234. Set text

235. Set text

236. Set text

237. Set text

238. Set text

239. Set text

240. Set text

241. Set text

242. Set text

243. Set text

244. Set text

245. Set text

246. Set text

247. Set text

248. Set text

249. Set text

250. Set text

251. Set text

252. Set text

253. Set text

254. Set text

255. Set text

256. Set text

257. Set text

258. Set text

259. Set text

260. Set text

261. Set text

262. Set text

263. Set text

264. Set text

265. Set text

266. Set text

267. Set text

268. Set text

269. Set text

270. Set text

271. Set text

272. Set text

273. Set text

274. Set text

275. Set text

276. Set text

277. Set text

278. Set text

279. Set text

280. Set text

281. Set text

282. Set text

283. Set text

284. Set text

285. Set text

286. Set text

287. Set text

288. Set text

289. Set text

290. Set text

291. Set text

292. Set text

293. Set text

294. Set text

295. Set text

296. Set text

297. Set text

298. Set text

299. Set text

300. Set text

301. Set text

302. Set text

303. Set text

304. Set text

305. Set text

306. Set text

307. Set text

308. Set text

309. Set text

310. Set text

311. Set text

312. Set text

313. Set text

314. Set text

315. Set text

316. Set text

317. Set text

318. Set text

319. Set text

320. Set text

321. Set text

322. Set text

323. Set text

324. Set text

325. Set text

326. Set text

327. Set text

328. Set text

329. Set text

330. Set text

331. Set text

332. Set text

333. Set text

334. Set text

335. Set text

336. Set text

337. Set text

338. Set text

339. Set text

340. Set text

341. Set text

342. Set text

343. Set text

344. Set text

345. Set text

346. Set text

347. Set text

348. Set text

349. Set text

350. Set text

351. Set text

352. Set text

353. Set text

354. Set text

355. Set text

356. Set text

357. Set text

358. Set text

359. Set text

360. Set text

361. Set text

362. Set text

363. Set text

364. Set text

365. Set text

366. Set text

367. Set text

368. Set text

369. Set text

370. Set text

371. Set text

372. Set text

373. Set text

374. Set text

375. Set text

376. Set text

377. Set text

378. Set text

379. Set text

380. Set text

381. Set text

382. Set text

383. Set text

384. Set text

385. Set text

386. Set text

387. Set text

388. Set text

389. Set text

390. Set text

391. Set text

392. Set text

393. Set text

394. Set text

395. Set text

396. Set text

397. Set text

398. Set text

399. Set text

400. Set text

401. Set text

402. Set text

403. Set text

404. Set text

405. Set text

406. Set text

407. Set text

408. Set text

409. Set text

410. Set text

411. Set text

412. Set text

413. Set text

414. Set text

415. Set text

416. Set text

417. Set text

418. Set text

419. Set text

420. Set text

421. Set text

422. Set text

423. Set text

424. Set text

425. Set text

426. Set text

427. Set text

428. Set text

429. Set text

430. Set text

431. Set text

432. Set text

433. Set text

434. Set text

435. Set text

436. Set text

437. Set text

438. Set text

439. Set text

440. Set text

441. Set text

442. Set text

443. Set text

444. Set text

445. Set text

446. Set text

447. Set text

448. Set text

449. Set text

450. Set text

451. Set text

452. Set text

453. Set text

454. Set text

455. Set text

456. Set text

457. Set text

458. Set text

459. Set text

460. Set text

461. Set text

462. Set text

463. Set text

464. Set text

465. Set text

466. Set text

467. Set text

468. Set text

469. Set text

470. Set text

471. Set text

472. Set text

473. Set text

474. Set text

475. Set text

476. Set text

477. Set text

478. Set text

479. Set text

480. Set text

481. Set text

482. Set text

483. Set text

484. Set text

485. Set text

486. Set text

487. Set text

488. Set text

489. Set text

490. Set text

491. Set text

492. Set text

493. Set text

494. Set text

495. Set text

496. Set text

497. Set text

498. Set text

499. Set text

500. Set text

장민호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Great Wolf Lodge에서 튜브를 탔을 때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튜브를 처음에는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안 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누나가 재미있다고 같이 타자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볼까? 생각이 생겼습니다. 튜브를 타려 올라갈 때 너무 겁이 났습니다. 튜브에 앉았을 때 나는 두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 눈을 살짝 떠보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탔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농장을 그렸습니다.

우리 집 강

유관순 누나에게

3월이 되면 대한독립 만세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죽었던 유관순 누나가 멋져요. 답답하고 힘든 감옥에서 무서울 텐데도 독립만 생각 해서 대단 합니다. 저도 누나처럼 씩씩하게 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장민호 드림

교내 글쓰기대회 집현전상 수상

장민호

제목: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특별한 왕입니다. 세종대왕이
네번재왕이나 다 한 글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 글을 만들어서 존경해요.
세종대왕 많아요! “세종대왕 어딨어?”
한글을 만들었어요? 를 말하세요. “여기
글이 있어?” 도 말하고 싶어요. 세종대
왕처럼 서로운걸 만들고 싶어요.
세종대왕이 고마워요, 바도 세종대왕
처럼 끙끙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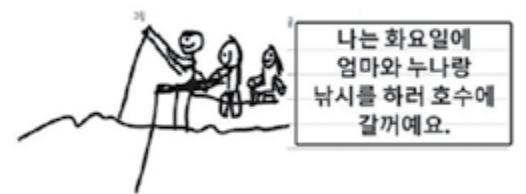
마지, ‘동이’입니다!

The image contains two main parts. On the left, there is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young student's face next to a drawing they have made. The drawing depicts King Sejong the Great, recognizable by his tall, black, conical official hat. On the right, there is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book cover. The title '여우 책 먹는 우연' is written vertically at the top in large, stylized Korean characters. Below the title i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black dog wearing a graduation cap and holding a diploma or certificate in its mouth. The overall theme of the image is the student's creative representation of the book mentioned in the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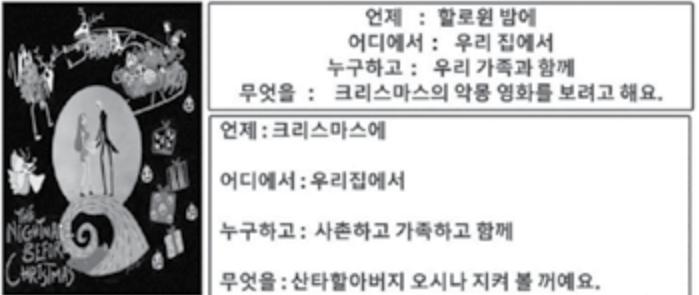


저는 거북이를 키우고 싶어요.
등껍질이 색이 예뻐요.
수족관에서 넣어서 키우면 되요.
오래오래 같이 살수있어요.
그리고 쉽게 키울수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힘 기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김리아



손유니스

김세연



안녕하세요, 안경을 쓴
장민호입니다.



민들레반

담임: 이은정
조교: 흥세은, 이은희, 이은혜

김사랑, 김효준, 노하진, 배유빈, 백시윤, 서주하,
선승아, 아혜인, 오선재, 유중연, 이소은,
이규현, 이한울, 조성주, 최민서, 최아영

지난 한 해 우리는 컴퓨터 화면 속에서만 만났습니다. 스크린과 사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몸도 마음도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처럼 열의 넘치는 태도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며 가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한국 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부모님과 조교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고 건강한 얼굴로 우리 모두 학교에서 꼭 다시 만나요!



김사랑

날짜	2021년 3월 1일 목요일	날씨	맑음	증상	네, 눈, 인계
제목:	손기정				

손기정은 대단해요. 저는 손기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손기정은 미래를 이끌어갈 거예요. 시설에 나갔어요. 손기정은 활하게 달려서 일등을 했어요. 손기정은 시상대에 올라 것 있어요. 손기정은 대등을 했지만, 솔풀어요. 단지 한국을 위해 회선을 다 했던거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앤 보이 지 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기술을 달고 우주인으로 참가했어요. 손기정은 태극기를 달고 한국을 위해 뛰는 그 날을 소망했어요.

노하진

날짜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날씨	맑음	증상	비, 눈, 인계
제목:	눈 놀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오늘은 눈에 놀이를 했는지 쓸 거예요.
눈이 온 젖 날에는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놀았어요. 우리가 썰매를 많이 탔고
이 글루도 만들었어요. 두 번째 날도
똑같은 게 놀았어요. 이번주 수요일에는
스키 타러 스노클리미에 갔어요. 아빠랑
언니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에 스케일 탔어요.

김효준

날짜	2021년 4월 1일 목요일	날씨	맑음	증상	흐림, 비, 눈, 인계
제목:	동물들의 첫 올리피크				

어느 여름, 사람들은 모여서 올림픽을 했어요. 사람들은 놀고 놀고 내고 세계 곳곳으로 초대장을 보냈는데 작은 새가 초대장을 하나를 물고 들을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둘둘 나라의 둘들은 사람에게 초대장을 막 받았는데 올림픽에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말들은 사람들은 이 초대장을 보냈고 생각을 하는 걸 같아요. 그런데 젤리천은 멀리 뛰가 경기에서 날아가 버리고, 부상 경기에서 큰 발을 함께 휘둘렀고, 차례로 달리기에서 큰 초별도의 장애물을 그려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경기, 둘을 이 헤는 경기로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주하

윤주의 모험

윤주는 부모님과 나무를 심으려고 공원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윤주는 신이났어요.

아빠는 땅을 패어요. 다음은 땅에 있던 나무가지를 패어요. 아빠는 더 깊이 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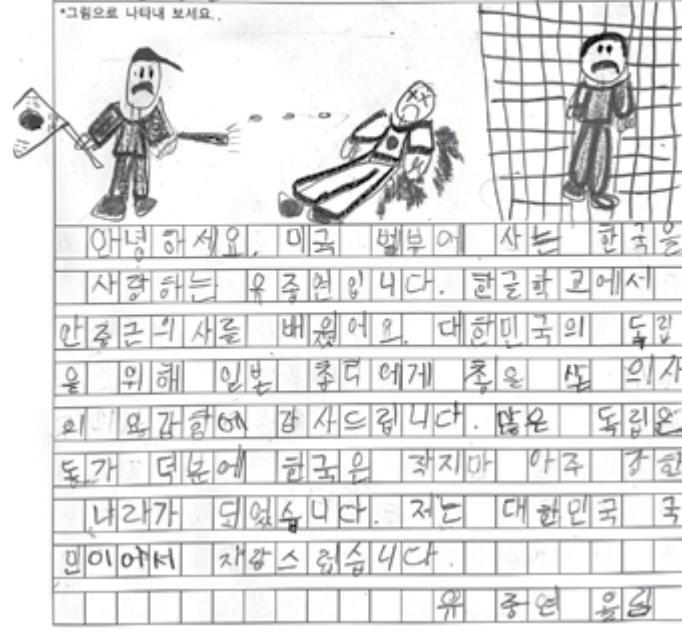
아빠는 땅을 다 패어요. 엄마는 박수를 치요. 윤주는 직접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아빠는 윤주를 가르쳐 주어요. 땅을 판곳에 흙을 던져요. “엄마! 아빠! 이 나무를 콜콜이라고 지을려요.” 콜콜은 많이 잘아요.

자세히 보니 나무잎이 색도 달으지만, 모양도 달아요! 큰잎도 있고 작은잎도 있고 뾰족한잎도 있고 부들한잎도 있고. 신기해요!

윤주에 가족은 개속 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밤나무, 감나무. 많죠? 근데 그게 다가 않아예요.

예	진	에	한	국	에	저
학	교	를	다	닐	때,	는
차	가	운	비	가	올	때
도	뛰	었다.	그	래	서	
감	기	에	걸	렸	다.	몸
아	프	고	열	이	만	이
났	다.	그	래	서	엄	마
와		함	께	병	원	으로
갔	서	약	을	마	받	아
다.	집	에	돌	아	와	엄
마	는	때	듯	한	끌	자
주	셨	다.	그	리	고	내
배	를	엄	마	손	은	약
순	이	라	며	배	를	묻
러	주	셨	다.	그	때	나
는	엄	마	가	거	정	하
느	염	려	하는	마	음	을
느	쳤	다.				



(유증의)의 일기

날짜 20²¹년 3월 6일 금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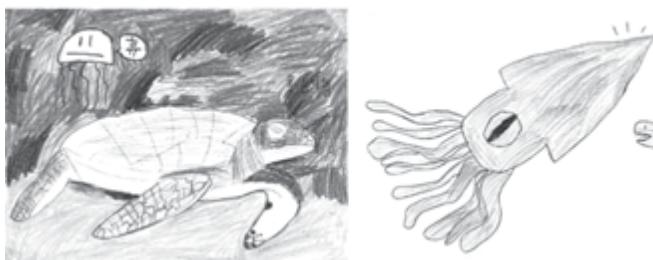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미국 벌부어 사는 한국을 사랑하는 우중연입니다. 한글학교에서 안중근의사를 배웠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쏜 의사의 묘감합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독립운동가 여러분에 한국은 적지마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우중연입니다

나는 우리인장날에서 춤으로 술라임
을 밟고 싶다. 왜냐하면, 내 사촌 채원
이 언니랑 이모 올래 술라임을 만났던
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홀리
니 댁에서 술라임을 먹을 때 막도는지
언니가 보여 주었다. 그래서 술라임을
밟고 싶다. 술라임을 밟으면 내 학사,
뿔인 동생과 술라임으로 놀 것이다. 그리
고 나는 우리인장날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국 수업을
할 때 밟고 숨운 것을 알리드리고. 선생
님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고 밟고
싶은 선물을 집앞에서 밟는 것이다.

배유빈

(백사일기)의 일기	
날짜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한계
제목:	처음 모장을 간 날
글씨	
해가	조금 쌔
시기	시작
날씨	대체
지려고	금새
금새	아빠랑
행다.	엄마랑
좋았다.	나는
기고	여기
기고	는데
좋았다.	죽워서
기고	濡로 차를
기고	쓰고
기고	잘 았는
기고	기고에 라이드도
기고	탔다.
기고	구석을데 절
기고	잠을숙
기고	있을까?
기고	무생다.
기고	질끼
기고	방망
기고	쳤는대
기고	걸리
에	사람들도
에	만나고
에	있!
에	불빛이
에	재미
에	재미
에	였다.
낙	시대에
낙	황금색
낙	찌를
낙	담고
낙	아빠가
방법	알려주셨다.
방법	재밌다.
방법	손가락에
방법	줄을
방법	걸고
방법	형을
방법	빼고
방법	멀리
방법	던져야
한다.	돌었다
한다.	놓았다
한다.	만이해석
한다.	풀에
한다.	아
한다.	프지면
한다.	참았다.
한다.	그대
한다.	으연가로
한다.	걸리거
한다.	났았다.
한다.	근데 왜
한다.	안들리게
한다.	될려지자?
한다.	바
닥에	걸린거라고
닥에	했다.
닥에	어때때는
닥에	미역간
을것도	걸렸다.
을것도	나는
을것도	한아리를
을것도	못잡았고
아빠만	사마리
아빠만	잘았다.
아빠만	엄마는
보	집에서
보	오징어
보	다리다.
보	미니오징어다
보	옆에
아빠씨는	방구니에
아빠씨는	가득차있다.
아빠씨는	본리
왔다	죽워서
왔다	대충 주는데
왔다	온 오기로
왔다	하고
진으로	왔다.
진으로	빨리
진으로	다음주가
진으로	왔을
진으로	것이!



제 18회 교내 글쓰기 대회	선승아
번: 헨리	학년: 3학년 학교 이름: Benjamin Franklin
한국 이름: 선승아	영어 이름: Seungah
미국에 거주한 연수(월수): 1년	미국 입국 연도(선택): 2019
제목: 우리에게 감동을 준 이순신 장군	
<p>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려 주겠습니다.</p> <p>이순신 장군은 옛날부터 전장 놀이를 좋아했습니다.</p> <p>또한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에 굽사가 되어 이순신의 벽쪽을 지켜 하여 벽을 지키고 개구쟁이들을 잡아오라고 하면 개구쟁이들을 잡아 오고 해가요.</p> <p>전쟁 놀이를 좋아한 이순신은 머물이 되고 화살 쏘기 시험에 가서 열심히 학습 쓰기 시험을 보고 말하고 시험도 했어요. 말하면서 활을 던지기에서는 뛰어지고 또 뛰어 젓지마 포기하지 않았지요.</p> <p>그래서 수군이 되었지요.</p> <p>수군은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에요.</p> <p>그리고 나서 거북이를 대려와서 이 거북이를 보고 거북선을 만들었지요.</p> <p>거북선은 머리 모양이 용 모양이고 배의 뒤를 거북이 등으로 만들어 군사들을 보호하고 등에 가시가 박혀 이어서 적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 했다.</p> <p>그러나 갑자기 일본이 조선을 빼앗으려고 조선을 공격하기만 이순신이 싸워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이끌었지만 왜 한산도 대첩이냐면 한반도 바다에서 싸웠기 때문이다.</p> <p>하지만 명량 해첩을 지나 노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 전사하고 말았다.</p> <p>그리고 이순신이 전사한 뒤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 이순신이 전사하고 조선은 대승리를 얻었고 7년 후에 전쟁이 끝나는데 조선은 일본 침략 때문에 망가져야 했지.</p>	

(아예 인)의 일기

제 16회 교내 글쓰기 대회
선승자
한국 이름: 헨리
영어 이름: Benjamin Franklin
한국 이름: 선강아
영어 이름: Seungah
미국에 거주한 연수(월数): 3
미국 일국 연도(설정): 2019

제목: 우리에게 감동을 준 이순신 장군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려 주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옛날부터 전쟁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에 군사가 되어 이순신에
벽쪽을 지켜 하면 벽을 지키고 개구쟁이들을 잡아서
라고 하면 개구쟁이들을 잡아 오고 해서요.
전쟁 놀이를 좋아하는 이순신은 어려이 되고 화살 쏘기
시험에 가서 열심히 화살 쏘기 시험을 보고 말하기
시험도 했어요. 말하면서 활을 던지기에서는 떨어지고
또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수군이 되었지요.
수군은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예요.

그리고 나서 거북이를 대려와서 이 거북이를 보고 거북선을 만들었지요. 거북선은 머리 모양이 용 모양이고 배의 위를 거북이 등으로 만들어 군사들을 보호하고 등에 가시가 빠져 있어서 적이 향수로 올라오지 못 했다. 그러나 갑자기 일본이 조선을 빼앗았을려고 조선을 공격했지만 이순신이 싸워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이끌었지만 왜 한산도 대첩이냐면 한반도 바다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랑 해첩을 지나 노량대첩에서 이순신 전군 전사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순신이 전사한 뒤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 이순신이 전사하고 조선은 대승리를 얻었고 7년 후에 전쟁이 끝나는데 조선은 일본 칙령 때문에 땅가 저어있었어.

오선재

제작 : 노도의 블로그

혹시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들어 봐
어? 그섬의 이름은 둑도야! 둑도에는 보물이 많아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무결지. 그런데
한국의 오래된 지도를 보니까 둑도는 한국의 것
이라고 나와 있었지. 그런데 왜 일본 사람
들은 둑도를 그렇게 원했을까? 내가 아까
말한대로 둑도 보물은 가스야. 그런데 이 가스는
지구로 오염하지 않고 쓸수 있지. 그리고 둑도에
있는 양은 200년 동안 쓸 수 있어. 또 둑
도에는 찬 바다하고 따뜻한 바다가 겹쳐서
아주 많은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그리고 웨
래는 바다 표범도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잡아가서 이제 볼 수가 없어. 너무 슬프지?
그래도 다른 동물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패리를 하고
둘도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거의 향상
둘도에는 사람들이 많을 걸! 이제 둑도의 보물들을
알게이?

이규현

날짜	2018	년 2월 29일	날씨	맑음	흐름	비, 눈, 안개
제목:	이글루 만들기					
<p>책상에는 눈 덩어리를 만들고 기다렸다. 딱딱해 절을 때 구멍을 패다. 2월 걸 렸다. 그다음에는 작은 테이블을 입구에 놓고 눈으로 덮었다. 또 다음 날에는 구멍을 더 크게 만들었다. 봄이 야외에서 뛸 수 있게 되었다. 신기했다. 몇 일 동안 계속 고쳤다. 나중에는 무너졌고 이제는 는 눈 덩어리만 남았다.</p>						

조성주)의 일기
날짜	2021년 2월 16일 목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제목:	눈이 왔을 때
<p>눈이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썰매.</p> <p>우리 동네에 가파른 언덕이 있는데, 눈이 올 때마다 거리를 가, 거기 도착을 하면 바로 올라가기 시작한 데, 올라가며, 숨을~ 바로 내려간다. 오래 들으면 알 타보사 조금 배웠다 실수로 채보하니 길을 떠들기는 했 지만, 하도 많이 그 길로 가서 그 길도 만들어졌다. 네 명이서 타 기도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잘 안갔다 그때 집에 돌아가야 했다. 돌아갈 는 엄마를 끌어야 됐다. 나보다 50 더 많을 엄마였다. 그 고통을 думал었다. 두 번 다시는 하기 싫지만 물 겨울이 또 돼고 눈이 오면 엄마가 끌어달라고 부탁을 할 거 같은 느낌 았다.</p>	

최민서		의 일기
날짜	2021년 4월 27일	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제목: 아프리카 초초 올림픽		
<p>자, 이제 아프리카에서 초초 올림픽 대회가 열립니다! 선수들은 자랑 놓이 아니래 바로 도장을입니다!!</p> <p>제가 소개해 줄게요. 그가 긴 크리 리는 하위를 향하고, 힘이 쇠 잡마는 악도 경기에서 100% 넘는 무게를 것을 번쩍 드는 거예요. 밤이 빠른 타조, 치타, 사자, 호랑이 선수들이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는데, 타조가 무서워서 앤나운스 있어요. 머리가 길은 고릴라는 으노경기 에 나갈거고, 눈이 좋고 가만히 앉아서는 뛰어겠는 총보는 경기에 나갈 거예요.</p> <p>마지막으로 팔 힘이 좋아서 잘 때 날리는 일송이는 짤방 경기애 나갈 거고, 리듬체조는 플라멩고 선수가 나갈 거예요! 이제 출시장 하나가 부터 으세우!</p>		
부모님(선생님) 의견: 자~~~ 시작! 으르르		



사랑

이소은

(이소은)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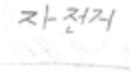
날짜	2021년 3월 4일 목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	-----------------	----	------------------

제목: 유관순 언니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유관순 언니에게,

한글학교에서 언니에 대해서 배웠어요.
언니는 독립운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태국기를 나누어주는 용감한 행동을
했어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어서 고마워요.
언니 때문에 나도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날짜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제목:	사마아무 바다 놀러 가기					
그림으로 나와보세요.						
1.    						
2.			 피크닉 풀   			
수영장						
오늘 새미아무에 갔다 왔어요.						
사일 풍선 안 있었어요. 새미아무의 도착 해를 되, 책을 읽고 짐을 트롤리 카트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방에 가서 밥을 먹고 수영 옷을 입었어요. 그런 다음에 수영장 에 갔어요. 내가 재일 좋아했던 거는, 수영장이랑 자전거를 타는 것이였어요. 이모랑 엄마랑 한 피크닉도 재미있었어 요. 다음에 새미아무 다시 가고 싶어요.						
부모님(선생님) 의견: 						

3rd – 5th Grade • 만들레 MinDlelle

3rd – 5th Grade • 민들레 MinDlelle

교내 글쓰기대회 집현전상 수상

배우빈

제 18회 교내 글쓰기 대회
번호: 민들레 학년: 3 학교 이름: Creekside Elementary
한국 이름: 배우빈 영어 이름: Yu-bin Bae
미국에 거주한 연수(평균): 3.5 미국 학국 연도(선택):

제목: 나비 박사 석주명
우리나라 위인 중, 저처럼 동물과 자연을 좋아하고 과학을 사랑했던 석주명 박사님에 대해 소개 학교입니다. 평안에서 태어난 석주명은 어린 시절 아주 개구작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보보다 동물들을 좋아했습니다. 동물들을 좋아하는 석주명은 비둘기를 기르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동물들을 관찰하니 궁금한 것이 많았거든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늘 놀았어요. 하지만 학교는 성적을 받았는데 꼬찌였어요. 그 이후로 책만 읽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본에 간 석주명은 화장에서 생물을 공부했어요. 석주명은 커서 나비 박사가 되어 우리나라의 나비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1950년, 전쟁이 났을 때도 연구실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 석주명은 흥에 말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석주명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동물을 사랑하고 우주를 열심히 공부해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와 자연에 신비를 알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주하



이소은



즐거운 음악시간

말하기 대회 장려상 수상

지구 지킴이

3학년 민들레반 최민서



안녕하세요 벨뷰 통합 한국학교 3학년 최 민 서 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집 밖에 나가려면 답답한 마스크를 껴야 하고, 지난 3월 이후로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났어요. 이렇게 불편하고 외로운 세상이 왜 온 걸까요?

바로 환경오염이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병들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우리의 편의함만 생각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죠? 지금 같은 상황도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전 지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았어요.

첫째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엄마를 도와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엔 물건이 정~말 많았어요. 더이상 쓰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들을 모으니 산처럼 쌓였어요. 세일해서 사고, 필요할 것 같아 사고... 여러분!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사람들은 큰 고민 없이 물건을 사고 버리기를 반복해요. 이런 우리의 습관 때문에 지구가 점점 병들고 있어요.

둘째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거예요. 바다에는 한국보다도 훨씬 큰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해요. 작은 플라스틱들 때문에 바닷새나 물고기, 거북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포장이 과한 물건은 사지 않고, 재활용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이첼 카슨과 같이 세상을 푸르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레이첼은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저도 제 소중한 친구이자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미래의 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가 환경오염이 없고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지 않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저를 “지구 지킴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구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로윈데이

나의 꿈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민들레 반 서주하입니다

3학년 민들레반 서주하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나요?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꿈을 하나만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저의 꿈은 화가, 가수, 뮤지컬 배우, 수의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그림에 재능이 있는 거 같기도 하구요.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집에는 제가 수없이 스케치하고 연습한 것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이 참 재미 있어요.

두 번째로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음악은 늘 저를 설레이게 해요. 엄마가 바이올리ニ스트이신데 엄마의 영향으로 일찍이 악기를 배우고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된 것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악기 연습하는 건 힘들 때가 많지만 노래 부르는 건 정말 즐겁고 재미 있었어요. 동생과 같이 노래를 만들고 harmony를 넣어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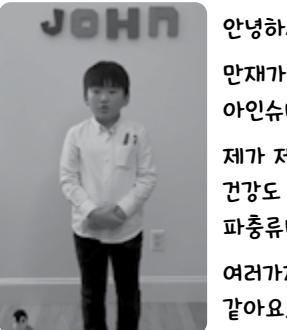
또 다른 저의 꿈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예요. 영화와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재미 있었던 장면을 보게 되면 따라해보고 싶어져요. 특히 어렸을 때 뉴욕에서 본 뮤지컬 Lion King은 영화보다 더 생동감 있고 재미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와 춤, 연기를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뮤지컬이 너무 매력적인 거 같아요. 인상깊었던 대사를 따라해보고 노래를 부르고 표정 연습도 해보며 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며 배우가 된 듯한 꿈을 꾸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동물을 많이 사랑해요. 저는 애완동물로 달팽이를 (이름: Cheeseburger)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도 키워보고 싶어요. 한국 TV 쇼 동물농장을 통해서 다양한 동물들의 성향과 특징을 배우게 됐고 벼려지고 아픈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수의사가 되어서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며 사랑과 관심으로 동물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무엇을 잘하고 재능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저의 다양한 관심과 흥미를 통해 꿈을 찾게 될 거라고 믿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경험과 노력을 하고 저 만의 색깔과 이야기가 있는 멋있는 화가, 가수, 뮤지컬 배우,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만재 수의사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민들레 반 김효준 이에요. 저의 꿈은 만재 수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3학년 민들레반 김효준

만재가 뭐냐고요? 만재란 천재보다 한수위 높다는 아래개그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의 세계에서 천재가 아인슈타인이라면 동물들의 세계에선 저, 김효준이 만재 수의사가 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펭귄 이에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에 펭귄들이 점점 지구에서 사라져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어요. 펭귄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건강하게 해 주고 싶어요. 물론 저도 파충류나 곤충류를 무서워하고 징그러워 하지만, 잘 극복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동물들을 많이 키워봐야 나중에 수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동물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을 키워보고 싶어서 유정란을 부화기에 3주간 앞뒤로 돌려가면서 부화시켜 보았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병아리들이 알을 스스로 깨고 나올 때 탄생의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그때 어느 병아리가 알을 못 깨고 있는 걸 봤어요. 황급히 아빠를 부르며 “아빠! 병아리가 나오기 힘든 가보! 도와줘야 될까?”라고 물었어요. 아빠가 짐개를 가지고 와서 알에 살살 구멍을 내줬어요. 그제서야 부리로 그 구멍을 쪼며 알을 깨고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 병아리들이 삐약 삐약 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 속에서 몸이 불편한 병아리가 다른 병아리들에게 밟히는 것을 보았어요. 먹이도 잘 못 먹고 잘 걷지도 못하는 병아리는 며칠 후에 결국 하늘나라로 가서 땅에 묻어주었어요. 그런걸 보면서 동물의 세계는 냉정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으로써 더욱 저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수의사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공부는 물론, 동물에 대한 지식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도 알고 있어요. 동물들과 교감을 하면서 정도 쌓고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싶어요. 동물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만재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멀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모두 건강해 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꼭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선화반

담임: 김선경
조교: 오지석, 이준아

강하은, 권세찬, 김강혁, 김무진, 김서율, 김예나,
박천희, 백상준, 유호선, 이지유, 정대산,
차유진, 최서희, 최현우, 혜주루스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인류가 평등하게 전염병과 싸우며 초유의 상황들을 견디고 살아내며 두려움과 불편함과 슬픔이 가득한 지난 한 해였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뜻 깊은 추억과 특별한 기억으로 남겠지요.

수선화반을 찬란하게 빛내 준 하은이, 세찬이, 강혁이, 무진이, 서울이, 예나, 천희, 상준이, 호선이, 지유, 대산이, 유진이, 서희, 현우, 혜주 그리고 든든히 밝쳐준 오지석, 이준아 조교와 함께라 가능했습니다.

2020-2021 수선화반의 찬란한 보배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rd - 5th Grade • 수선희 SooSunHwa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나는 Erin Hunter을 좋아해요. 예린 헌터의 책이 재미가 채팅 좋아하는 책이에요 예린 헌터는 11/4/1967에 태어났어요. 예린 헌터는 Warriors, Survivors, Seekers, 헌터, Brave Lands 을 만드셨어요. 저도 워리어스를 재미 좋아해요. 그 다음은 서바이버스로 좋아해요. 시커스는 조그만 이어서 모라요. 브래вл랜드는 학이어서 모라요 저는 예린 헌터의 책을 진짜 좋아해요. 워리어스하고 서바이버스가 재미있는 책들이에요.

A collage of three images. The top left image is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young person wearing headphones. The top right image is a close-up of a hand holding a white card with large Korean characters '한글' (Hangeul) printed on it. The bottom image is a blurred background image showing a person's face.

3rd - 5th Grade • 수선화 SooSunHwa

The image contains two main drawings. On the left, a child's drawing of a pearl oyster (珍珠贝) is shown with a large pearl inside. The word "Pearl" is written next to it. On the right, a boy's drawing shows a necklace made of pearls, with the word "Pearl" written above it. The background features a collage of various drawings related to pearls, including a camera, a person, and other sea-related sketches.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나는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고, 프로그래밍 키트에
도 가졌어요. 예전에 쓰던 키트는 컴퓨터는 디스
플레이터라고 뺐는데, 모니터도 있어서 컴퓨터
스크리어가 되게 되요. Pantha Book 책도
맞장기와 되게 재밌어서 일정보내요.

The image is a composite of several elements. At the top left is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person's face, heavily obscured by a mask that looks like a stylized version of the Jason Voorhees character from Friday the 13th. To the right of this is a smaller, rectangular video frame showing a young girl with dark hair sitting cross-legged on a carpeted floor, looking down at an open book she is holding. The background of the video frame shows a domestic interior with a white door and some furniture. Below these images is a large area of lined paper with handwritten Korean text. The text is written in cursive and appears to be a narrative or story. Some lines are more faded than others, suggesting they were written over time or are less prominent. The handwriting is fluid and personal.

유호선

날짜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날씨	맑음	크림 비, 눈, 한계
제작	1-3학년				
그림으로 다각화 봄 풍경					
					
					
<p>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 숭배 같아 공을 잘 구려 갔어요. 예쁜 수선화 놀아서 재진도 적어어요. 나래나워 놀아요. 새들도 보았어요. 떠나란 바위에 올라, 갔어요. 재미 있었어요. 며칠 놀아온 스쿠터 타고 놀았어요. 동원 선착장 제주 즐거워요. 할머니는 힘들어 하면서 꽃피지를 해드려어요.</p>					
<p>부록: (안성복) 화보</p>					

♥ Sunkyun Joy Kim

☞ Sunkyun Joy Kim 호선이는 [COVID-19 때문에 친구들을 학교에서 놀 빼서 습피요. 하지만 나는 늦게 일어나니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점심도 집에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 친구들을 보자는 못하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밖에 나갈때는 마스크를 써야하는게 불편해요. 잘 적으려고 위치가 빨리 기억나요! 19세 어울리지며 축전여요! 헌서에 절약 잘 써요~. 친화 여필관 잘 부인에 세증고 주제에 암만개 것처럼 작鄜습니다. 서생님 쓰것 잘 읽

이지유
자유
use to: 11월 21 글쓰기

오늘은 내가 Thanksgiving에
당첨되거나, Thanksgiving은
당첨되었는 음식을 찾았던 시간
입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 음식은 터키,
감자, 그리고 파이.

그레도 당첨되었는 음식
도모자마 내 가족은 끝도 계획
을 도모자마 저녁도 당첨되었는데
내 가족은 계획을 만들었는데 좋았어.

Covid-19 이 시작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수업도 컴퓨터로 하고, 선생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고, 침
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Covid-19으로 많은 것을 엔슬로 할 수 있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자전거 타고 시내도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나에게
Covid-19를 피하고 힘들지만 Covid-19 때문에 가족이랑 같이 있었어서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covid-19 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The image consists of two parts. The left part is a photograph of a student's drawing on a worksheet. The worksheet has a large box containing three Korean flags (Taegeukgi) and a large circle representing the sun. Below the flags are boxes for writing Korean characters. The right part is a photograph of a young boy with glasses, resting his head on his hand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백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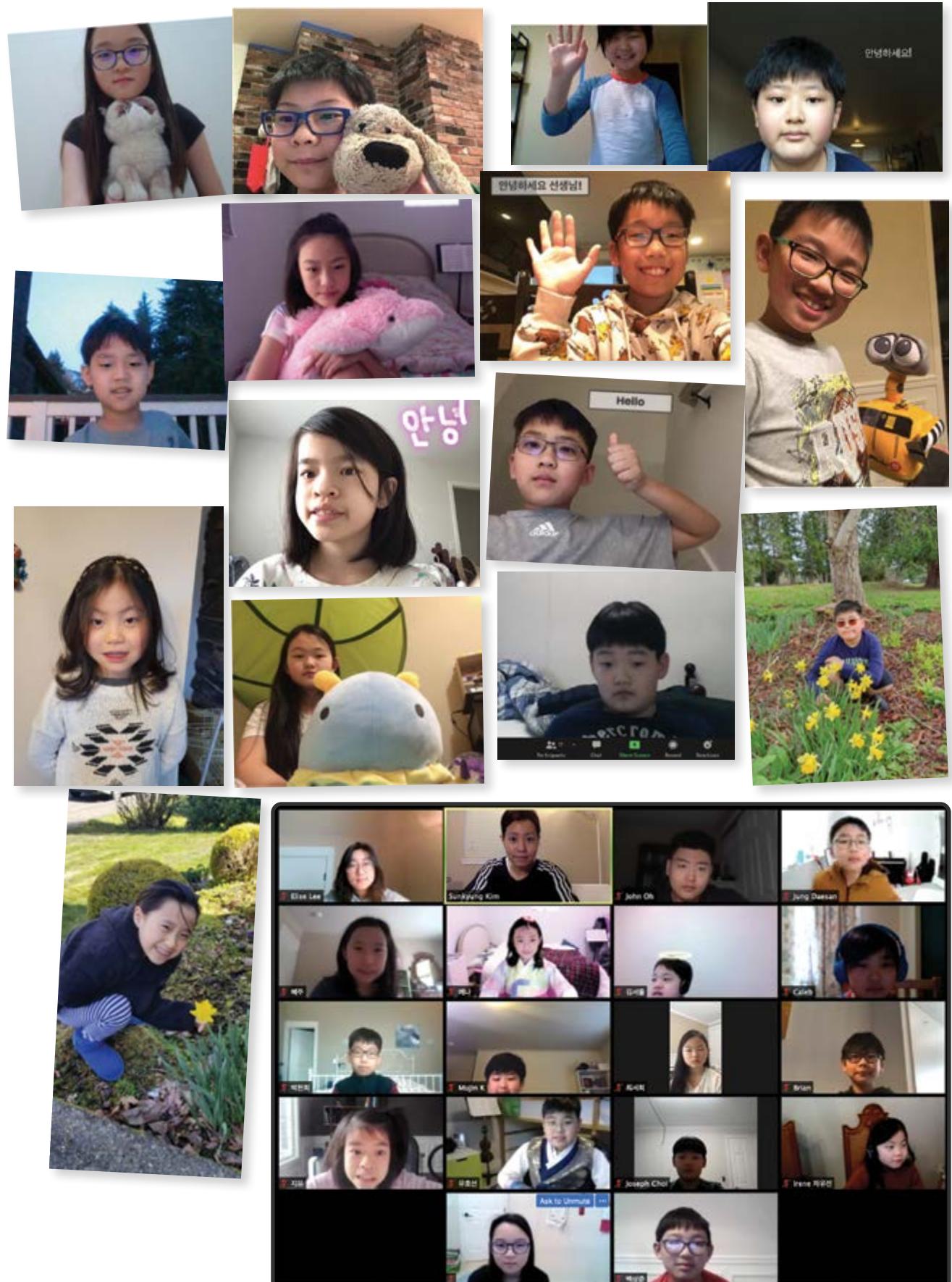
제목
그림으로 나라를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다.
우리는 신발을
우니는 산책을 했다.
내는 RC 차를
나는 RC 차를 가져갔다.
동생은 강아지랑
동생은 강아지랑 놀았다.
산책길에서 달리기도 했다.
내자동차는 돌멩이 길도 잘간다
내가 놀 때는 돌멩이
점프도 한다.
점프도 한다.
날씨가 좋아서 땀이 났다.
날씨가 좋아서 땀이 났다.

Junah Lee, Sunkyung Jey Kim
Sunkyung Jey Kim 대산이 한글이 할 만장하네요~!!

나는 안중근까지 시· 쓸 거에요. 안중근은 경당
이에요. 안중근은 한국에 외에서 사셨어요.
이분이 한국을 Rule 했어요. 한국 사람 이
팅드렸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 노골사랑
이었어요. 안중근이 이 squadron 안드러서
rebel 했어요. 안중근은 마총으로 미움에 부여
Kill 했어요. 안중근이 주겠어요.

P.S I did not wanna write about
this guy but I had to do someone.



3rd - 5th Grade • 수선화 SooSunHwa

3rd - 5th Grade • HaeDangHwa

해당화반

담임: 성은영
조교: 정우진, 윤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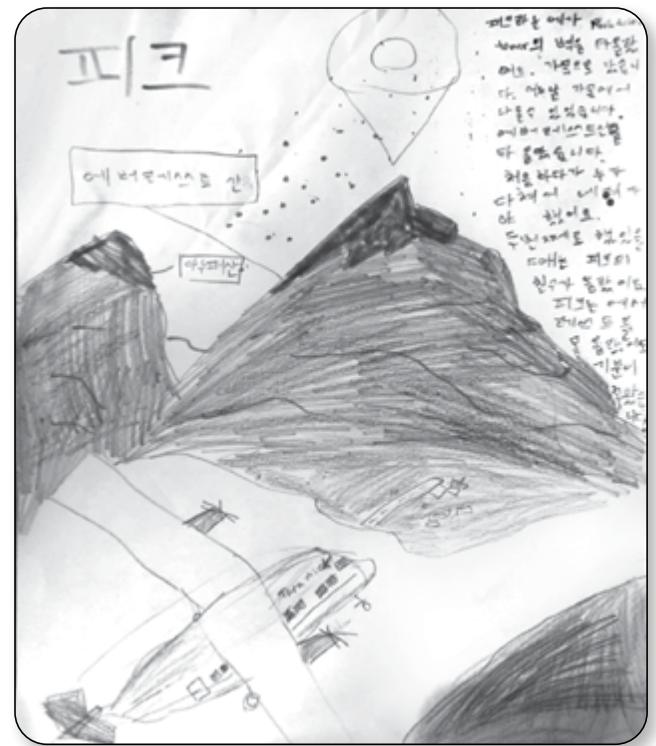
김도현, 김해율, 나유찬, 손세인, 엄희상, 윤서원,
이서희, 이지유, 이지후, 전서진,
정우진, 최엘라, 최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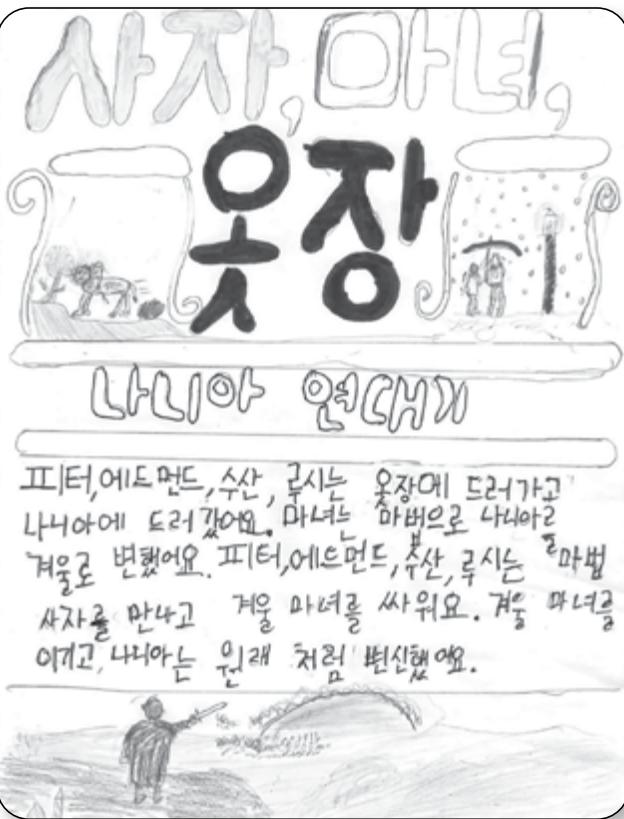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된 올해였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학습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해를 함께 한 특별한 한해 인 것 같습니다.
매 주 토요일마다 만나 소중한 한글 공부 여행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해당화
반에서 함께 모여 한글 공부하고 웃고 즐기며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해준 해당화반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화반 수업을 위해 열심히 도움을 주신 정우진, 윤채영
조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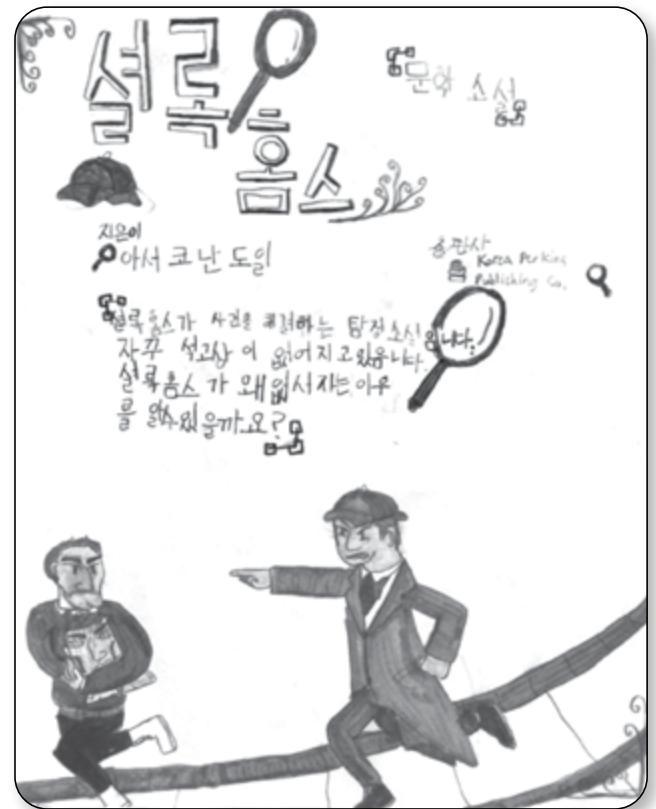
3rd - 5th Grade • 해당화 HaeDangHwa



김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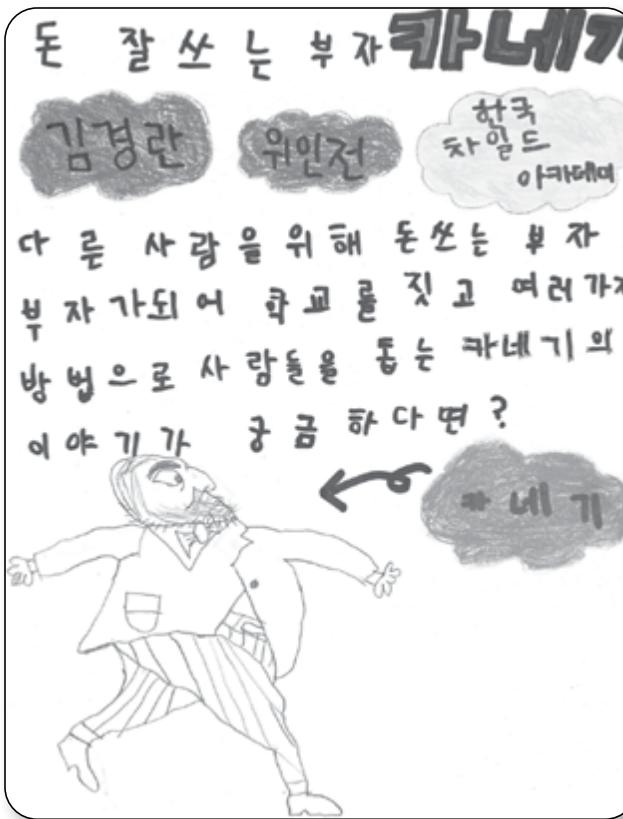
김해율



나유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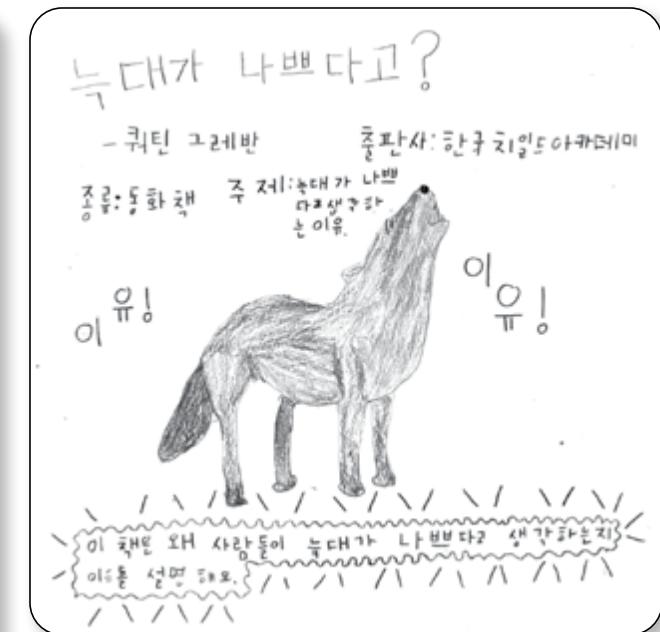
손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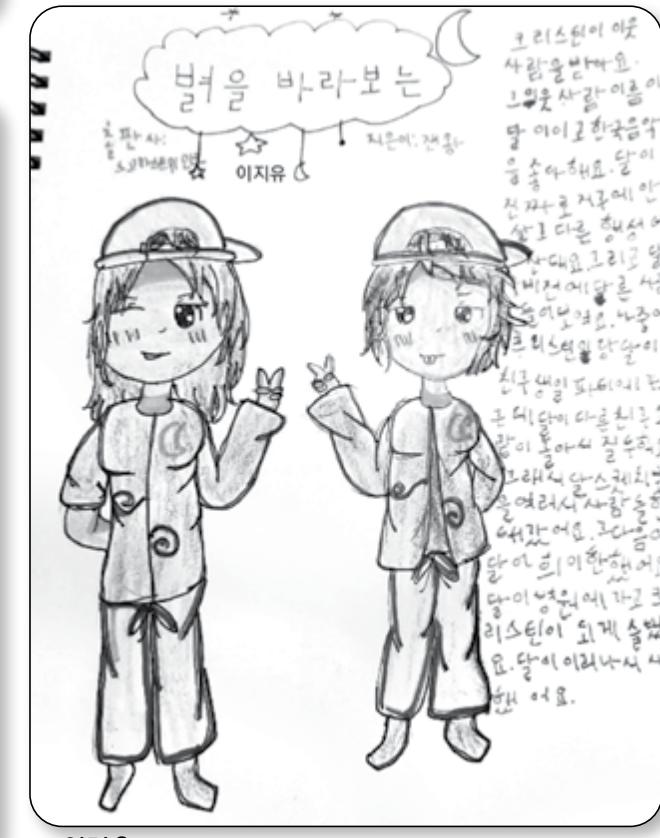
엄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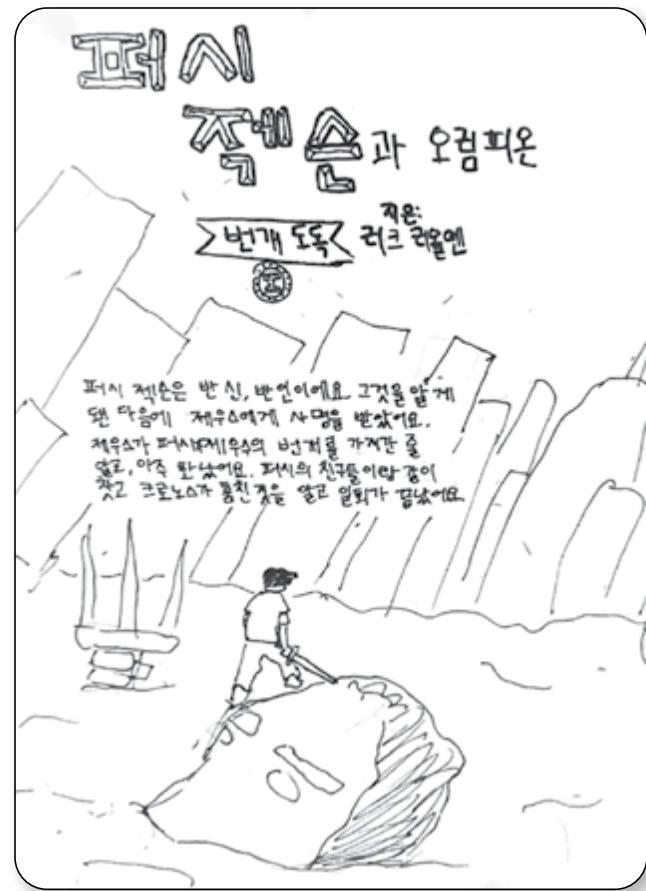
이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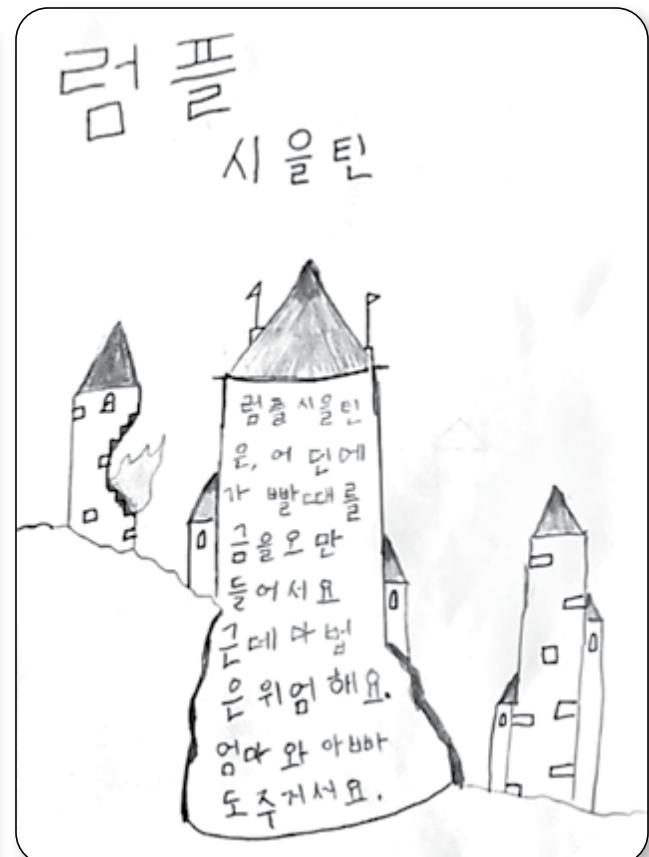
윤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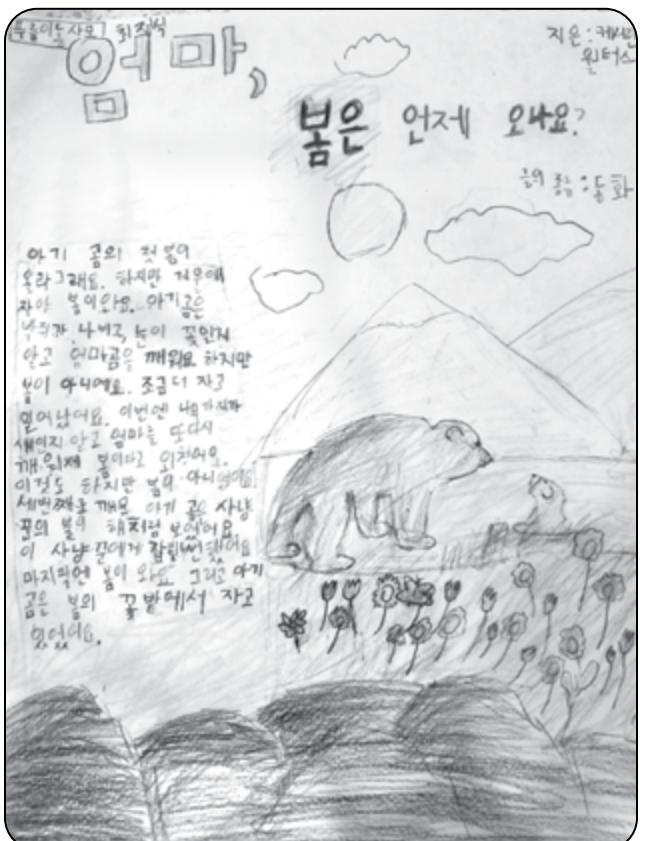
이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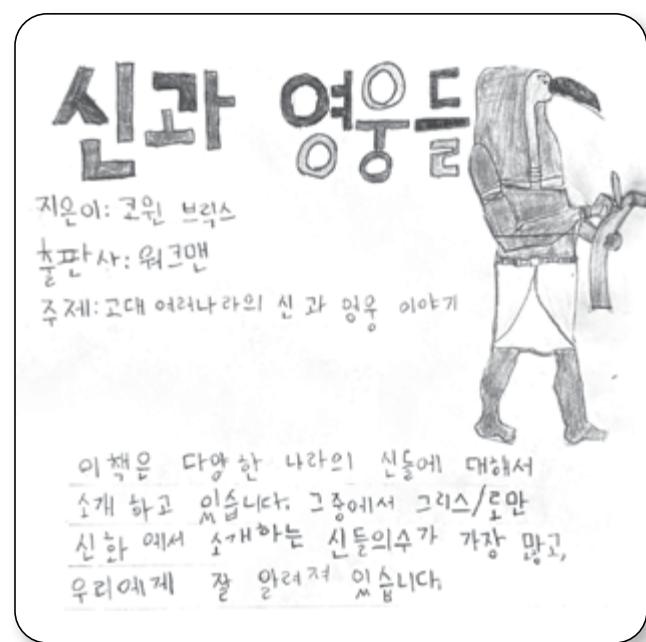
이지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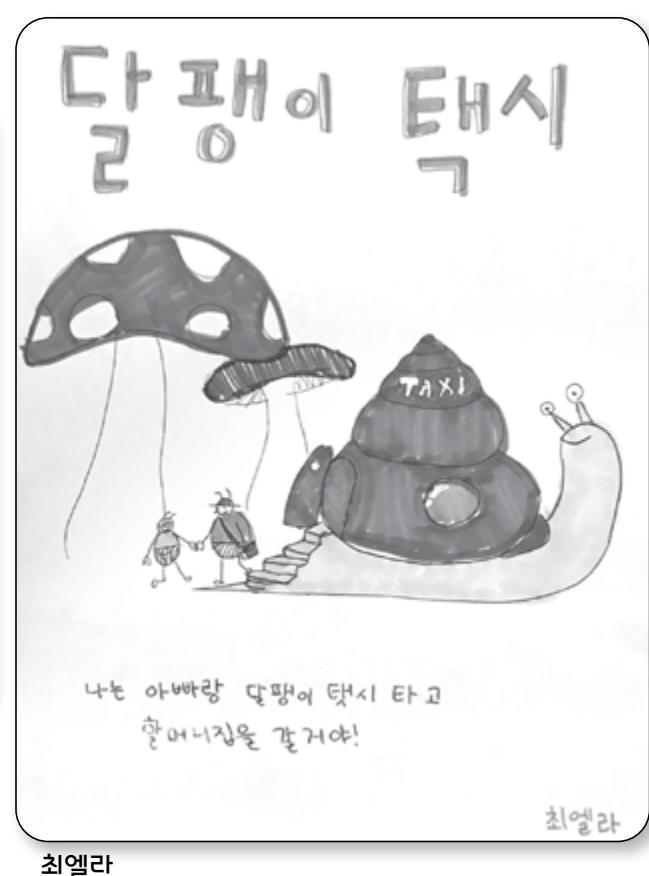
전서진



최정석



정우진



최엘라



글쓰기 대회 집현전상 수상

최정석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 역사나 문화
제 18회 교내 글쓰기 대회
한국 풍물 학교

번호: 해당화	학년: 5	학교 이름: 해당화 학교
한국 이름: 최 정석	영어 이름: Derrick Choi	
미국에 거주한 연수(월수): 미국 호세(10) 미국 일국 연도(선택):		

제목: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 역사
외국 친구야. 누가, 한글을 만들 거 같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세종대왕은 사람들을 하자들 어려워서 나
하자는 만들었어. 사람들은 하자 때문에 서로
편지를 쓰기 어렵고 땅을 맷는 까지 임대를 해야하는데 그것
같았지. 지금은 한글이지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고
불리여. 세종대왕은 주요한 한국에 위인들이 있어.
세종대왕 그리고 다른 구십구명이 백명에 우리 인들이
되었어. 백명에 위인들에서 한글을 지으면서 돌아간
사람이 많아서 슬퍼여. 요즘에도 한국을 발견
시키는 사람도 많아. 아제 외국의 역사를
조금 알려줄래? 그리고 한국 자랑스럽지?



말하기 대회 베금상 수상

지구를 떠나 우주로

4학년 해당화 반 윤서현

안녕하세요? 윤서현입니다. 저는 지금 인류 최초로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의 동료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어제는 물이 있었던 흔적도 찾았습니다.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30년 뒤 우주비행사가 된 저의 인터뷰를 미리 들으셨습니다. 네. 저의 꿈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고 싶습니다. 화성에 가서 다양한 실험도 하고, 우주의 끝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모두 지구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일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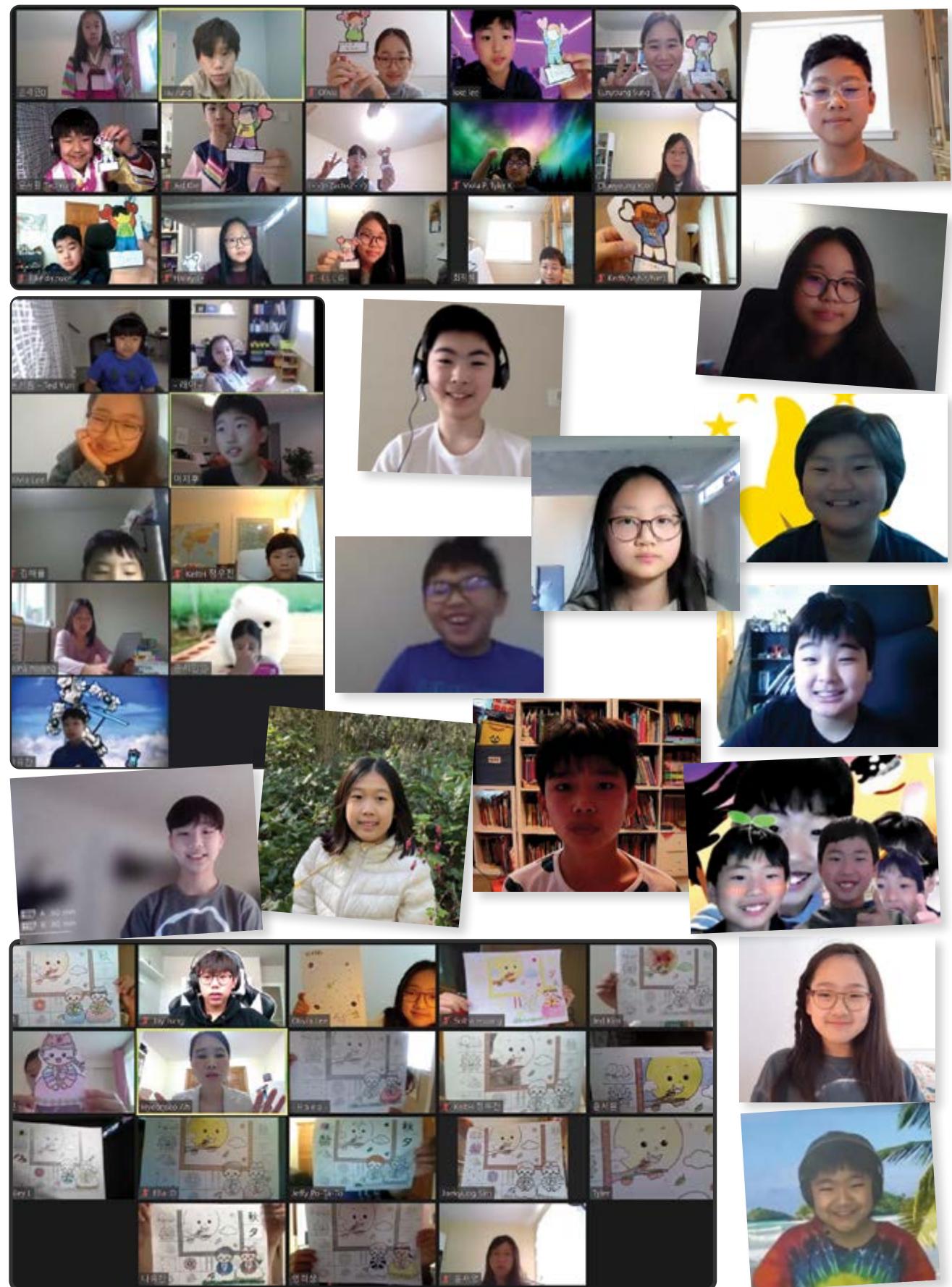
지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공해로 매일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놀다가 물병이나 플라스틱을 바닥에 버리죠. 이 플라스틱을 바다 동물이 먹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지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감당하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구를 찾아 나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화성에 가려는 이유는 화성이 새로운 지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많고, 지구처럼 햇빛도 있습니다. 나무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 성장하고 산소를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면 사람이나 동물이 화성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 싶어요.

또, 화성을 지나 더 먼 곳을 탐험하고 싶습니다. 우주의 끝에 도달하면 뭐가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주는 모양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 모양일까요?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고 흥미로운 모험이 될 것 같아요.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먼저 책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책에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대한 영상도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영상으로 본 내용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니까요. 책과 비디오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우주 박물관에도 많이 갈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설명해주시는 과학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성에서 인터뷰하고, 우리가 함께 화성에 갈 수 있는 날을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rd - 5th Grade • 해당화 HaeDangHwa

3rd - 5th Grade • NaPalKkot

나팔꽃반

담임: 김부연
조교: 김동현, 배지현

강윤호, 김시훈, 김은솔, 김주원, 박서현,
성다애, 손민호, 윤찬섭, 장민서, 정온유
조성우, 조현우, 최수혁, 최준

한 해 동안 ‘나팔꽃 반’ 친구들을 만나 매 수업 시간이 즐겁고, 보람됐습니다.
역사, 문화, 쉽지 않은 글쓰기 수업까지 최선을 다해준 나팔꽃 반 친구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나팔꽃 반 친구들이 보여 준 성실함과 열정은 저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할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과 과제 활동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신 학부모님들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큰 도움 준 동현, 지현 조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팔꽃 반 친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두 즐거운 여름 방학 보내세요!



3rd - 5th Grade • 나팔꽃 NaPalKkot

코로나가 바꾼 나의 2020

강은호

코로나가 세상에 처음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언제 밖신이 나올까요?
코로나가 처음 알려졌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주 많았어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고 엄청 위험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해서 내가 걸릴까 보니 걱정되기도
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평소보다 달라진 점이 있어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매일 같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요.

코로나가 있어서 나쁜 점은 밖에 다닐 때 꼭 마스크를
껴요. 가기운 낙고 운동장에 놀러 갈 때도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과
6피트 거리를 지켜요.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가거나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친구랑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그리워서 가끔
친구들과 재롱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가족들이랑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가족들이랑 더 가까워졌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을 더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에요. 학교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은 손을 깨끗이 햇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 돼요. 이렇게
코로나 예방 규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끝나면 멀리 여행을 하고
밖에서 자유롭게 놀고 싶고, 학교에 다니고 싶고 그리고 외식도 하러
가고 싶어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고기 사랑~♡

김은솔

저는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기예요.
하지만, 캠핑 가서 구워먹는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캠핑 갈 때는 화자 가기에는 재미가 없어요. 가족이랑 친구랑
같이가야 기분이 더 좋아요.

캠핑에서 먹는 음식은 불에서 구워먹어야 불맛이 나오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요? 고기가 최고에요. 스테이크가 노릇노릇 변할 때,
입에 넣으면 그부드러운 고기가 스르륵 녹아요.
역시, 바베큐에서 한 고기는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고기 얘기가 끝나면 배가 고프네요.
하지만, 고기는 그냥 먹을 수 없지요!
기침을 고기 위에 올리고 뱀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고...
심장에 찌어서 상추에 빙이랑 싸먹으면 더 맛있죠.

그런데, 사실 고기는 캠핑을 안 가도 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고기는 사랑이에요~

유관순 누나에게.

유관순 누나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본
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요.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
해 목숨을 걸고 푸기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셔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린 나이에 돌아
가셨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질문
이 있어요. 친구는 많아요? 친구가 있었으면 친구도 돌아
가세요? 이길문을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민호가

에너지자를 절약하자

우리가 쓰는 물과 전기를 아껴 써야 해요.
지구가 변하는 걸 느끼지 않나요? 우리가 막쓰
면 안 되는 거예요. 재활용도 하고 재사용도하고.
첫째, 물을 아껴요.

샤워할 때는 최대한 짧게 해 주세요.
이닭을 때나 손에 비누칠 할 때 물을 잠그
세요.

둘째, 전기를 아껴요.

안쓰는 방에는 불을 끄세요. 컴퓨터나 전기장
치를 안 쓸 때는 플러그를 뽑으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사먹지 말고 물병을 사용해서
물을 마시세요.

위에 있는 예를 실천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손민호

♡고기 사랑~♡

김은솔

저는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기예요.
하지만, 캠핑 가서 구워먹는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캠핑 갈 때는 화자 가기에는 재미가 없어요. 가족이랑 친구랑
같이가야 기분이 더 좋아요.

캠핑에서 먹는 음식은 불에서 구워먹어야 불맛이 나오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요? 고기가 최고에요. 스테이크가 노릇노릇 변할 때,
입에 넣으면 그부드러운 고기가 스르륵 녹아요.
역시, 바베큐에서 한 고기는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고기 얘기가 끝나면 배가 고프네요.
하지만, 고기는 그냥 먹을 수 없지요!
기침을 고기 위에 올리고 뱀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고...
심장에 찌어서 상추에 빙이랑 싸먹으면 더 맛있죠.

그런데, 사실 고기는 캠핑을 안 가도 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고기는 사랑이에요~

감은호

In response to: [수업 6-6] 백제금동대향로

백제금동대향로의 구조와 명칭



봉황 장식

산봉우리 뚜껑

연꽃 장식 몸체

용 받침

백제금동대향로

백제시대

향로: 향을 피우는 용도

1. 마법사들이 삶만한 물건 같아.

2. 아주 오래된 작품

3. 아름답고 섬세해요.

유관순 언나에게

안녕하세요 유관순 언나.

제 이름은 금정원입니다.

언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언나가 그에게 통감하게 통치권을 해서 정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언나가 아직 어린 나이에 큰 뜻을 갖고 통치권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을 무척 사랑해요.

저도 미국에 있어서 언나처럼 통감하고 쟁식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언나 고맙습니다.

주원이야.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김진원

우리는 에너지가 꼭 필요하고 우리의 생활은 에너지에 의존해야 해요.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 많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양치할 때 물을 아껴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꿀벌하지 않은 꿀은 개야 해요.

마지막 방법은 여행에 아주 멀지 않을 때는 낭방을 끄고 침샘을 열어 놓으세요.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후손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성다애 장래희망

성다애

제 장래희망을 알려드릴게요. 엄마처럼 한글학교

선생님에 도고 싶어요. 저희 엄마는 설날에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설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한번은 이런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엄마
반이었을 때 일이었어요. 저하고 친구들이
제 엄마 흥내를 냈어요. 화이트보드에
펜으로 쓰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 다시 안와도
된디.”
“우와! 감사합니다.”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시면 친구들이
귀를 활짝 열고 눈을 반짝 반짝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엄마 흥내를 내면서 동화책을 읽어요.

엄마처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도
걸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글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학교에 온다면

박서현

저는 애완동물과 함께 학교에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젖째, 물들이 있으면 너무 시끄럽고

수업에 지장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시험이 있을 때면
집중을 해야하는데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수업에 굉장히 방해가 될 것 같아요. 특히, 풀기 펑기
있을 때는 더욱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배려를 했을 때 저져볼하고 범례대로 만약에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예쁜 드레스를 입었는데
옷에 애완동물의 소변이나 대변이 물을 수 있고 또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여야 할 때도 애완동물들의
배변을 보고 밤새를 만개 된다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저는 애완동물이 학교에 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외국 친구들에게,
윤찬섭

갈비가 무언가지 맙아? 갈비는 아주 맛이
있는 고기야. 갈비는 식당에서 먹거나 집에서
먹을 수 있어. 그릴에 구워서 먹으면 불 맛이나.
나는 그게 좋아. 갈비는 아주 맛이 있는 양념
덕분에 훨씬 더 맛이 있어. 갈비는 소의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이야. 갈비는 아주
부드러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갈비는 다른 고기보다 더 맛이
있고 부드럽고 제일 좋은 고기인 것 같아.
갈비를 끓여 할 수가 없어! 갈비를 소금에
작여서 먹으면 진짜로 너무 많이 맛이 있어.
내가 갈비가 맛이 있다고 너무 많이
말하는 게 같아? 근데 맛이 있어서 말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갈비를 먹을 때
아무 소금을 쓰지 마! 퍽크 히말라야 소금에
작여 먹는 게 제일 좋아. 갈비를 어디에서
사야 제일 맛이 있는지 알아? 삼원 가든에서
사는 게 좋아. 비싸지만 거기에서 파는 갈비가
제일 맛이 있고 양념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소금도
같이 살 수 있어.
다른 갈비는 좀 질긴데, 삼원 가든 갈비는 와...
너무 부드러워! 너도 한 번은 먹어봐!
안녕!

○ 가수 누나에게,

누나에게 많든 것을 물어보셨어요. 왜 감자에서 계란
향으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도와줬어요?
아직도 살아 있었으면 한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죽는 것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면 다 대란 민족을 위해서 도와줘서 좋았어요?
지금은 살아온 거 않으니까 이전기로 고마운 마음을 써요.

장민서

○||너지

장민서

에너지를 예상 못한 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를 집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힘들게 살잖아도 돼요. 요리도 못하고 춤
계 때요. 그래서 에너지를 지켜주세요.

에너지를 아끼려면 먼저 뒤에 나갈 때 불을 끄고세요. 일제나
불을 고고 자세요. 재활용을 하세요! 꼭! 재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이 가격에 포함 안 돼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3.1 운동 전의 유관순 누나에게 보낸다.

유관순 누나에게,

조금 있으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누나 학교에 와서, 그걸 알려줄 거야.
일본이 발견하면 안 돼.

조선을 구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

결국 조선이 일본을 탄출할 거야.

성우가

에너지로 절약하자

조성우

지구는 천천히 죽고 있다. 표경권이 살 때가
여기 아니고 있다. 요즘 기계도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로 절약하기 위해서 물은 아끼게 산다. 물을
안 살 때는 물을 끄고, 샤워를 멈춰 리친다.

드디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재활용을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를 덜 쓴다. 안 쓰는 컴퓨터 코드는
꺼내, 끌고 간다.

이렇게 물을 아끼고 쓰고, 전기를 아끼고 쓰고, 재활용을
하면, 우리의 지구를 구할 수 있다.



Pet Day

정온유

저는 애완동물이 학교에 오는 것을 동의해요.
그 이유들을 아래에 설명할 거예요.

첫째, 애완동물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이
더 잘돼요. 특히, 새로운 친구들은 애완동물을 통해 새
친구를 만들수있어요.

둘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학생들을 더 안정감이 있게
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낮춰주고
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개나 고양이의 털을
만지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방산되면서 큰 도움을 줘요.

다, 애완동물 알러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애완동물
방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애완동물을
자기가 관리하고 시험 기간에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규칙을 만들어요.

이런 이유들로 저는 애완동물이 학교에 오는 것을 동의해요.

In response to: [5-5] 주장하는 글 1	
O	Pet Day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Opinion	<p>저는 애완 동물과 함께 학교에 가는 것에 동의해요. 또는,</p> <p>저는 애완 동물과 함께 학교에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p>
R	<p>제가 반려동물은 그리고,</p> <p>사고</p> <p>제가 반려동물은 그리고,</p> <p>알러지</p>
E	<p>실제 있었던 일, 생길 것 같은 일, 들은 이야기, 책에서 찾은 이야기 등을 드세요.</p> <p>온갖 이유가 제일 적이 있어어요! 아니면 친구가 실수로 그 동물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p>
Example	한글학교에 알러지 있는 친구가 있어요.
O	<p>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애완 동물이 학교에 오는 것에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p>
Opinion	부연 (나팔꽃) 열거리 찌끼를 아주 잘했네요!! 맛진 걸 기대할게요!! 😊

유관순 열사에게,

목숨 걸고 대한독립을 위해 싸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르고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당신
덕분에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고, 모두 당신을
줄곧 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돌아가신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저라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한 바디 조차 못 외쳤을
텐데, 그런 면에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에
애정도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또다시 이런 일이 닥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낼 테니까, 거장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우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

나라 친구에게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가르쳐
줄 때는 무엇을 가르쳐 줄지 먼저 생각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끌려야 한다면 이순신 장군님을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위인이기도 하지만, 가르쳐 줄 것도 많아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순신 장군이 내린 명령들은 수도 없이 많았죠.
그중에 세가지의 키워드만 알려 주자면, 유성포, 거북선,
그리고 명량해에요. 첫번째로 유성포는 이순신과 같은 시대,
약 400년 전에 사용이에요. 그 당시 궁궐은 자가를 기회
전역 싸움을 하느라 바빴죠 일본에서는 호시타타미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걸 말에도 모르고요. 그러다
그것을 유성포로 발견하고 양날터에 일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써우라 바비바 아무도 유성포의 말을 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순신은 그 말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왜군이 체들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느 1592년
5월 14일, 이 순신이 생각한 대로 부산 앞바다에 왜군
배가 수십이 몰려 왔어요. 마음을 놓고 있던 군인과 백성들은
깜짝 놀라 도망을 가다가 왜군의 조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임금과 신하들은 북쪽으로 계속 도망쳤지요. 하지만 만일의
준비를 하고 있던 이순신과 부하들은 왜군의 화살을 막기 시작했
어요. 그 와중에 왜군에서는 한동은 배가 침몰 했고,
전사한 자도 많아 그 때문에 왜군은 크게 패했지요.

두번째 키워드인 거북선은 거북이와 육, 그리고 고슴도치의
모암을 합친겁니다. 때의 모양을 갖춘 배예요. 안에서는 유흥을
테워 적을 기관사건과 등에 가지를 꽂아 적이 몇 몰라
오게 했어요. 왜군은 육지에서는 거의 항상 승리의길을
걸었지만, 바다에서는 희망이 실낱 같았어요. 거북선은
이순신이 늑장을 쓰고 원균이 대신 나갔을 때 편복선과
같이 침몰했지만 역사적인 바뀐 것은 틀림없어요.

세번째 키워드인 명량은 육지와 진도라는 섬 사이의
물살이 선물을 한자로 토익한 글이에요. 이순신이 열세척의
배로 왜군을 물리친 그곳이에요. 물살이 너무 세 반대쪽으로 가지
않하고 뒤에 예쁜 배 때문에 조선의 배가 저렸다고 들었어요.
왜군은 당황했지만 간격이 너무 좁아 활을 했지요. 그때 살상술을
놓어온 데 왜군이 깜짝 못하게 만들었지요 한술을 더 데
풀의 흐름이 바뀌자 왜군의 배는 서로 엉겼고, 그 틈을 타
조선의 배는 왜군의 배와 충돌하면서 왜군의 배를 많이
부셨지요. 이순신은 들행하는 이들을 쳐는 노랑 대형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지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죽을 때까지 묵향
물을 보여주었지요.

이때 이순신 장군님이 없었다면 어떤 일을 했겠죠? 아마도
한국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역사가 뒤 바뀌었을 거예요.
이전 이유로 저는 이순신 장군님을 외국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유관순 누나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용기로 내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하기 힘든 일이었죠.

누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아직 독립을 못했을지도 몰랐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만세를 불렀나요?

우리가 누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일절 행사를 택기도 만들었어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죽어간 사람의 안타깝습니다.

최준 드림

우리 아빠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아빠는 골프를 좋아합니다.
아빠의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Holiday는 추석입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PE입니다.
아빠가 요즘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은 오토바이입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동물농장입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Forrest Gump입니다.
아빠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TV는 뉴스입니다.

글쓰기 대회 집현전상 수상

자랑스런 위인들

5학년 나팔꽃반 성다애

위인들은 매일 있습니다. 실제로는 못 보지만 어디든지 계십니다. 옛날 위인들과 지금 위인들은 대부분 군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든지 말든지 나라를 잃는게 더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고른 3명의 위인들을 소개할게요.

첫번째로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제가 그 분을 고른 이유는 용기와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어느날 일본이 나라를 빼앗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못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극기들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려고 밤마다 방에 숨어서 만들었습니다. 태극기를 다 만들자 3월 1일에 장터에 모여서 다같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었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희망을 얻어 ‘대한민국 만세’를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어서 고마워요.

두번째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신하들을 잘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릴 때부터 장군이 되는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될 수 있게 훈련 받을 수 있는데에 갔습니다. 말을 타서 화살을 맞는 곳에 쏘아야지 합격이 될 수 있었어요. 활을 쏘다가 말에서 떨어져 한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합격은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순신, 최고!” 시험이 끝나고 나뭇가지로 부러진 다리는 봉대처럼 감았습니다. 또 다시 시험을 봤는데 너무 느려서 합격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나아서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했어요. 그 순간부터 너무 행복했지요. 많은 전쟁을 이겨서 신하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쟁에 총알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지 전에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아무 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 이후, 신하들은 더 많은 용기를 받았습니다. 대단해요. 이순신 장군!

세번째로 신사임당을 소개할게요. 그 분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그림을 그려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떤 여인의 옷에 음식이 묻었습니다.

“어머나, 이걸 얼마나 먹었는데!” 신사임당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그리고 포도를 그렸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그림에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들을 낳아 이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커서 신사임당처럼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 두 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지금 우리가 쓰는 5천원은 이이, 그리고 5만원은 신사임당입니다. 저도 커서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유관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이순신 장군! 마지막으로 아주 아름다운 아들과 그림을 잘 그리는 신사임당. 이렇게 모두 다 위대해요!

박서현
In response to: [2-6] 일기쓰기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온통 땅에 있었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10 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텃마당에서 미니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 집에
갔다. 그리고 이글루와 거대한
눈사람을 만들고 벌매 타려 갔는데 재미
있었어요! 그래서 넷트 데이에 가서
친구와 놀았습니다. 3일 만에 모든
눈이 녹았고 그 3일은 제가 2021년에
보낸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 김부연 (나팔꽃) 서현이가 눈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아주





**제17회
교내 글쓰기 대회
세종대왕상 수상**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 역사나 문화**

한국의 보물, 훈민정음

5학년 나팔꽃반 조현우

한국 음식, K-pop, 금동 대향로 등의 한국 문화는 모두 아주 중요하고 전 세계가 존경할 만한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역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제일 자랑스럽고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한다.

일단 훈민정음을 다른 외국 사람한테 소개해 주자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가 쉬운 글씨가 훈민정음이라는 것이다. 내가 학교로 한글 책을 가져가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그 책을 헐끗 보고서, “우와, 되게 복잡해 보인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배우기 되게 쉽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다. 24개 밖에 안되는 글자로 만들어진 아주 간단한 문자라고 말이다.

나는 배우기 쉽다는 것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한 소리를 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것도 적은 글자 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이 완벽한 문자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영어로 따지면 글로 쓸 수 있는 소리가 너무 한정돼 있고 법칙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쓰기 어렵다.

반면에 한글은 생각할 필요 없이 아무 소리나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것이 쓰기 편하고 유용한 한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여러 번 일본한테 뺏길 뻔 했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지킨 한글을 여러 나라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세종대왕을 뿌듯하게 하고 싶다.

**Seattle & Bellevue Korean Books & Stories
www.sbskbs.org**

조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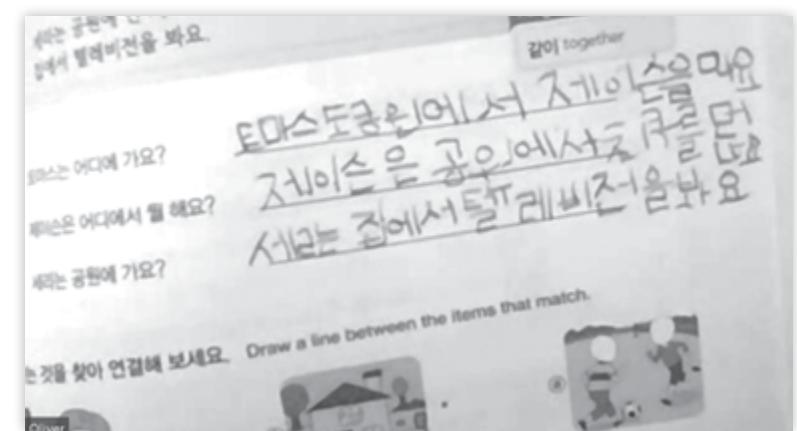


매화반

담당: 박영희

김지환, 천유진

컴퓨터 화면으로 인사하고
컴퓨터 화면에 글자를 쓰고
컴퓨터 화면으로 생각을 나누며 배워온 1년이지만,
어느 다른 해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것을 배우고 깨우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올 한 해의 다져진
의지와 투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얼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Name: 지 혼수

- 저는 세라예요.
- 코난은 학생이에요.
- 토미는 저예요.
- 엄마는 선생님이에요.
- .동생은 하나예요.

ㅏ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ㅑ	야	야	야	야	야	야	야
ㅓ	어	어	어	어	어	어	어
ㅕ	여	여	여	여	여	여	여
ㅗ	오	오	오	오	오	오	오
ㅛ	요	요	요	요	요	요	요
ㅜ	우	우	우	우	우	우	우
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ㅡ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ㅣ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게 뭐예요?

- A: 이게 뭐예요?
- B: 사과예요.
- A: 사과예요?
- B: 네 사과예요.
- A: 오렌지 아니에요?
- B: 아니요. 오렌지가 아니에요.
- A: 아니요, 사과가 아니에요. 오렌지예요.
- B: 아니요. 오렌지가 아니에요. 사과예요.



난초반

담임: 정동순
조교: 최태림, 양준철, 이정연

데이비드, 준호, 가람, 이안, 마야, 그리고 해나!

안녕하세요?

지난해부터 우리는 Covid-19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줌(Zoom)을 통해 만나서 공부했습니다. 해나, 마야, 데이비드, 준호, 가람, 이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우리 친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학년에는 다시 교실에서 만나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난초반은 토요일 수업과 더불어 수요일에도 토크타임과 숙제 도움 시간으로 수요일 4시에 한 시간 더 공부했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최태림, 양준철, 이정연 조교 선생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앞으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난초반

이름: 마야

그림 그리기

날짜: 4월 3일 20요일

글로 써 보세요.

학교 가면 책 있고, 책상 있고,
가방 있고, 연필 있고, 지우개 있고,
점퍼 있고,

난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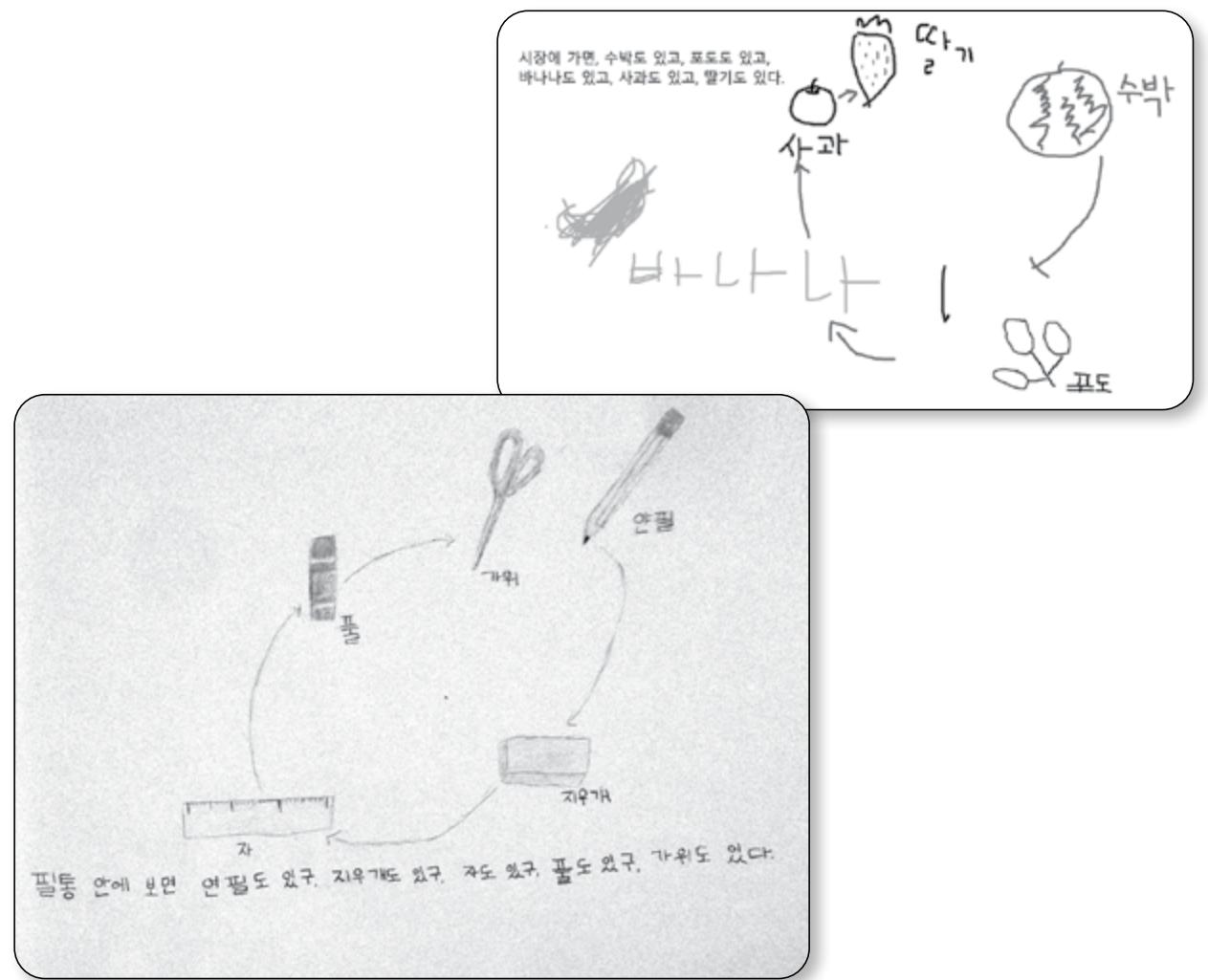
이름: 공준호

날짜: 3월 26일 금요일 요일

글로 써 보세요.

H마트에 가면
바나나도 있고,
김치도 있고, 달
기도 있고, 사과
도 있고, 오이도
있따





참나무반

담임: 장지연
조교: 장원우, 김동연, 장진우

강한별, 김민, 김민우, 김준, 로빈슨 러쓸, 민애바, 양시린, 유소이,
이진주, 임원상, 장준우, 정구현, 정채린, 최서린, 한수희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한 해를 지내고 나서야 이런 일들이 “우리 미래의 일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일생동안 잊지 못할 일들이 있었던 2020-2021년 학년을 우리 참나무 학생들은 무던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주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신 부모님들과 김동연, 장원우, 장진우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열심히 따라와준 학생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멋지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자라날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김민

이름: 강한별 음식 이름: 순두부 날짜: 4/17/2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순두부이에요

순두부 재료는: 순두부, 김치, 대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고추가루, 마늘, 창기름, 명자국물, 김자물, 소금, 후추, 파, 그리고 계란.

1. 김치랑 고기를 잘 썰어 주세요. 그다음, 김치, 고추장, 고기, 창기름, 마늘을 중불에 작은 냄비에 넣으세요.
2. 다음, 물 아니면 면치물 그리고 끓는 물도 안에 넣어 김치 물도 안에 넣어 주세요.
3. 순두부랑 소금을 앉애 네주세요. 후추랑 파 꿀 네주구, 계란을 네주세요. 저는 순두부를 진짜 좋아해요!

이름: 김민 음식 이름: 순두부 날짜: 4월 18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순두부입니다.

순두부 재료는 두부, 고춧가루, 후춧가루, 야채, 쇠고기, 김치, 마늘, 창기름입니다.

먼저, 떡배기 그릇에 쇠고기, 김치, 육수를 넣고 끓여줍니다.

맛있게 끓고 있던데, 마늘, 고춧가루, 후춧가루, 두부를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다 끓으면 창기름을 조금 넣고, 필요하면 달걀을 넣어도 됩니다.

매콤하고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매콤한 순두부찌개를 많이 좋아합니다.



이름: 김민우 음식 이름: 김치찌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재료는 김치, 돼지고기, 양파, 파, 고추가루, 두부, 하고 버섯입니다.

냄비에 물과 고기를 넣고 끓여줘요...

김치, 아채도 같이 넣고 끓여요.

마지막으로 파와 두부를 넣고 끓인다.
김치찌개에 밥을 넣고 먹는것을 좋아해요.

이름: 미애바

음식 이름: Speaking Practices & Make sentences

사람이 되려면 둥굴에서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을 살아야 합니다.

To be human, live with only garlic & mugwort for 100 days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 환웅님을 찾아갔습니다.

Tiger & bear both wanted to be human.

한 주일, 두 주일이 지났을 때,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굴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After a week or 2, tiger couldn't take it, and went out of the den

마늘과 쑥은 너무 맛이 없어서 호랑이는 도망가고 살았지만 참았습니다.

Garlic and mugwort was so gross that tiger wanted to run away but bear was patient.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삼칠달이 되면 날, 굽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어져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When the 100th day passed, something shines golden on the bear.

용네라고 이름을 지은 곰 아기씨는 환웅님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 우리 나라를 세우신 단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The bear endured the 100 days patiently.

곰이 아는 Dangun & bear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는 테스트, 만화 등, 매니저, 여행, 즐거운 시간을 즐깁니다. 지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경영입니다.

이름: 김준 음식 이름: 삼계탕 4월 14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삼계탕

닭, 통마늘, 육수, 찹쌀, 파, 인삼

먼저 닭을 씻어요

그다음에 통마늘, 육수, 찹쌀, 파, 인삼, 찹쌀, 파,

마지막으로 육수를 끓고 45분 끓여요

이름: 앙시린

음식 이름: 미역국

참나무반

미역국! 재료는 건미역, 소고기, 참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후추, 맛술, 물, 가는 소금, 하고 까나리액젓. 1. 건미역 양에 물을 가득 부어 15-20분 정도 풀려줍니다. 2. 소고기에 맛술, 참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후추 약간을 넣어 걸면의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3. 불려둔 미역은 찬물로 한두번 헝겊주고 체에 발쳐 물기를 제거해요. 4. 볶아둔 소고기와 함께 불린 미역도 코팅 하듯 한 번 더 볶아주세요. 5. 물을 넣고 뚜껑을 비스듬히 닫아 둔 채 끓여요. 6. 10분 정도 끓여내다가 소금과 액젓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7. 간을 맞추고 10분 이상 더 끓여주세요. 집에 만들어는 미역국이 정말 맛있어요!

이름: 유소이

음식 이름: 제육볶음

날짜: 4월 14일

제 음식은 제육볶음입니다.

제육볶을 재료는 돼지고기, 고추장, 양파,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설탕입니다.

돼지고기와 양파를 썰어주세요.

고추장,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설탕으로 양념을 해주세요.

프라이팬에 볶아주세요. 제육볶음은 조금 맵지만 정말 맛이 있어요.

이름: 리슬 로빈슨

음식 이름: 갈비 날짜: 4월 17일

갈비를 좋아해요

갈비, 마늘, 배, 파, 양파, 설탕, 후추, 간장, 참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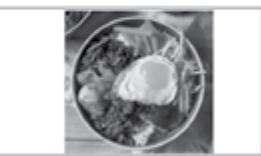
갈비를 구워요.

이진주 비빔밥 4/15 & 17/202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재료는 밥, 오이, 피망, 당근, 고추장, 시금치, 버섯, 계란, 불고기, 참기름 그리고 식용유입니다.



먼저 야채를 잘 쟈어주세요.
그 다음에 야채를 쟀어주세요.
그 다음에 식용유에 야채를 볶아주세요.
그리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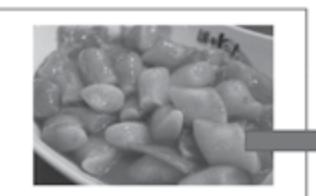
그리고 양념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양념 소스 재료는 고추장, 참기름, 꽈리 그리고 풀.

마지막으로 큰 그릇에 모든 재료를 섞는다.
소스하고 참기름을 원하는 만큼을 넣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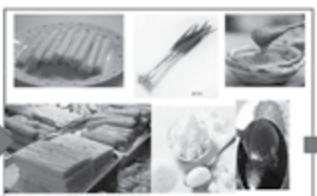
이름: 장준우

음식 이름: 떡볶이

날짜: 4월 21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재료는 떡, 파, 어묵,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간장입니다.



그린 다음 어묵과 떡을 요리하고 위에 소스를 추가하고 모두 함께 섞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저어 주면 완료됩니다. 떡볶이는 매콤하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이름: 한수희

음식 이름: 순두부찌개

날짜: 4월 20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순두부입니다.



순두부 재료는 두부, 김치, 마늘, 참기름, 고춧가루, 새우젓, 쇠고기, 파



고기, 마늘, 하고 김치 쟀어야요.
고기, 김치, 고춧가루(2작은 술), 마늘, 하고 참기름(1큰술) 넣세요. 다음에, 가열해요.



4분간 볶아요. 다음에, 물 넣세요. 4분간 데쳐요.



다음에, 두부를 넣세요.
새우젓 (1/4작은 술) 섞어야요.
후추가루하고 파 넣세요.
마지막으로, 5분간 데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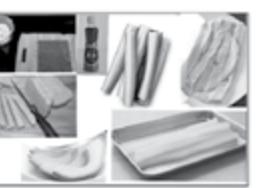
이름: [Type here] 음식 이름: 채리 날짜: 4/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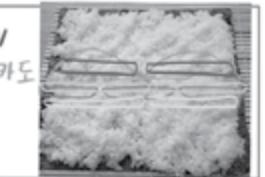
제 음식은 김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입니다.



김밥 재료는 계란, 아보카도, 햄, 배, 참기름, 김입니다.



해, 아보카도, 오이, 계란, 단무지를 썬어주세요.



밥을 김위에 펴쳐 놓아주세요.
그다음에 재료를 김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을 싸주세요.
첫째로, 참기름을 김밥 위에 뿌려주세요. 김밥을 썰어주세요.



즐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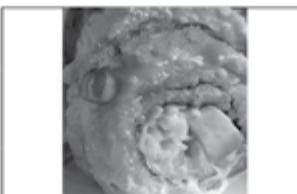
이름: 정구현

음식 이름: 라이온 킹 스시 롤

날짜: 4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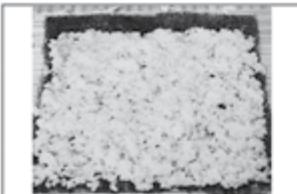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라이온 킹 스시 롤입니다.



스시 롤 재료는 연어, 매콤한 마요네즈, 큐피 마요네즈, 장어 소스, 마사고, 파, 아보카도, 오이, 계란, 햄, 식초, 생강입니다.



재료들을 썰어주세요.



김에 쌀을 퍼 바릅니다.



미요네즈, 오이, 계란, 아보카도를 위에 올립니다. 모두 말아요.



큐피 마요네즈와 장어 소스를 함께 섞고 흰 멸치에 올립니다. 흰 멸치 위에 올려주세요. 파를 위에 올려주세요.

학교에 가요]



이름: 최서린 음식 이름: 김밥 날짜:



최서린

열넷 살 Fourteen years old
제 생일은 일월 십삼 일에요.
My birthday is January 13.

PHONE NUMBER:
425-246-
사 이 오-미사 윤-

SCAVENGER HUNT: 집에서 "맛"을 찾기!

그룹 4: 수희/준/구현

치즈는 짜요.

사과는 달아요.

래몬은 써요.

하트사스는 매워요.

물은 싱거워요.

자몽은 써요.



말하기 대회 장려상 수상

야구 선수

6학년 참나무 반 장준우



안녕하세요? 저는 커클랜드에 사는 11살 장준우입니다. 커클랜드 중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오늘 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큰형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둘째 형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할까요?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야구선수가 꿈입니다.

저는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야구가 정말 싫었어요. 전 야구공을 맞추지도 못 했고요, 공을 던지지도 못하고, 땅볼을 잡지도 못하고 게다가 달리기도 정말 못 했어요. 그래서 야구 연습이 싫었습니다.

일년이 지나고 나니 공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날아오는 공도 잘 치게되고 또 땅볼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 야구가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경기에서 제가 잘 할 때, 그리고 우리 팀이 이겼을 때 기분이 너~ 무 좋았어요. 3루에서 1루로 길~게 송구해서 상대 선수를 아웃 시켰을 때는 정말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배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기분이요.

그래서 저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우리 둘째 형은 한국 외할머니댁에 갔을 때 대전 리틀 야구단 선수들이랑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를 들었어요. 형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저녁 9시까지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달리기를 시작으로 던지기 연습, 타격 연습, 땅볼 연습을 일주일에 6번이나요!

엄마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야구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제게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일주일에 2-3번? 타격 연습도 하고 땅볼 연습도 하고 하면 돼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형의 경험을 듣고 나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11살 반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아직도 제가 7살이라고 놀립니다. 전 형처럼 키가 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살이라서 아직은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형의 경험을 잘 듣고, 형과 함께 매일 연습하면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전 아직 11살이니까요.

고맙습니다!





Middle & High School • SoNaMoo

소나무반

담임: 이윤진
조교: 김지용, 장윤서, 조예린

강은애, 권아인, 권예주, 김율, 김태운, 대프니 토르탑, 시카이 앙, 아현서, 이슬비, 이유빈, 임지은, 정온우, 션스 골렉

어떻게 한 해를 보냈나 싶어요.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이 때에 토요일마다 열심히 한글학교 수업에 참가한 우리 소나무반 학생들에게 아주 많은 칭찬과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결석도 하지 않고 꾸준히 출석하는 학생들이 어찌나 대견한지...
우리 소나무반 친구들은 6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구성원도 다양한데 잘 연합하여 지냈습니다.
함께 대면수업을 하면 더 신나게 재미있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에는 진짜로 얼굴보고 한 공간에서 같이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장르의 한국 노래와 다양한 게임으로, 생활 한국어를 배우고, 발표력을 늘리고, 표현법을 익히고, 문화를 접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열심히 함께 따라와 준 소나무반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함께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부모님께도 찬사를 표합니다.



한국 여행 : 내가 가고 싶은 곳, 가 보았던 곳 강은애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2010년 한국에 갔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 역사 덕분에 한국과 한국문화에 관심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주 갈 수 없기 때문에

가면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한국을 여행간다면 서울,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에 가고 싶습니다. 비행기로 여행할 것이고 1달 동안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싶은거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한국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 갈겁니다. 서울에는 맛있는 한식 식당들 가고 싶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호떡 같은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강남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3살 생일 파티는 강남구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가족과 친구들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남산 타워를 가서 밤 별빛을 (오염이 없고 하늘이 맑으면 하하) 보고 싶습니다. 사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렸기 때문에 기억 나지 않습니다. 서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갈겁니다. 꽃이 엄청 아름답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궁화와 동백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예쁜 꽃들입니다! 제주도에 협재해변도 가고 싶습니다. 협재해변이 크다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가서 물을 보고 싶습니다. 해변은 진짜 조용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만 다녀도 좋을 겁니다. 제주도 한라봉나무에서 진짜 한라봉을 먹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볼거리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에 주문진으로 갈 겁니다. 이 곳에는 우리 할머니께서 사시던 고향이기에 우리 가족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거기서 또한 돌아가셨기에 추억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문진에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우리 할머니께서 자라셨고 감자를 재배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도 계십니다 (현재 농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낯설어도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정말 특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위해 강원도를 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갈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완전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 제 가족 역사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냥 기다립니다. 한국을 공부하고 상상합니다. 한국은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나라이고, 저한테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까지 꿈을 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만들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랜드 캐년에 다녀와서 권아인

저는 작년 여름에 엄마 아빠와 그랜드캐년을 다녀왔어요. 차로 3일 걸려서 갔어요. 아이디호주의 Twin Falls에 들려서 하루 자고, 다음 날은拉斯베가스에 가서 잤어요. 그 다음날에 그랜드캐년에 도착했어요.

코비드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랜드캐년 캠핑장에는 우리 식구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좋았지만 밤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제일 생각나는 곳은 Bright Angel Trail이에요. 계곡을 내려가는 Trail인데 너무 더워서 기절할거 같았어요. 가는 길에 뱀도 보고, 출고 있는 산양도 보고 아빠보다 큰 엘크도 봤어요. 까마귀도 우리 동네에 있는 까마귀보다 훨씬 컸어요.

아래 사진은 마지막 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멋지죠? 어서 코비드가 없어지고 또 멋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세계 여행 대프니 토탑

저가 기억하는 첫 여행은 십년 전입니다. 이 전에 다른 여행도 했었는데, 기억이 안나요. 그 때는 아기였으니까. 다섯 살이었고, 워싱턴 디시에 가는데 너무 흥분이 되어 범새 깼었어요. 정말 재미 있었던 게 기억나요. 엄마 친구의 아내가 저를 위해 장갑하고 매니큐어를 사주셨어요. 장갑은 사 년 전에 잊어버렸는데, 매니큐어는 아직은 사용해요.

그때부터, 제가 세계 여행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많이 가 봤어요. 터키는 특히 잘 자주 가는 국가인데 열 네 번 갔어요. 터키에는 사원과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원이 야야 소피아 이예요. 터키는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수 보레기 이예요. 반죽을 끓여서 굽는 치즈 페이스트리예요.

여행 중에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동, 만두 등을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18 세가 되면 1 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고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그 때는 친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방문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곳의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여행 아현서

저는 한국 여행을 갈 때는 친척네 집이 제일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년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친척과 만나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친척과 만나면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면 용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가면,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맛있는 델리만주입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콩나물 국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와 아빠가 얘기하던 회 비빔면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저런 여려가지 해보고, 먹고 싶은 것이 많은 한국이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한국학교와 중국학교 차이점 시카이 양

한국어 학교는 문화와 전통 교육에 집중 하는 반면 중국어 학교는 언어 교육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 학교는 수업도 빠르고 수업 양도 아주 많이 따라 가야 하기에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매년 비슷한 주제 와 인물에 관해 반복해서 교육 하는 것은 언어 교육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좀 더 중점적으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여행

이슬비

한국 여행은 나의 ‘살면서 반드시 하고 싶은 항목’에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간다고 말했을 때 너무 신났어요. 비행기 타는 동안 음악 듣고 언니랑 카드 게임도 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거의 열 시간 걸려서 낮잠도 잤어요.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햇빛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늦어서 그냥 호텔에 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고기도 많이 먹고 길거리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덴뿌라도 먹고 떡볶이도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많이 걸어야 하겠지요? 길거리에서도 음식보다 옷도 있어요. 오른쪽 보도, 왼쪽 보도, 어딘가 보면 옷가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좋은 옷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옷을 너무 많이 사서 집에 다 가져 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2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미국집으로 다시 돌아 와야 했어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짧은 것 같았어요. 더 오래 동안 지내고 싶었어요. 미국 집에 돌아와서는 한국으로 또 갈 때를 기대합니다!

내가 가 보고 싶은 곳 그리고 가 본 곳

김태윤

우리 가족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먼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리우드 사인을 너무 보고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팬이메스 음식장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과 인사나누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 보았던 곳은 보라카이인데 우리 가족 즉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와 함께 갔어요. 나랑 언니는 좀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도 내가 많이 기억나고 아주 좋아했던 것은 수박 주스입니다. 너무 달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수영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것밖에 기억 안 나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

김율

저는 한국에서 너무 재미 있게 있었어요. 한국에 롯데 월드 가고 거기서 놀러 코스터 많이 탔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수영도 많이 했어요. 낚시도 많이 했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한국에 계신 삼촌이 개가 있었어 개랑도 놀았어요.

저는 온라인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다음에는 한국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 여행

이유빈

2년 전에 친구랑 한국에 있는 경주에 갔습니다. 경주는 역사 유적지입니다. 오래된 왕릉이 많이 있고, 주변 풍경과 어울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궁전이 많이 있고 밤에 야경이 너무 멋있었고 예쁜 카페도 많이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역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내가 가 본 나라들

챈스 골렉

저는 가족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 여행을 가보았어요. 제가 가 본 나라는 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한국입니다. 저는 모든 곳이 다 좋았어요.

태국은 날씨가 정말 더웠지만 방콕의 유명한 왕궁과 불교사원에도 가보고 재래시장에서 코코넛 아이스크림도 먹는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왕궁과 사원에서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 차림은 할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했어요. 곳곳에 세워진 화려한 탑들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우리 가족 모두 태국을 좋아해서 또 가고 싶어요.

일본에 갔을 때는 머물던 호텔이 아주 깨끗하고 전망이 좋아서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간 곳은 도쿄의 중심가였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음식들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도쿄에서도 사원에 갔었는데 태국에서 본 사원들과 많이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운세를 점칠 수 있었는데 저는 좋은 점괘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사원을 구경한 후에 규카츠를 먹게 되었는데 맛이 정말 좋아서요. 디지털 박물관으로 구경을 갔다가 전화기를 잃어버렸지만 다행히 찾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도쿄타워와 스카이트리에서 내려다본 도쿄 시내 전경은 아주 화려하고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날에 호텔 식당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게 되어서 즐거웠어요. 일본은 전반적으로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기억에 남아요.

한국은 제가 아기였을 때 가봤기 때문에 많은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의 엄마의 나라이고 저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또 가고 싶어요. 지금은 텔레비전으로나 인터넷으로만 한국을 경험할 수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진정이 되면 조만간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세계 여행 :

내가 가고 싶은 곳

정은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유럽입니다. 그 이유는 한번도 유럽을 못 가봐서 그런데, 특히 유럽중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을 가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를 가보고 싶고, 프랑스 음식 먹고 싶어요. 파리에서 에펠탑을 하고 멋있는 여려 곳을 가고 싶어요. 프랑스 음식은 정말 특이하게 보여서 먹고싶어요.

영국에서 가고싶은 곳은 런던하고 브라이튼입니다. 이 도시 두 곳에서 할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빅벤보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어요.



추석
임지은

추석은 한국 명절이에요. 올해 추석은 9월 30일, 10월 1일, 하고 10월 2일이에요. 올해 우리 COVID-19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는데, 일반적으로 친척들을 만나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춤을 춰요. 춤 이름이 “강강술래”이에요. 여자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춰요. 그리고 성묘가서 조상의 무덤을 청소해요. 조상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사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한국 사람은 조상한테 기도하면 풍년을 얻을 수 있고 믿어요.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고 좋은 명절이에요!



나의 온라인 수업 경험
권예주

온라인 학교는 어려웠지만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 있고 침대에서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밥을 버스시간 전에 먹기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스쿨버스 정거장까지 걸어 갈 필요가 없으며 비가 올 때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컴퓨터 와이파이 문제로 많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영향을 줍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에 와이파이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화면이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학교에서 얻는 사회적 교감을 얻지 못하고 매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 힘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스쿨은 꽤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곧 끝날 것이며 이것또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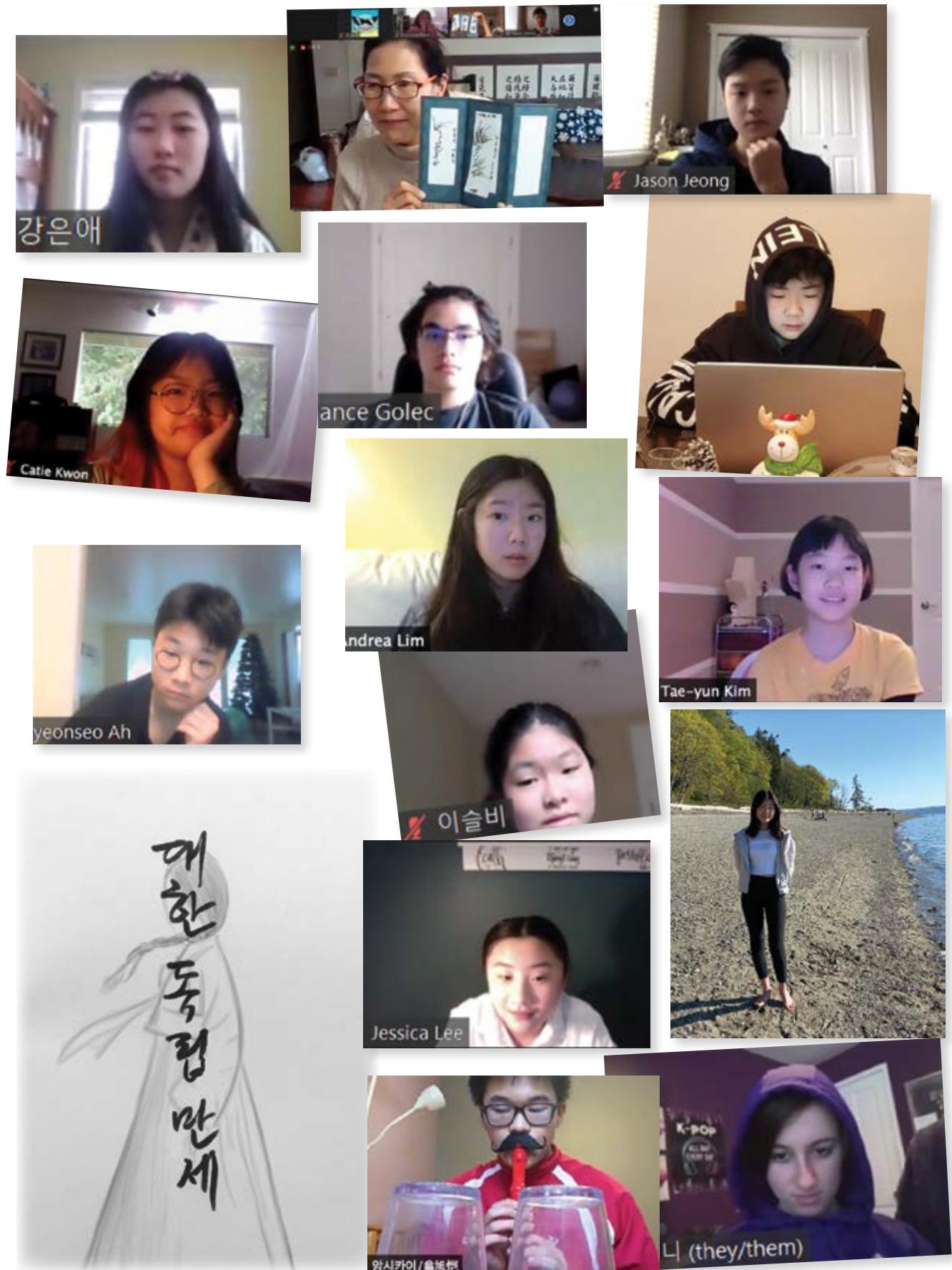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쓰기 대회 집현전상 수상

친구한테 김밥을 소개식인다!

소나무반 김미아(7학년)

제 친구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한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리켜 주고 싶어요. 김밥은 김과, 밥과, 야채만 놓으는 거여서 친구가 좋아 할 거 같아요. 저는 친구한테 가리켜줄 때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먼저 김을 식탁에 펴치고, 다음은 밥을 김 위에 놓고, 야채를 밥위에 놓습니다. 야채를 다 놓은 다음에 다 갖치 돌돌 말아서, 마지막으로 김밥은 잘으면 되요. 제 친구는 오이려 손재줄도 있고, 학교 단일 때 자기가 혼자 만든 밥도 갖고 와서, 잘 만들 거 같아요. 제 친구는 완전 미국사람처럼 생겼어요. 파란눈에, 금발머리입니다. 제 친구는 미국음식 말고, 다른 음식 요리를 잘 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라, 한국 음식을 배우는 거를 좋아할 것 같아요. 김밥은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과 간식이라서, 친구한테 소개를 하고 싶었읍니다. 저도 김밥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 친구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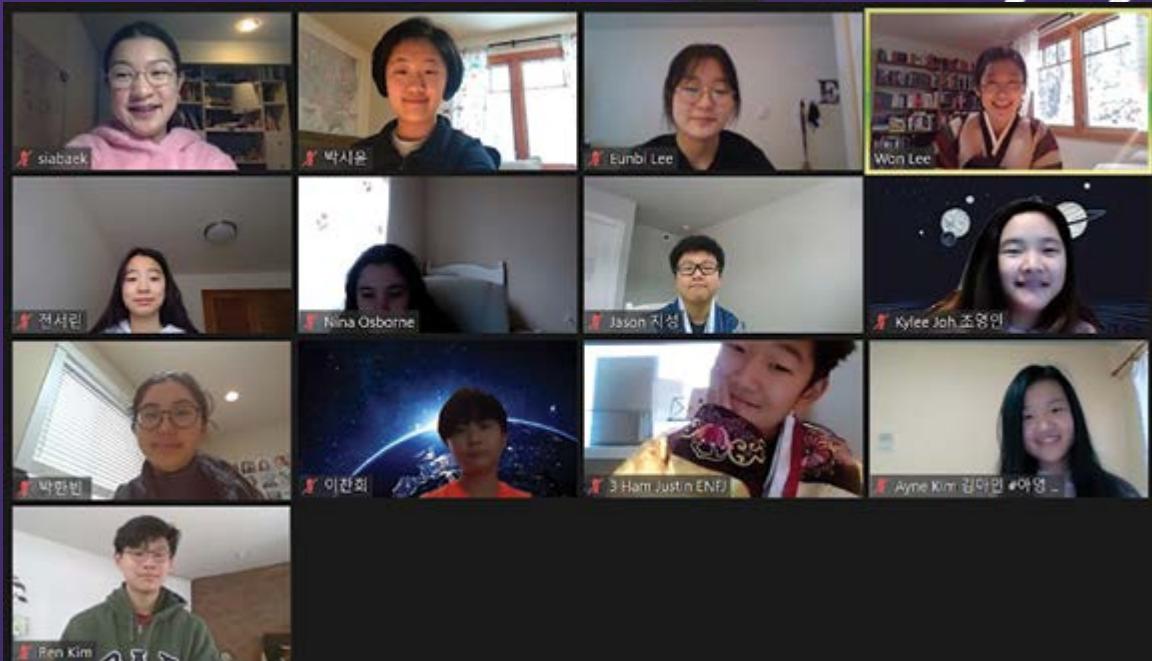


담임: 이원정
조교: 박시윤, 이은비

권지성, 김아인, 김태완, 박한빈, 백시아, 니나 오스본,
이찬희, 전서린, 조영인, 최재연, 함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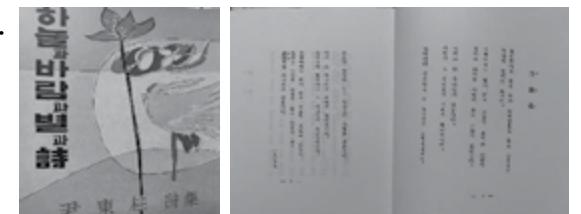
국화반

“
국화반 학생들이 이른 아침마다 정성 들여 심은 우리 말과 글의 씨앗들이
한 해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차곡차곡 기록되어 한아름의 빛이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담은 머리를 맞대고 따뜻한 두 손을 모아
함께 살아가는 역사 시간과 공간 속의 이치를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하며
국화반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국화반 학생들이 행복하게 날아올라 이 세상에 위한 빛과 힘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화반 학생들,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소중한 생각 함께 나누 조교들에게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지성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은 1948년에 출간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 책에는 자화상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윤동주는 산에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았어요. 그런데 한 사나이를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나이는 윤동주 같아요.) 그런데 그 사나이가 미워서 떠납니다. 그 후 윤동주 생각하니 그 사나이한테 불쌍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더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워가지고 다시 떠나요. 떠나던 사나이한테 그리워졌습니다. 윤동주가 다시 돌아왔어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때 한국에 와서 사촌에게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책을 받았습니다. 책 사진 찍었고 이 숙제에 붙였어요.



유관순열사에게.

안녕하세요. 어때신가요? 제가 열사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열사님 덕분에 삼일운동이 되고, 한국이 일본한테 자유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사님이 지구를 떠났는데 큰 유산이 있습니다.

권지성 드림

박한빈

나는 별들이 만들어진 모든 기억을 지켜본다고 생각한다. 나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며 별들은 여전히 지켜볼 것입니다.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며 별은 여전히 지켜볼 것입니다. 별은 우리를 지켜보고 빛과 아름다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의 날은 몇 월 몇 일인가요? -10월 25일.

독도에 살았던 동물: 강치[바다사자]



일본인은 우리 땅에서 인장을 가져와서 돈을 벌기 위해 모두 죽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멸종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물개를 서커스로 가져 가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이 인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우리 땅에 어떤 끔찍한 일을 했는지 결코 잊지 말아야합니다!

한글은 아주 재미 있고 배우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었던 더라면 한국어를 배워서 감사합니다. 한글은 매우 예쁘고 우아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면 새의 지저귐부터 아기가 우는 것까지 모든 것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니나 오스본

유지경성

그것은 성취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제 업적 중 일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에서 블랙 벨트를 받는 것입니다.

이회영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니나 오스본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와 주셔서 감사해요.

니나 오스본 올림

신서유기 스딸가

김아인

미묘한
용봉을 든 한 찬도병
뉴스 속에 있는 것은
아직은 대로 통하는 풍자입니다.
이모한이 대로 통하는 데는 아까운
시가 아득 나쁜 시입니다.



나죽에 신묘한에께서
전 재산을 희작지한
신내에서 친드릴을 추다가
용봉을 다시 날려버립니다.

스딸라는 소행성 C4130에 사는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부자 사막여우다. 소행성 B612의 어린 놈의 왕자랑
함께 한 나날을 보내다 지 악에 쓰러져 있는 미묘한(묘)을
치주성으로 간고 죽다. 미묘한은 깨어나서 고양이라고 시내를 차고
전 재산을 뺀다. 그래서 스딸라는 항상 무용한 표정을 짓고 있다.

거울은 꿈이 있어서요. 말하는 의사가 도고 철마도. 하지 말은
되라. 일개 화의 편도 허를 벼른 개화를 이죽여야지 의사가 도고는
이 그림은 꿈도 꿈에입니다.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경장률과 안동 지도예요. 180년에 만들었어요. 대동여지도는 보통 제850호 악예요. 지도는 대동의 지도는 제일 경북에 있는 대동 지도라고 해요. 지도는 253면입니다. 지도는 685cm 길고, 360cm 높이예요.

무과수첩

독립운동을 해적대 대로 고마워합니다. 1880년에 나온 도란가서에서
나온 독립운동 해적대 대로 고마워합니다. 1880년에 나온 도란가서에서
나온 독립운동 해적대 대로 고마워합니다! 대로 만족하세요!

이찬희

김태완

안녕하세요 안창호님.

김태완입니다. 저는 한글학교에서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는데, 조사를 할 때
안창호님이 이름을 배웠어요. 창호님이 미국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 더 좋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창호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오실 때, 일본 정부를 체포했어요. 체포에도
불구하고 항의 계속 하셨어요. 안창호님의 용기와 힘 덕분에 한국이 좋게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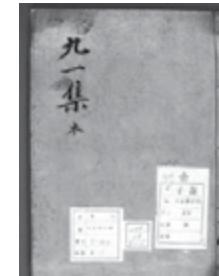
직지는 1337에 만들었어요. 직지의 내용은 불교입니다. 몇 년 동안 승려들은 인용구와 작은 글을
썼습니다. 책은 선에 본질적인 정보를 가르쳐요.

조선시대 수학자 중에 최석정이 있습니다. 최석정은 구수략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구수략 책에는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합이 369가 나오는 마방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수학자인
오일러의 발견보다 60년 이상 빠른 발견입니다.

대동여지도는 한국 지도입니다. 만든 사람은 김정호입니다. 김정호는 한국을 다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산과 강을 다 목재에 적어 놓았어요.

유방백세 流芳百世[흐를 류/꽃다을 방/일백 백/세상 세] 향기가 백대에 걸쳐 흐른다는
뜻이니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말로 流臭萬年 유취만년이
있다. 나쁜 냄새가 만년에까지 남겨진다는 말이니 더러운 이름이 오래 남는다는 뜻이다.

설에 입는 옷을 '설빔' 또는 '세장(歲粧)'이라고 한다. 한 해를
맞이하는 새날 아침에 고운 설빔을 입고 조상과 이웃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 설을
맞이하여 새로 장만하여 입거나 시는 옷, 신발 따위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꾸미다'라는 의미의 고어인 '빗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새로 장만한 옷'이라는
의미로 굳어진 거라고 합니다.



홍정하(洪正夏, 1684년~1727년)는 조선 시대의 수학자
조선 후기의 수학자. 1684~?. 방정식과 마방진 등을
연구했다. 그가 쓴 책인 구일집에는 파스칼의 삼각형,
복잡한 이항계수의 정리, 고차 방정식의 풀이 등이 쓰여
있다.



최재연

사물놀이 악기들: 팽과리, 장구, 북, 징

<https://blog.daum.net/mutismo/6165173>

개과천선: 의미: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여 마침내 이룩함을
이르는 말. 경험: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숙제를 미루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의욕이 없을 때라도 인내하고 열심히 해야 해요!

행불무득:

의미: 행동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의미

경험: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전서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에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어떤 마녀가 여자애를 할머니로 만든 다음에 그 여자애는 성을 찾아서
하울을 만나요. 하울도 마녀인데 새로 변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재미있었어요.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사랑해 한글을 만들었다.

금상첨화는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일어지는 것.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 제가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었는데, 저도
받았어요.

백시아

유관순 열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백시아입니다. 열사님께서 3.1 독립운동을 펼쳐 주셔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1제의 총과 칠 앞에 무서움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하신 것을 정말 대단한 일이십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고문도 심하게 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갑진 희생을 기리어 저도 나라를 위해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백시아-울림

과거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수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 격인 영의정까지 지낸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아주 체계적인 수학책으로 유명한 저서 '구수략(九數略)'에서 세계 최초로 9차 마방진을 만들었습니다.

18세기에 활동한 중인 출신 수학자 흥정하(洪正夏, 1684~?)는 중국 수학자 하국주(何國柱)와 만난 자리에서 서로 수학 실력을 겨루다 천원술(天元術)이라고 하는 고차방정식 문제를 내 중국 학자가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어 완승을 거두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의 수학은 생각보다 그 수준이 높았습니다. 일종의 주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판(算板)과 수를 세는 데 쓰는 막대기인 산가지만 갖고도 제곱근은 물론 10차 방정식의 해까지 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수학자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뺄셈과 나눗셈만으로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홍길주가 자신의 저서 '숙수님(孰遂念)'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린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풀이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독창적인 사고가 엿보입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만든 22첩으로 구성된 절첩식 지도이다. 즉,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을 만들고 동서로 80리 간격을 한판으로 했는데 두면이 한판으로 구성되어 각층의 판을 병풍식으로 접어 첨으로 만든 것이다. 지도의 앞부분에 방안크기가 수록되어 있어 대동여지도도 청구도처럼 매방 10리의 방안격자가 그려진 대형전도가 지도체작대의 기본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람의 편의를 위해 방안격자를 제거하였고 청구도 안달라지도 외곽의 눈금도 없다. 대신에 지도안에 그린 도로망에 10리마다 표시를 함으로써 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流芳百世의 뜻은 누가 좋은 일을 하면 미래 사람들이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국말을 만들어서 미래에 사람들이 편했다." 그리고 "이 사람 덕분에, 세상이 더 편해."

有志竟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올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로 그 것이에요.

장영실은 새종대왕의 신하였어요. 장영실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높은 자리로 갔어요. 장영실이 미래에 있는 사람한테 용기를 주 방법이 장영실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싶도록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에게 드리는 편지

나는 미국에서 자라서 사람 한 분 한 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독립운동은 뭐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한 거가 너무 훌륭했어요. 이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선재

말하기 대회 으뜸상 수상

제 꿈을 찾고 있어요

6학년 국화반 조영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6학년 국화 반 조영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은 게 아주 많았습니다. 화가도 되고 싶었고, 발레리나, 과학자, 경찰관과 선생님 등등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크면 클수록,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단점만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림이 안 팔리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발레리나는 예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언니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하고 싶었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자주 발을 다쳐서 "이러다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자는 우주선을 달에 착륙 시킬 수도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밤낮 없이 연구만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경찰관은 보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범죄자를 잡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되었어요. 선생님은 진짜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촌 동생의 공부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몇 번 못했어요.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나 또래들은 어떻게 월하고 싶은지 벌써 알지?"라는 생각을 하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고심 끝에 제 솔직한 마음을 썼어요. 제가 여기에 어떤 특정 직업을 썼으면 점수는 더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천천히,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생각 해 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어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그분들의 경험을 인터뷰 할 거예요.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힘드니까 유명한 분들이 쓴 자서전이나, 세상을 발견시킨 분들의 이야기도 읽을 계획이에요. 저는 아직 학생이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요할 거예요. 토요일에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것도 거기 포함이 돼요.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나, 작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나의 꿈'을 찾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 운동가 권지성

7학년 국화반 권지성



안녕하세요, 벨뷰 통합 한국학교 7학년 권지성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저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꿈은 너무나 막연한 미래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나중에 성장하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 지난 여름부터 부모님과 함께 국립 공원을 방문하면서 제 꿈을 조금 더 구체화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바로 환경 보호가가 되는 것입니다. 글레이시어 국립 공원에서 태곳적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관을 직접 보았습니다. 책에서만 읽어본 느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어떤 건물, 또는 변화한 도시보다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연 경관과 동물들이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과연 이런 지역들이 몇 세대 후에도 지구에 잘 보존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구는 야생 동물 사냥과, 무모한 지역 개발을 통해서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연을 보호하고 야생 동물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을 잠시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 외에도 육체적 건강을 증진해 준다고 합니다. 심박수, 혈압을 낮춰 주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면 더 나아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제가 자연 속에서 느낀 행복감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 결과를 읽어 보면서 자연은 우리에게 단순히 행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자연을 어떻게 보전하고 유지해야 할까요?

제 꿈은 바로 자연을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지리학과 동물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 환경 보전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환경 보호 운동가' 가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매일 생활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중요성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봄, 황폐해진 도시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재활용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훗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지구와 야생동물을 보호하여 아름다운 지구를 지킵시다.



자랑스럽고 과학적인 한국어

8학년 국화반 박한빈

한글은 과학적이고 우리 역사에 중요합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국의 고유문자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와 그 이웃의 언어를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간단히 “훈민정음” 또는 “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한글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신원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주민에 대한 당시 한국 쓰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중국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한국 주민들은 중국 시스템이 너무 힘들고, 배우기도 너무 힘들어서 세종대왕은 발명은 알파벳이 반영한 한글어를 배우기 쉽고, 쓰기도 쉬웠습니다! 한글은 그 당시 여성들과 인기있는 작가에 의해, 하층민들에 의해 빠르게 채택되었다.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 없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단어와 알파벳으로 자신들은 표현할 수 없겠어요. 한국어의 독특한 표음법이다. 문자의 모양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소리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입 안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발음되는 자음을 위한 발음되는 장소와 같은 기본 모양으로 지어진다. 이것은 복잡하고 과학적입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정말 매력적이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자음은 발성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먼저 ‘ㄱ, ㄴ, ㅁ, ㅅ, ㅇ’ 다섯 글자를 만들었다. 이 다섯 글자를 가지고 획을 더해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한글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적을 수 있고, 배우기 쉬워서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라고 말한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에도 사용됩니다! 한글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식과 한국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대나무반

담임: 조지숙

권지민, 김지아, 김태희, 김현우, 남윤빈, 신동혜,
에린 케이, 윤사비, 윤서영, 이여진, 이한솔, 장민우,
차유미, 최서연, 한진희, 홍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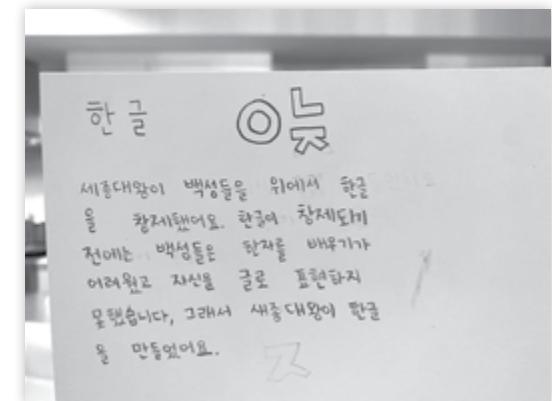
“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나무반 친구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의 열심을 코로나 펜데믹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줬어요. 인간이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여줘서 감동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희망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넘어서 전세계의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꿈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종대왕
권지민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한글을 만들었어요.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가 어려웠고 자신을 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세종대왕이 저의 역사 영웅입니다. 세종대왕은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줬어요. 저도 세종대왕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저는 이 질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제가 세종대왕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요? 저는 매일 아버지가 하루하루 힘들게 코비드 환자를 보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새벽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십니다. 엄마는 주말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나눠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세종대왕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따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선, 저의 재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한국어 할 수 있고,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코비드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을 위하여 영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세종대왕과 부모님에 영향을 받아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 친구들도 제 영어와 한국 역사 사이트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들이 합쳐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멋있는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한국의 음악
김지아

음악은 누구나 좋아하는 겁니다. 심심할 때, 상상을 해야 할 때, 우울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음악을 K팝 쪽입니다. 매력 있는 K팝 보이 그룹이나 걸 그룹이 뮤직 비디오를 만들고 팬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콘서트나 다른 TV쇼에 나타나서 자신들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춤도 춥니다. 요즘 춤의 스타들은 BTS라고 들었습니다. 빠른 발 움직임과 손과 팔의 움직임도 멋지게 보입니다. K팝 팬들은 한국애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K팝 그룹이 뮤직 비디오를 업로드 할 때마다 뮤직 비디오에서 나오는 춤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잘 배우면 안 어려워 보이는 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춤을 배우고 싶은 애들은 유튜브에서 트토리얼을 보거나 스스로 배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춤을 잘 추는 그룹들은 EXO, BTS, NCT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걸그룹은 춤을 잘 못 추거나 노래를 잘 못 부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음악은 거의 여자의 목소리로 들었으나 걸그룹은 아니였습니다. 요즘 K팝 걸그룹으로 잘 나가는 블랙핑크가 있죠. 목소리도 좋으면서 몸의 움직임도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걸 그룹보다 보이 그룹이 팬들에게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팬들의 성별은 거의 다 여자로 알고 있고, 남자의 매력이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K팝 팬이 아니어서 말합니다. K팝을 좋아하게 되면 어떤 그룹을 제일 좋아할까, 그리고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들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K팝의 문화를 더 알아보고 싶으면, 더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떡볶이
김태희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 한국음식은 K드라마를 통해 더 유명해졌다. 그 많은 음식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다. 떡볶이는 매콤하고 달달하고 쫀득하다. 떡볶이는 한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이다. 길을 가다 가도 찾을 수 있을 만큼 흔한 음식이다. 떡볶이는 거의 항상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으로 나눠져 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순한 맛으로,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매운 맛으로, 실수로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이 매운 것을 시키면 매워서 못 먹을 수도 있으니 꼭 순한 맛으로 시키는 게 좋다. 떡볶이는 종류가 많다. 지금 유행하는 떡볶이는 엽떡이다. 엽떡에는 좋아하는 재료를 골라서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시지를 좋아하면 넣을 수 있고 상추를 좋아하면 넣을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당면이 제일 유명하다. 왜냐하면 쫄깃하고 맛있기 때문이다. 치즈는 원래 유명했다. 고소하고 매운 맛을 좀 잡아줘서 떡볶이와 먹으면 딱이다. 요즘 엽떡이 유명해서 맥방 유튜버들이 많이 먹는다. 떡볶이와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은 김밥, 튀김, 그리고 순대다. 김밥은 김과 밥 그리고 다른 재료로 만든 음식이다. 김밥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라면이랑 먹어도 맛있다. 튀김은 김말이가 제일 맛있다. 순대는 소금을 찍어 먹는 건데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이 음식들은 다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다. 떡볶이의 떡은 쌀 떡 아니면 밀가루 떡이 있다. 쌀 떡은 늘어나고 밀가루 떡은 쫀득쫀득하다. 옛날에는 떡볶이가 1인분에 2천원이었는데 요즘은 2-3인분에 15,000-2만원정도 된다.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면 꼭 먹어 보길 바란다.



한국의 음식
김현우

한국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퍼진 한국 음식은 다양하다. 음식의 종류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이다. 이런 음식은 한국에서 아주 평범한 음식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한 음식이다. 김치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먹었던 음식이었다. 최근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도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김치에 있는 맛있는 배추와 매운 고추가루를 너무 좋아한다. 또 건강음식이기도 하다. 김치는 면역을 강하게 만드는 음식이다. 김치는 살도 빼는 것을 도와준다는 말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치는 세계적으로 슈퍼글드라고 한다.

한국의 음식문화 중에서 불고기가 있다. 불고기는 얇은 소고기 조각을 간장 양념에 재워 서 구운 음식이다. 불고기는 부드럽고 약간 단 맛이 나서 전세계에 퍼졌다. 한국에 있는 불고기 버거는 다른 나라 식당에서도 나올 정도이다. 불고기는 맛도 좋지만 다양한 야채와 같이 먹을 수 있다. 단백질도 많다.

한국의 또 다른 유명한 음식은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건강에도 좋고 맛있기도 해서 유명하다. 비빔밥은 채식주의 사람도 먹을 수 있어서 더 유명해졌다. 야채와 밥을 섞어서 고추장과 함께 비벼서 먹는다.

한국 음식은 한국을 넘어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음식이 되고 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외에도 한국 음식에는 더 다양하고 칭찬할 음식이 많이 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더 퍼질수록 한국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국 음식 문화를 세상으로 달릴 수 있다.

김구의 결의
남윤빈

저는 김구 선생님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힘든 시기를 견뎌왔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김구>라는 책은 꽉꽉미가 쓴 김구의 전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김구의 업적 뿐만 아니라 그가 직면 한 고난에 대해서도 염불 수 있었습니다. 김구는 자신의 몸과 생명을 조국에 걸고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일화를 보면, 김구는 일본군과 용감하게 싸우다 일본군을 죽였고. 이 얘기가 여기저기 퍼지면서 김구의 대단함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던 한국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순검과 사령들이 김구를 찾아와서 감옥에 끌어갔어요. 갇힌 지 한 달 되었을 때 김구는 감사 앞으로 끌려갔어요. 감사는 김구한테 물었지요.

“네가 만약 치하포에서 일본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했다면서?”

김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감사는 김구가 거짓말한다 생각 해서 사령들한테 김구를 처벌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령들이 큰 몽둥이 두 개를 김구 다리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몽둥이를 눌러서 주리를 틀었어요. 정강이 살이 터져서 뼈가 보였어요. 김구는 그래도 고통을 참아 기절할 때까지 견뎌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김구는 왜 그렇게 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통을 감수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자기 나라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겠지요.

두 달이 지나자 인천 감리영을 향해 김구는 순검들과 떠났어요. 김구가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는 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이렇게 끌려가면 왜놈들 손에 죽을 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 맑은 물에 나와 함께 뛰어들어 죽은 귀신으로 나마 같이 다니자꾸나.”

김구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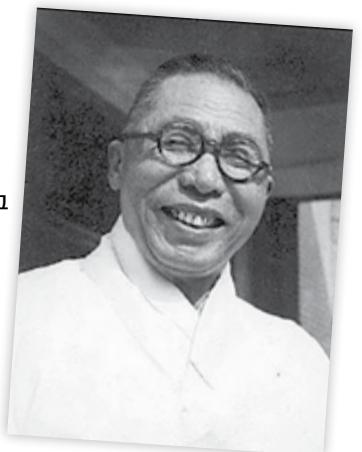
“어머니,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 사무친 정성을 한 일이라서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김구의 독특한 결단은 고무적이라서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김구와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국은 틀림없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김구는 인천에 도착하자 감옥에 또 갇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김구를 사형시킨다는 기사가 났어요. 죄수들은 이 얘기에 무척 슬프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김구는 아무 일 없듯이 책만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성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비록 이대로 죽는다 해도 내 뜻은 세상에 알렸으니 후회할 것 없다.”

죽음이 눈 앞에 있는데도 김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이런 김구선생님이 존경스러워요. 저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김구 선생님처럼 평화롭게 죽음에 맞서고 싶습니다. 결국 김구 선생님은 사형을 받지 않았어요. 그 분의 말대로 하늘이 지켜 주었나봐요.

김구 선생님은 우리 나라를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쳐서 한국의 독립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군과 두려움 없이 싸웠고, 육체적 고통을 견뎌냈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책을 읽으면서 조국에 대한 김구 선생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김구 선생님처럼 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의 희생으로 이 미국 땅에서 나는 지금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친구
신동혜

친구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친구가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 없고, 일상생활이 더 밝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슬퍼하거나 누군가가 필요할 때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혼자 아플까 봐 걱정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친구로 인한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이용하거나 서로에게 욕을 하거나 서로에게 못되게 굴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가치 있고 그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친구 사이에는 공통점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치관, 경험한 생각, 관심, 알려진 환경 등,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감사할 거예요.



자기소개
신예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예주입니다. 저는 벨뷰에 살고, 치눅중학교, 7학년입니다. 저의 취미는 수영입니다. 제 장점은 책을 빨리 읽을 수 있고, 단점은 글씨를 너무 천천히 써요. 장래 희망은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1학년때 원쪽 팔이 부러졌던 것이에요. 한글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한글 글씨를 잘 쓰고 싶어서입니다. 목표는 한글 단어를 다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의 음식
에린 케이

한국의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음식이 많이 매운데 내가 정말 좋아해요. 떡볶이, 김치, 김밥, 불고기 다 너무 너무 많아요. 떡볶이는 매운 국 안에 떡 그리고 어묵이 있어요. 김치는 매운 발효된 배추이고, 불고기는 맛있는 소고기예요. 김밥은 김에 밥을 말은 음식인데, 다른 재료도 많이 있어요. 치즈, 고기, 새우, 당근, 또는 채소가 안에 들어가요. 이거는 다 맛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새우 우동이에요. 새우우동은 국물에 새우와 면을 넣고 튀김도 넣어요. 진짜 뜨거워서 차가운 물을 조금 넣어야 돼요. 나는 새우우동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미역국도 좋아해요. 미역국은 국인데, 해조류가 들어가 있는 국이에요. 김, 닭고기, 두부를 넣어도 돼요. 저녁을 다 먹으면 뻥튀기를 자주 먹어요. 뻥튀기는 밥을 뻥 튀겨 만들어서 뻥튀기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과일의 종류가 다양해요. 사과, 배, 감, 참외, 귤 등이 많이 있어요. 수분이 많고 달콤해요.

한국에 아이스크림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요. 콘, 컵, 바 등 여려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인 초콜릿, 딸기, 바닐라도 있는데, 메론, 민트 그리고 콩 맛도 있어요. 한국 케이크는 아기자기하고 가벼워요. 한국에 과자가 많이 있는데 칩 종류가 다양해요. 새우 칩, 감자 칩, 와사비 비스킷 등이 있어요.

한국의 빵은 미국의 빵과는 조금 달라요. 더 가볍고 소금을 더 많이 넣어요. 한국 빵집들은 예쁘고 깔끔해요. 빵집에 들어가면 쟁반을 가져가서 그 쟁반에 먹고 싶은 빵을 놓아요. 한국은 빵에 과일을 많이 넣어요. 뿐만 아니라 초콜릿 칩들, 시럽,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많이 넣어요. 이것들은 다 맛있는 한국 음식입니다.

내 생일은 3.1절
윤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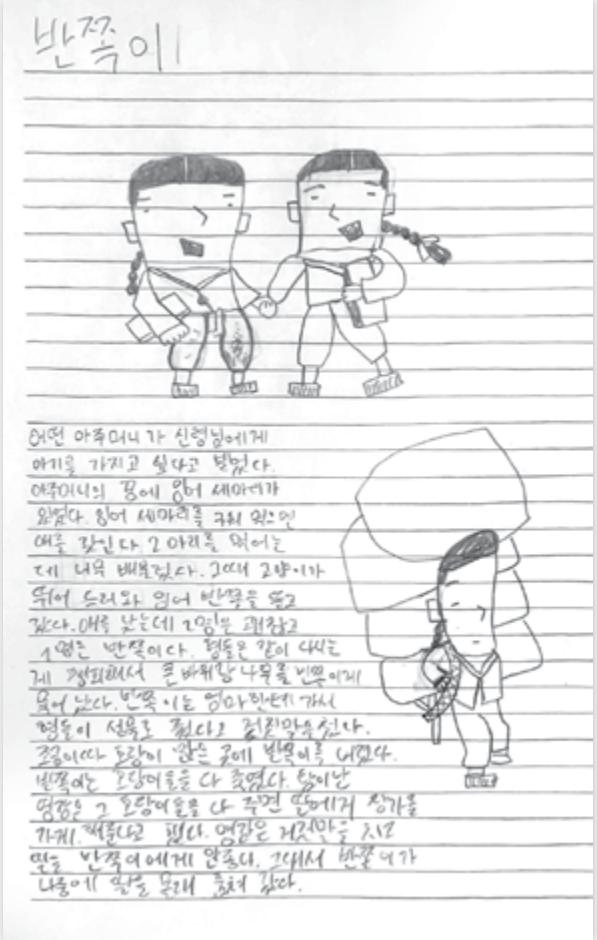
친구야 안녕! 너는 내 생일이 언제 인지 아니? 내 생일은 3월 1일이야. 한국에서는 3월 1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유관순이 만세운동을 참여한

날이거든. 친구들은 나를 놀리고 했어. 내가 6.25전쟁을 봤다고, 그런데 유관순과 3.1절의 독립운동이 무엇인지는 알아! 윤관순은 왜 우리나라에게 소중한지 알아? 유관순은 말이지 아주 어린 나이에 민족들을 독립운동에 참가해 달라고 먼 곳까지 걸어 왔고 일본군에게 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 제일 먼저 이화학당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에게 시위운동에 나가자고 결심했어.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는 우리가 되 찾은 다면서 직접 그런 국기와 만세운동의 장소를 전달했어. 그리고 봉화를 산마다 올렸어. 시간이 지나니 일본군들이 아우내 장소에 찾으러 왔어. 민족들을 의자 묶어 놓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 감옥에는 유관순이 있었어. 유관순은 다른 여성들과 같이 가 어. 힘든 몸으로 주마니 안에 있던 국기를 꺼내 “대한 독립 만세”라고 아주 크게 외쳤지. 일본군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뛰어 왔지, 그것을 본 유관순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도 희망 있는 얼굴로 유관순을 쳐다봤어. 감옥에서 울고 있던 아기도 눈물을 뚝 그쳤어. 화가 난 일본군은 다른 일본군들을 불러 사람들을 총으로 쐈지. 아직 희망이 있던 유관순은 총알이 박혀 있던 몸으로 너희는 천벌을 받을 거라면 국기를 안고 숨을 놓았어. 나였으면 무서워서 못 했을 거야. 그래도 유관순 덕분에 우리 나라는 이제 참 좋은 나라로 변했어. 친구야, 나에게 배울 게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한국 영웅은 누구니?

한국 음식
장민우

한국은 오랫동안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왔어요. 옛날 음식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음식도 있어요. 옛날 음식은 약밥, 미역국, 내장탕 등 많은 음식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오래된 음식을 먹어요. 약밥은 달아서 에너지를 주려고 먹었어요. 미역국은 아기를 낳을 때 산모에게 주었어요. 국이 따뜻해서 한국이 추울 때 많이 먹었어요. 이 오래된 음식들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손으로 만들 때 제일 맛있어요. 요즘에 유명한 음식도 먹어요. 라면, 양념치킨, 불닭볶음면 같은 음식이에요. 어떤 것은 포장해서 마트에서 팔고, 어떤 음식은 온라인에서 주문도 해요. 이 새로운 음식들은 빨리 조리해서 먹을 수 있고 맛도 엄청 좋아요. 옛날 음식처럼 건강에 좋지 않지만 맛이 있고 만드는 시간이 짧아서 많이 유행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유명해졌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이런 새로운 한국 음식이 유명해지니까 옛날 음식도 미국에서 먹어요. 한국 식당과 마트도 생겼어요. 한국 간식도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빼빼로, 뿌셔뿌셔, 초코파이 같은 간식이 나왔어요. 이 간식들도 미국에 있는 한국 마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의 음식과 간식이 유명해지면서 한국도 점점 유명해졌어요. K팝도 나오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은 현대의 시계로 들어갔어요.



어떤 아줌머니가 신령님에게

아끼를 가지고 살다고 했었다.

여주이니의 꿈에 임너 세마리가

있었다. 임어 세마리를 구워 먹으려

때를 찾았다. 2 마리를 먹어도

더 먹을 배불렸다. 그래서 고양이가

뛰어 드러와 임어 세마리를 놓고

걸었다. 대를 날는데 7마리를 채웠고

1명은 반쪽이다. 텅들은 깅이 대리는

게 고양이께서 흰바위랑 나무를 빼앗아버리

들이는다. 반쪽 이는 엄마한테서 가서

영장을 신속으로 헤친다. 걸친왕족된다.

걸친이야 흰바위 같은 곳에 흰바위를 넣고자

반쪽에 흰바위를 다 쳐냈다. 흰바위

영장을 그 흰바위上面에 다 쳐낸 뒤에 흰바위를

가져온 고양이를 놓았다. 영장을 거짓말로 치고

말을 반쪽에 놓게 안았다. 그래서 반쪽 내가

나를 이미 말을 보내 흰바위 같다.

훈민정음의 역사

7학년 대나무반 윤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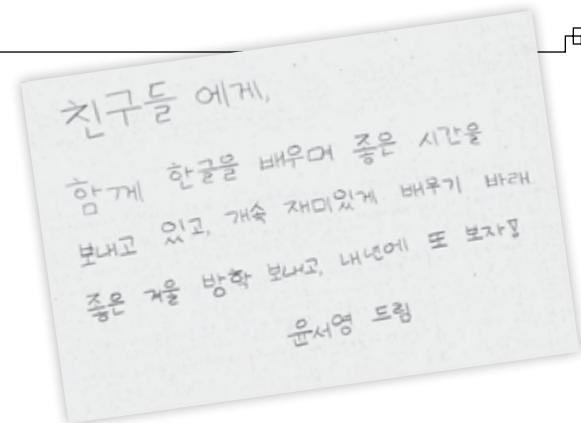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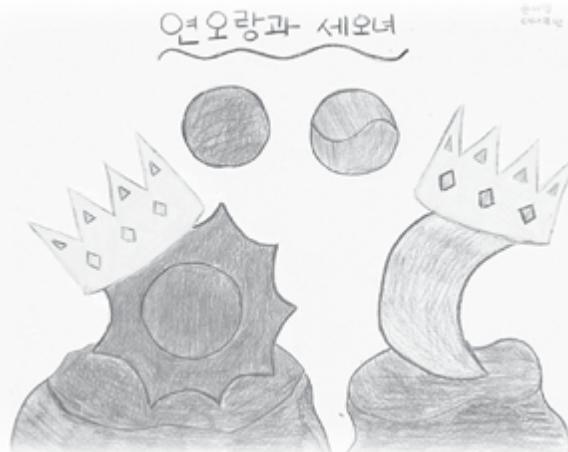
우리가 매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의 역사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 매일 쓸 때마다 생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1400년도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지금 한글, 많이 한국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읽고 쓸 수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중요한 정보를 못 받을 것을 생각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평화, 행복 그리고 읽고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지금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언어를 안 만들면 백성들은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는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밤도 세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신하들은 훈민정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은 중국의 한자를 쓰다가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이 부끄럽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세종대왕을 반대하며 한자를 계속 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꾸준히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을 통해 조선시대에 백성들도 이득이 되었지만, 우리의 지금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온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언어들 중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어서 배우기도 무척 쉽습니다. 또한 한글의 자음과 모음들은 그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낼 때, 우리 혀가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한글을 배우거나 한글을 쓸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을 쓸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14자음과 10모음을 통해 모든 단어들을 만들 수 있어서 새로운 글자는 안 배워도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글의 역사와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음식

이여진

한국의 음식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음식의 맛, 외관, 그리고 소스 다 틀려요. 어떤 한국음식은 매워요. 짬뽕, 떡볶이, 그리고 가장 유명한 김치가 있어요. 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순두부예요. 저도 많은 한국 사람처럼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유명한 음식은 매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음식은 매운 것만 있지 않아요. 불고기, 갈비 그리고 다른 맛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불고기와 갈비도 유명해요. 다른 나라 사람은

한국에 가면 불고기와 갈비를 먹고 싶어해요. 한국음식 바비큐는 실제로 미국에 많이 있어요. 한국 고기는 맛있고 많이 있으니까 정말 유명해요. 그런데 한국음식은 불고기 외에 다른 음식도 많아요. 시원한 냉면, 짜장면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의 음식은 맛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음식은 감동을 일으켜요. 저는 순두부찌개를 먹을 때 행복해요. 그 맛 있는 국과 하얀 두부를 생각하면 웃어요. 한국음식은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먹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의 할머니는 이제 미국에 사시는데 한국의 음식만 드세요.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식에 대해 말하세요. 그 열심히 만드신 음식을 먹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음식(엄마와 할머니가 만드시는 음식) 생각하면, 행복하고 좋아요. 왜요? 그 음식은 저의 가족 생각이니까요. 음식은 유명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먹기 때문이에요.

저가 제일 행복할 때는 가족과 같이 저녁 먹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하게 말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이 제일 좋아해요.



김치볶음밥

차유미

김치볶음밥은 밥에다가 김치, 고기, 양파와 각종 재료를 넣고 볶습니다. 다른 볶음밥과 달리 이 볶음밥은 맵고 김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볶음 김치를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운 것을 싫어하면 치즈를 올려도 됩니다. 이 음식이 좋은 점은 여러가지의 재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물도 넣고, 돼지고기나 스페셜을 넣기도 합니다. 야채는 콩, 양파, 버섯, 옥수수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볶음밥은 아무거나 넣어도 맛있어서 자기 취향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치볶음밥에 다른 좋은 점은 만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후라이팬과 밥이랑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요리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고기와 야채를 볶고 마지막에 밥과 원하면 치즈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먹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반찬도 필요 없고 김치볶음밥만 먹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치볶음밥을 소개 드리는 이유는 맛있고, 먹기 쉬우면서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아 이게 한국이야

이한솔

김치. 방탄소년단. 한복. 북한?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를 생각하면 보통 이런 게 떠오를 것이다. 근데 문화라는 이 두 글자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지요.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요. 영어에서 melting pot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녹아 있는 말이다. 이걸 설명하면 옷, 음식, 언어, 명절 등 간단하게 문화를 말할 방법은 없다. 크게 생각하면 문화는 우리가 사는 방법과 원칙이고, 문화는 우리 과거, 우리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이다. 쉽지? 모를 수 있지만, 미국에서 사는 가장 제일 큰 장점은 많은 문화들을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점이다. 이런 다 같이 녹아 있는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문화가 참 멋지다. 친구도 알겠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것과 자주 비교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한다. 한국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주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랑을 했다. 내가 한국에 안 사는데 그 문화를 가르쳐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알겠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문화에 신기하고 멋진 게 많다. 특히 음식, 한국의 음식.

나는 고기중에 특히 소고기를 좋아한다. 스테이크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소 한 마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 먹은 것을 보여준 프로그램을 보았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머리는 국밥으로 먹고, 꼬리와 혀, 그리고 고기도 다 먹었다! 많이 신기했다. 내 친구들에게 이것을 말해주니 다들 놀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고 계속 먹었다. 너희들도 맛있는 것을 아는 거지. 친구들과 자기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옛날 한국에서는 소와 친구가 재산이어서, 다 먹는 거라고 설명해주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더 유명해졌다. 한국은 조금만 나라지만 큰일들을 하고 있다. 세계를 위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의 문화는 K팝과 김치라고 생각한다. 그걸 들으면, 난 억울하다. 그래서 한국학교에서 배운 것을 말하고 가르쳐준다. 하지만 지금 뉴스에서 한국이 얼마나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나와서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한국이 뉴스에 나오면 애국심이 많이 느낀다. 한국이 계속 잘됐으면 좋겠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멋진 문화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다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이다. 한국을 사랑한다. 친구야, 이게 한국이다.

미래의 직업

한진희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돈으로 못 산다고 말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돈은 자유, 시간, 그리고 휴가를 줄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고소득 직업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내 생일

황진하

제 생일은 3월 6일입니다. 지난 생일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베이블레이드를 생일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음 생일에는 새로운 컴퓨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를 못해서 서운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서 좋았습니다.

외국 친구한테 추천하는 음식

최서연

안녕. 요즘 맛있는 한국 음식을 찾고 있다면서? 집에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난 한국의 많은 음식을 먹어봤어. 한국의 음식은 종류가 아주 많아. 엄마들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 집밥이라고 불러. 엄마들의 정성과 사랑의 맛이 들어있지. 집밥 말고 바다 쪽에 둘러 다니면 바다 음식이 많을 께야. 그거 보 해산물집이라고 부르지. 바다의 맛은 실제로 바다를 가야지 그 맛이지.

하루 종일 가족과 같이 바닷가에서 놀고 나서는 해산물집을 들어가고 맛있는 해물을 먹지. 그렇지만, 이런 한국의 음식은 너의 입맛을 만족을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음식들을 한국인의 입맛이거든. 나는 너의 입맛에 제일 맛집 음식은 요즘 한국의 길거리 음식일 것 같아. 길거리 음식은 일단 많은 외국인들한테 관심을 끗지. 아마도 요즘 의 연예인들 덕분이겠지? 길거리 음식은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들이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 나는 한국 부모님들이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한번도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난 항상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아마도 너의 입맛이 비슷할 거야. 너와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왔으니까. 나도 너처럼 피자, 버거와, 핫도그를 먹어봤거든. (사실은 나도 매운 건 진짜 못 먹어.) 2016 겨울에 우리 가족이 한국을 갔다왔어. (도깨비라는 한국드라마가 나왔을 때쯤이었어.) 나는 한국간지 3년이었지. 매일 외국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음식이 다 너무 맛이 있는 거야! 일산 칼국수도 맛있고,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집밥도 다 너무 맛있었지. (해물집에서는 안 먹어서 나 해물을 아주 싫어하거든) 한국에 있는 동안 하루 일찍 일어나고 명동을 갔다 왔거든. 명동을 가는데 버시를 타고 갔어. 버스를 타는데 엄마, 아빠, 동생과 다 따로 앉았어.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난 그 순간 너무 겁이 났어. 명동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고 가족과 함께 카페에 갔어. (카페를 가는 동안 엄마 손을 꼭 잡고 갔지. 너무 무서워서,) 카페에 가서 핫초코를 시켜 먹었어. 역시 한국 핫초코가 더 달달하고 쇼코 맛이 더 강했다. (완전 추천!) 카페에서 처음 겨울 아침공기를 피하는데 핫초코가 바로 따듯하게 만들어 주더라. 컵이 비었을 때, 따뜻한 카페에서 추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조금 헤메다 배가 고파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기 시작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회오리 감자를 먹었다. 빠삭빠삭하고 미국의 'french fries' 보다 내 입맛에 맞았다. 맛이 더 비슷한데 더 바삭바삭하고 짠 맛이 덜하다. 골목에 보면 음식이 아주 많고 별개 다 있어. 매운 떡볶이도 있고, 짠 회오리 감자도 있고, 달달한 아이스크림도 있어. 여기는 너의 취향으로 음식을 찾고 즐길 수 있어. 한 장소에 이런 다양한 음식이 있고 여러 트렌디 옷가게도 있어서 구경할 것이 아주 많아. 언젠가 한국을 가게 되면 길거리 음식을 먹어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홍서현

역사 속에서 찾은 나의 미래

8학년 대나무반 권지민



안녕하세요, 벨뷰 통합 한국학교 8학년 권지민입니다! Covid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왜 Covid 바이러스 준비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불안한 미래에 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궤도를 바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의 성공과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바이러스 질환들, 또한 1, 2 차 세계 대전과 같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떤 운명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발전했고 또 다른 운명은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 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되어서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현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 낼 방법을 연구하고 제 연구 주제와 결과를 친구들과 주위 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 꿈에 한 발짝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인 행사인 National History Day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열심히 준비하여 제 출품작이 제가 사는 카운티에서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대표가 되어 전체 2등을 한 후 전국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제 영웅 유관순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이 용기 있는 평화 저항 운동을 하였습니다. 비록 유관순 역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는 비극이 있었지만, 그녀의 신념과 용기 있는 행동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에게 큰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을 추구하는 용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타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관순 역사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면 유관순 역사의 순국은 비극이 아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역사를 연구하고 그 의미를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1월 14일 제 열 네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힘든 여건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한국의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로 역사적 사실을 강의하는 웹사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재능과 열정을 사용하여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최근 저는 벨뷰 한국 학교 수업 중, 고조선 왕조에 대해 조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 인간’의 의미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다 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사랑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는 4000년이 넘었는데도 역사가 이런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과거를 공부하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위대한 유산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역사학자 권지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우



성인 1반

담임: 김경미

김유은, 심재민, 지신애,
수지 토마존, 이진희

안녕하세요? 성인 1반 담임을 맡은 김경미입니다.

저는 초임 교사이지만 자상하신 교장 선생님, 미소가 아름다운 교감 선생님, 무엇보다 저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부장 선생님, 그리고 늘 칭찬으로 격려해주시는 동료 선생님 덕분에 벨뷰통합 한국학교에서 교사로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분과를 맡은 교사들이 비록 온라인 미팅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학사과정과 학습 지도안 방향 설정, 학습 내용 평가 등등 함께 콜라보레이션하면서 저는 더 나은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역, 니은, 아, 야, 어, 여' 도 모르고 수강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문장과 문법 실력을 갖춘 저희 반 학생들의 사랑을 할까 합니다. 1학기 첫 번째 온라인 줌 수업을 하던 날 똘똘한 이십 대의 학생들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태어나 처음 경험해보는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가상 교실에서 함께 수업하면서도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직장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부모님이 계시는 시애틀에 당분간 거주하면서 수강했던 김유은 학생은 급우들이 채팅창에서 서툴고 느리지만, 한글로 소통할 수 있게 한글 자모가 인쇄된 키보드 커버를 어디서 사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워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다던 심재민 학생, 숙제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해서 시소 앱에 올린 미, 중, 한국 혼혈인 간호사 지신애 학생, 학기 중간에 입학했지만, 숙제를 열심히 해서 부진한 학습을 따라잡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육군 대위였던 수지 씨, 그리고 어릴 적에는 유창하게 한글을 잘 말했는데 크면서 한국말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됐다던 2학기에 합류한 이쁜 아기 엄마 이진희 학생이 저희 반 구성원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한국어도 열심히 해서 배울 뿐 아니라 한국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단군신화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조선시대 명필가 한석봉, 한국의 고유 명절, 그리고 3.1 독립운동에 관해 배우고 토론하고, 태극기 노래도 부르고, 안동 하회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3교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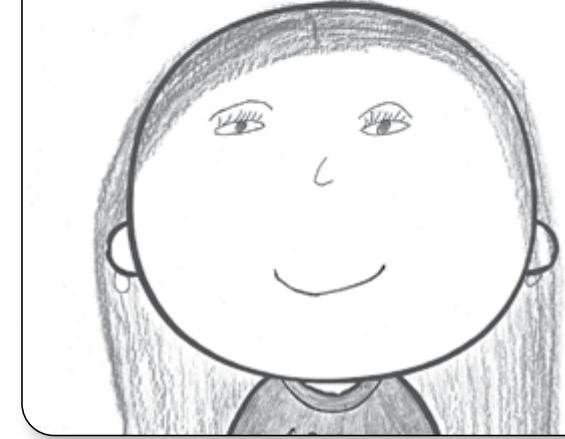
성인 1반 학생들은 저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보람과 즐거움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소통하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성인 1반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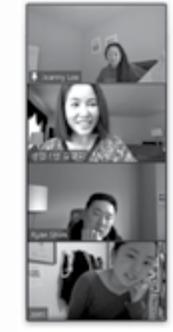


All About Me 여보세요!

저는 수지예요.
미국 사람 이에요.
집이 렌턴에 있어요.
저는 군인 이에요. 전화번호가: 사이오 플러스
나는 습격식 살입니다.
감사합니다!



태극기



All About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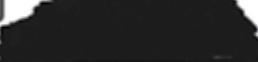
Ryan 재민



사이오-플러스-플라워피



호흡



동생



제 이름은 재민이에요.

저는 레드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생일은 일천 구백 구십 오년 사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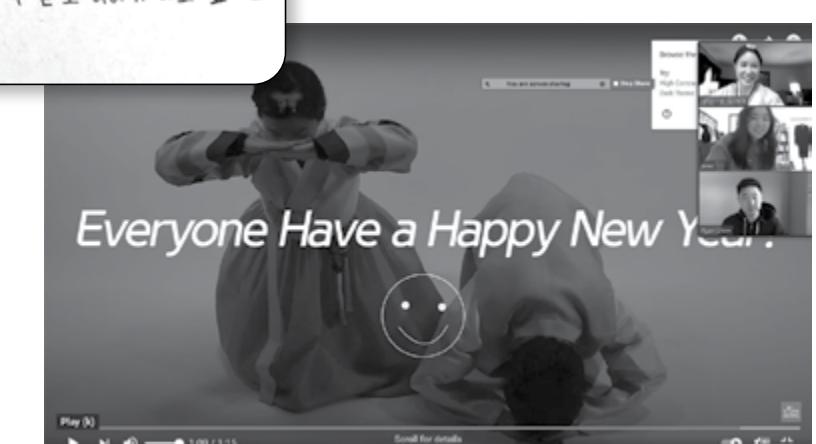
저는 스물 다섯 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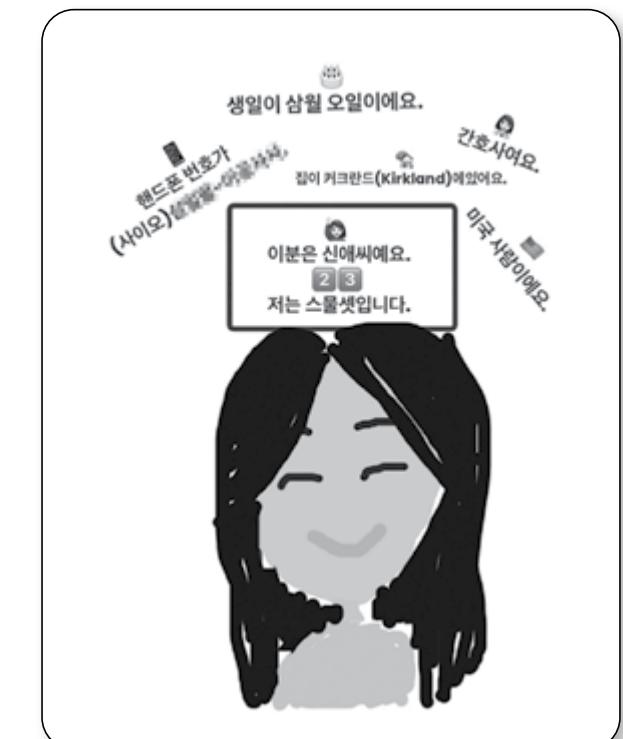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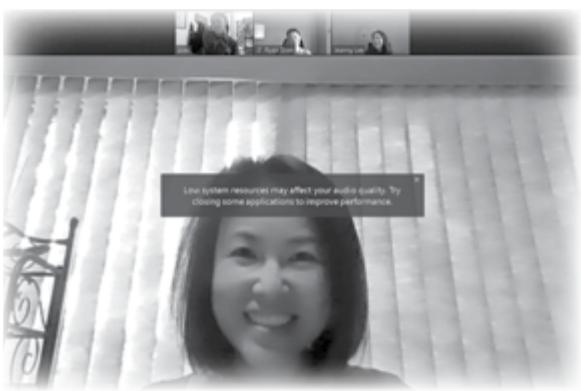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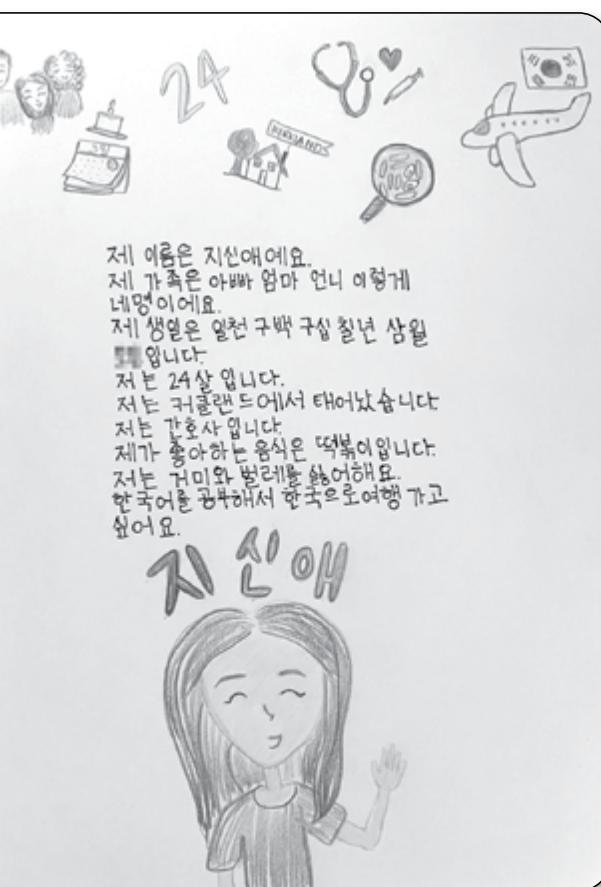
제 가족은 엄마, 아빠, 남동생 두명,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저는 지금 시애틀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갈비이며, 안 좋아하는 것은 땅콩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국 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24 호 꿈꾸는 나무들

성인 2반

담임: 김은주

케서린, 앤드리아, 윤니,
김의환, 폴린, 엘리아나

안녕하세요?

성인2반 담당 교사 김은주입니다. '가나다'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해서 지난 2년을 같이 보내 이제 서로 너무 친해진 성인2반의 멋진 학생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중국 분임에도 세종대왕의 열혈 팬이신 윤니 씨는 2년째 100% 출석을 자랑합니다. 또 윤니 씨 교과서에 빽빽이 메운 예습의 흔적은 늘 감동입니다. 윤니 씨의 열정과 헌신에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한글 공부 열심히 해 주세요~

이제 새색시가 된 앤드리아 씨는 인도네시아 분입니다. 남편이 한국분이라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과의 소통을 위하여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성과 사랑에 시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열심히 말하기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기만해도 늘 흐뭇합니다.

중국 분인 케서린 씨는 회사 일이 많아서 결석이 많아도 열심히 진도를 따라 오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한국 친구가 많아서 정확한 발음을 자랑합니다. 케서린 씨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케서린 씨가 교과서를 읽으면 강아지 밥도 따라 읽는 듯 짖어댑니다.

마음이 곱고 목소리도 예쁜 폴린 씨는 타이완 분입니다. K drama 를 좋아하는 폴린 씨는 한국말로 소통하며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숙제 100% 제출과 출석 100%의 폴린 씨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한국인 2세인 데이빗 씨는 '듣고 문제 풀기'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어서 저도 기쁩니다. 듣기도 글쓰기도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이탈리아 분인데 독일에서 지금 유학 중인 엘리아나 씨, 시차의 한계를 넘어 토요일 중 수업에 제일 먼저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감동받는지 이 자리를 빌어 꼭 말하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 공부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우리 성인2반 모두 수학 여행 오라고 한 약속 잊지 마세요. 우리 정말 이탈리아로 갑니다!

우리 성인2반 학생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앤드리아입니다. 음악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피아노입니다.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할 줄 아닙니다. 14년동안 피아노를 가르쳐왔습니다. 음악 학원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암격하지만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내가 가족 좋아하는 작곡가는 Tchaikovsky입니다. 이 음악 학원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성인2반 앤드리아

내 고향 오하이오

제 고향은 오하이오예요. 오하이오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아주 뚜렷해요. 오하이오에는 킹즈 아일랜드 놀이 공원이 아주 유명해요. 제가 중학교 때 출업 여행으로 킹즈 아일랜드 놀이 공원에 갔었어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 고향 오하이오에서 유명한 음식은 베이비 사탕과 스카이 라인 칠리예요. 베이비 사탕은 오하이오 주를 상징하는 나무 열매처럼 만든 사탕이에요. 사탕 안에는 망篷 버터가 들어 있어요. 사탕 밖에는 초콜릿을 입혔어요. 그래서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제 고향 오하이오에 여러분도 한번 꼭 가 보세요!



성인2반 폴린

이번 여름 계획 성인2반 데이빗

저는 이번 여름에 친구와 같이 한국에 가서 제 가족을 만나요. 한국에 가면 꼭 맥주를 마시러 갈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맥주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친구와 엄마와 같이 맥주를 마시러 가려고요.

여름에 한국에서 학교가 있어요. 제 친구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 친구가 대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나랑 같이 축구를 많이 하고 놀았어요.

제 친구와 저는 이번 여름에 다시 만나서 축구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같이 열심히 운동을 할 거예요. 이번 여름은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벌써 신난다!



우리 손녀, 매디슨 성인2반 윤니

우리 손녀 매디슨은 13살입니다. 그녀는 7살때부터 발레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고 혁신적인 댄서입니다. 그녀는 Dance West Studio에서 매주 20시간을 연습합니다. 12살 때 그녀는 무대 위의 '호두까기 인형' 발레 댄스에서 퍼리라였습니다. 13살에 벌써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요?

발레 댄스는 매우 비싼 출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바느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레 스커트를 만들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친구들에게 댄스 스커트도 팔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젊은 기업가이며 그녀의 브랜드 MGB Dancewear 스커트는 현재 인스타 그램과 시애틀의 Red Curtain Boutique 매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디션을 통해 그녀는 권위 있는 Pacific Northwest Ballet의 여름 프로그램에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면제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결국 Pacific Northwest Ballet Company에서 전문 발레리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손녀의 열정과 인내와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디슨은 좋은 자세,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투정, 훈련된 마음과 삶을 갖는 방법에 대해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고향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리노이주가 고향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저한테 소중한 곳입니다.
날씨는 정말로 추워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워요.
제 예술 생활과 저는 보통 여름에 브리노이
주를 방문해요. 우리가 방문 할 때마다
항상 시내를 둘러 볼 수 있는 음식들을 찾습니다.
팁피시파자, 프로포고스타드, 포티로스 샌드
위치 항상 막아요.
언제 가면 좋겠지 밤 이층 같이 일리노
이주에 가고 싶어요.

성인2반 캐서린

제가 좋아하는 N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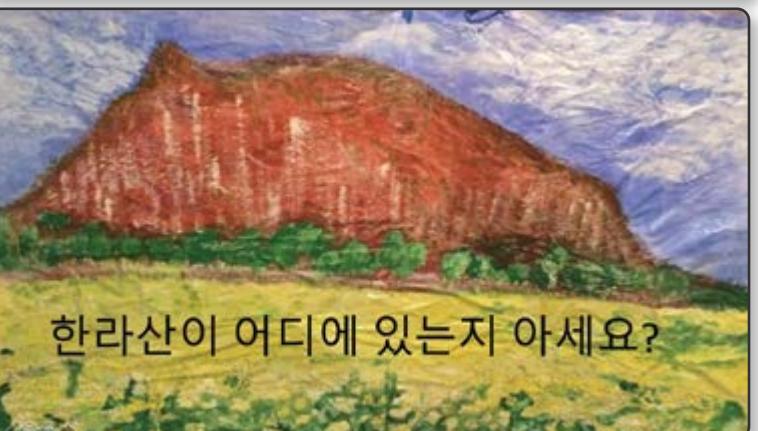
성인2반 엘리아나

저는 엘리아나예요. 저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지금은 독일에 살고 대학에 다닙니다. 저는 케이팝을 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NCT예요. NCT 공연을 보러 달라스에 갔었어요. NCT의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Sun and Moon'이에요. '태양하고 달' 이 노래는 사랑 노래예요. 가사가 정말 로맨틱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를 소개할게요.

"내 달이 떠오를 때
너의 태양이 떠
같은 하늘 아래
이 어긋난 시간 속
연결된 마음
같은 하늘 아래"

이 가사 정말 좋지요? NCT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도 꼭 들어보세요.



성인 3반

담임: 민경희

을 한해도 작년과 같이 모든 학생들이
등록하여 열심히 웃으면서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일년동안 각자의 역할을 잘 담당하여 주고
협력하면서 멋진 단합을 보여 준 성인 3반
여러분 고맙습니다. 2학기에는 노정화 인턴
선생님이 오셔서 말하기 연습을 개인적으로
도와주셔서 실력이 더욱 향상 되었습니다.

모두 여름 방학 동안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1. 로버트씨: 선생님을 도와 주는 조교 역할 담당
2. 단아씨: 로버트씨를 도와 주는 부조교 역할 담당
3. 그랜트씨: 수업시간에 모두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유머 담당
4. 디온씨: 자상하게 친구들을 챙겨 주는 좋은 친구 역할 담당
5. 마이클씨: 모두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역할 담당



여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가 사진들이 있습니다:

28년 전 한국에 살 때 친구와
함께 폭포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춤서를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만명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낯선 사람들과 불고기를
먹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했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우리는 아주
재미있게 놀았고 투어를
했어요. 섬과 바다는
아름다워요.



여너리 해서요
조상의 묘를 참배해 서요
장인어른하고 막걸리 마셔요
떡국 만들해 서요

그랜트

디온

1.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땅이 공부라고
했어요.
2.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여동생을 좋은 말하기가
해어요.
3.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술을 마시지
말라줬어요.

가족들이 오기 전에 정소했어. 그리고 덕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요리를 했어요. 우리는 재미있기
만나에요.

선생님께 *(이기)* 한국어를
온라기기를

우선 우리한테 가르쳐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학기에 다음 레벨로 올으를 바라요. 제 계획은
꾸준히 한국어 공부하려고 노력해요. 자신감으로 한국어 말하기 위해서 아내랑 더욱더 한국어
말 할 거예요. 한국어 배울수록 더 재미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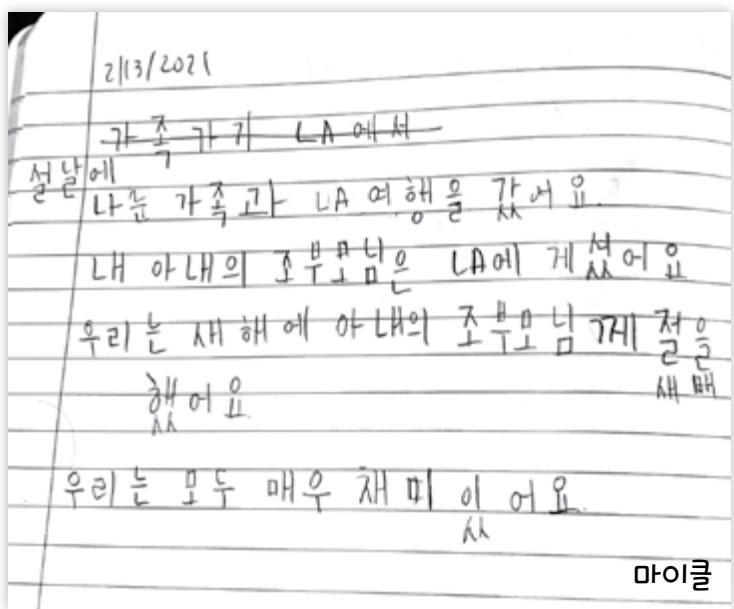
로버트 드림

로버트

이 봄방학 때 아라베마에 제 여동생의 결혼식에 다니러 갔아요. 결혼식 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한가족도 보고 낯선 사람들도 마났아요. 유감스럽게, 더운 날씨를 경험해 불구하고, 아라베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내 여동생 결혼 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종이와미술

Enrichment Class Kinder Art



노정화
인턴선생님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 춤소하라고 했어요.
 • 공부하라고 했어요.
 •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빠르어도 식구 모였어요.
 재미 있어요.
 유노리를 하고 돈을 벌어요.
 맛있는 덕국을 먹어요.

신단아

Enrichment Class
Art 1 Drawing

미술1 그림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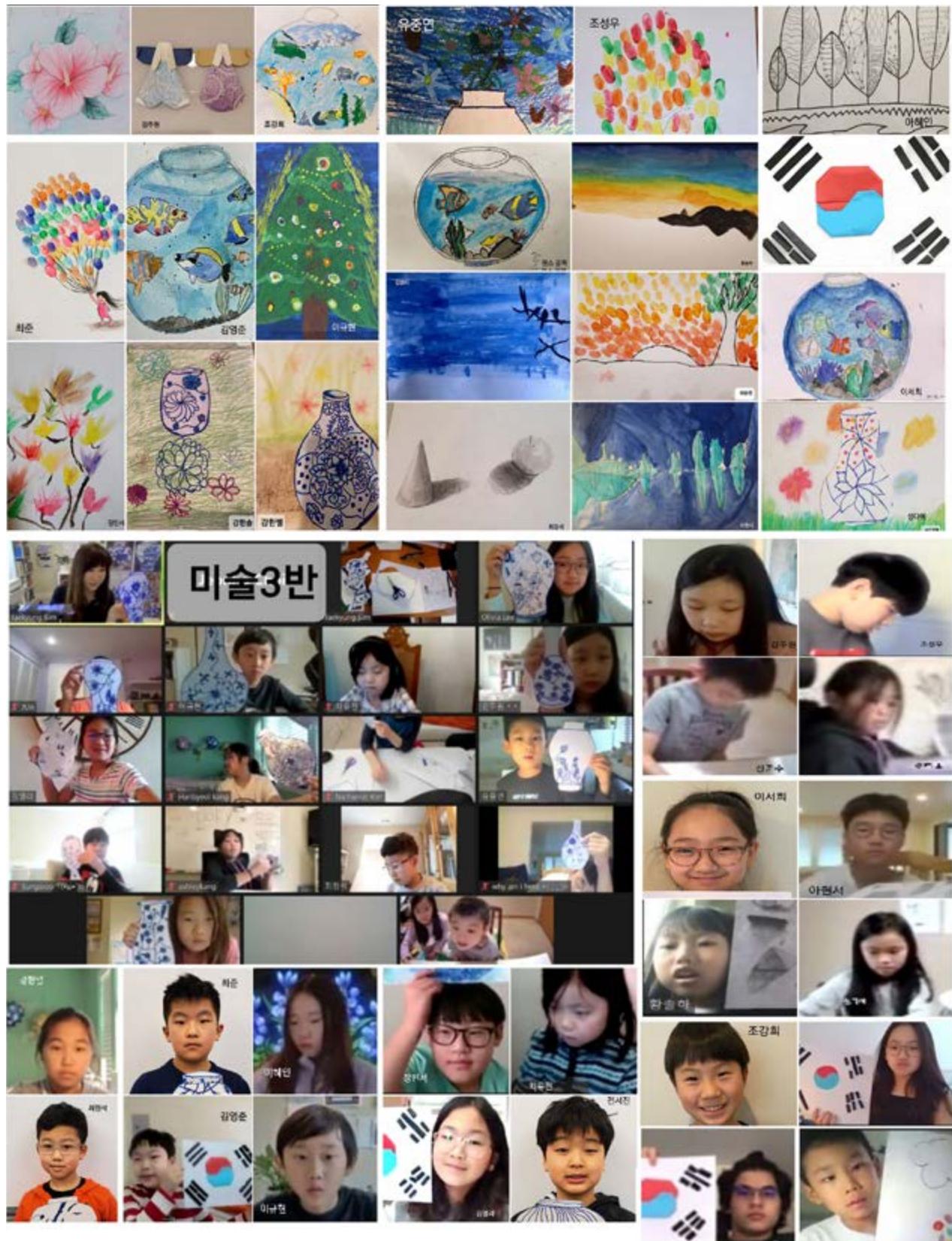
Enrichment Classes 특활반

Enrichment Class
Art 2 Crafts



Enrichment Classes 특활반

미술반 3



종이접기



Enrichment Class
Advanced Writing

글쓰기반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김서울

예 1.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다.
나는 웃장안에 숨어 있는데 둘킬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예 2. 엄마가 숙제를 하라고 하셨는데 끌래 게임을 했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부산에 노 가서 바닷가에 해파리가 나타나가니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외우면 캐이를 가에 해파리를 더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다 고 말해요~.

In response to: 글쓰기는 문장, 문단, 문장, 서기는 문장을 만들려 노력

아빠 책상
아빠는 책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엄마 책

바나나 물
바나나는 물 안에 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숙제는 저녁에 했습니다.
숙제 저녁 김해율

In response to: 견은 일 쓰기-생활문

2020년

게이밍 마우스를 받은 것도 좋았는데 할로윈 코스튬을 받은 것도 좋았어요! Fortnite 이런 게임에 있는 캐릭터, Drift, 코스튬 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똑같해요! 이제는 Fortnite Nerf 총만 사면 돼요. 아직 안 샀어요.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코스튬도 멋져서 이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Fortnite Drift 코스튬을 입고, 제가 받은 마우스로 Fortnite를 할 거예요.

코스튬

마우스

눈이 나빠집니다.
허리가 나빠집니다.
흔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한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한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말로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정이랑

수업 내용
제24주 주제: 꿈꾸는 나무들
교재: 『나는 꿈꾸는 나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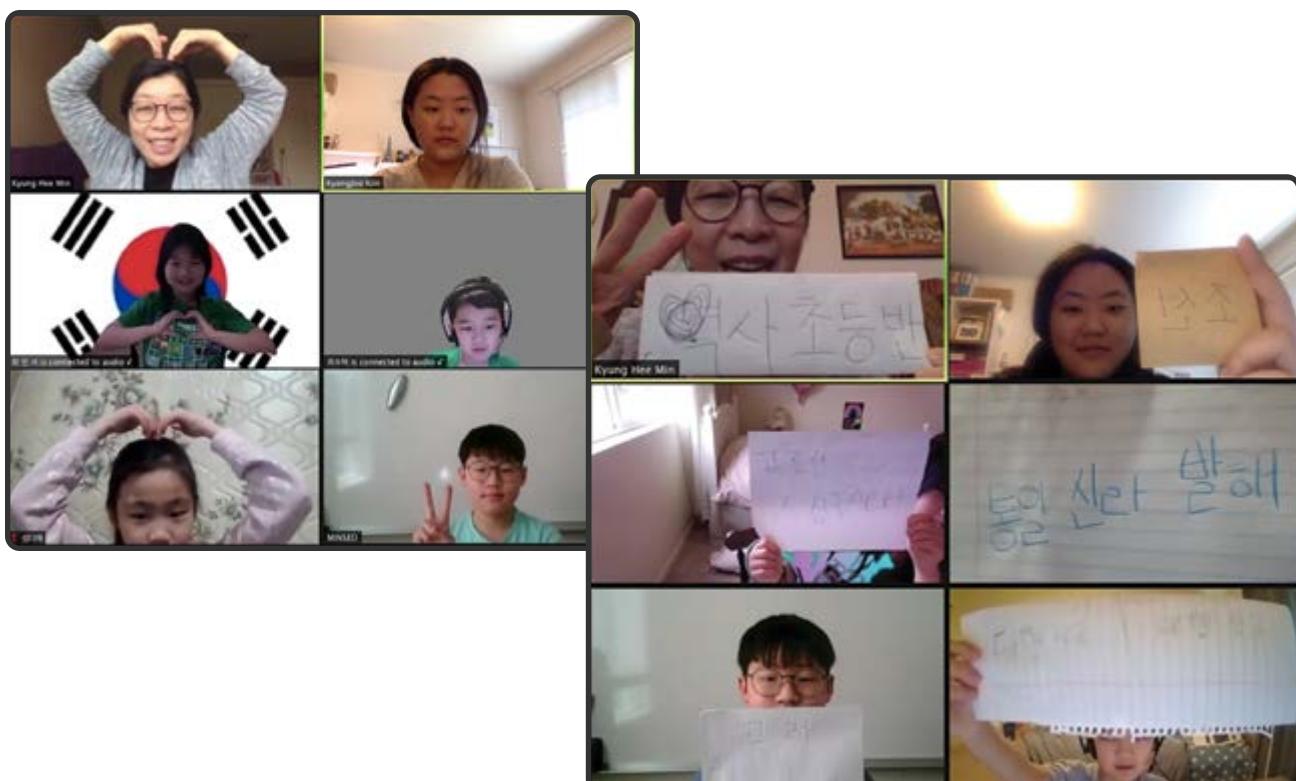
Enrichment Class
Sewing

손바느질반



Enrichment Class
Korean History 1

한국역사반



중고등 한국역사반



TOPIK & SAT2 Korean



가장 위대한 발명품과 발명되었으면 하는 물건은?

역사는 왜 중요한가

손채희 (10학년)

이여진(8학년)

가온소리 합창단



제 생각에는 전기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기는 우리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요리를 할 때 또는 불을 키 때, 전기는 우리의 삶을 아주 편하게 만든다. 또한 발전할 때도 전기가 아주 유용하다. NASA에서 위성을 우주로 보냈을 때, 전화기나 컴퓨터를 발명했을 때도 전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기가 없었으면 우리의 미래에 발전이 없을 것이다. 요리나 물을 마실 때 불을 켜서 해야 하고 불을 마음대로 못 켰을 것이다. 그래서 전기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제가 발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자동차이다. 이유는 지금의 차는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발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구의 대기가 망가지고 있다. 대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으면서 마실 수 없는 바다를만 많아지고 우리가 필요한 식수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차가 전기 아니면 또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덜 노출되게 할 수 있다. 그럼 환경에도 더 좋을 것이다. 또한 차가 날 수 있게 개발되면 지금 있는 도로들의 필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도로 관리비 대신에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거를 개발할 때도 그 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발명되면 지구도 더 좋아지고 모아진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줄 수도 있다.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의 실수가 일어날지 않도록 배우고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배우는 것도 그냥 재미있을 것이다. 역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 문화와 음악, 음식, 옷, 뭐뭐뭐 다 배울 수 있다. 역사를 배우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다. 지구의 풍부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 배우니까 우리와 다른 나라와의 어떻게 생겼는 것과 다른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 세계 지식을 늘릴뿐만 아니라 신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있는 거와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면 그 역사를 배운 것을 직업에 적용할 수 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다. 역사에 관련된 직업을 구하거나 개인 생활에 역사를 적용하여 취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많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 혼자 이익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이 많이 중요하고 학생이나 사람과 배우면 많이 이익하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꽃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꽃 할머니”를 읽고)

차유미 (9학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차유미입니다.

꽃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구출이 올 거라고 믿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을 잃었나요? 나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을 어떻게 간직 했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고통을 겪고 있으면 괜찮을 거란 믿음을 갖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 고통을 겪고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얘기를 통해 경의를 해야 합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고 다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군인들에게 증오가 있나요? 나는 그런 것을 당하면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일이 드물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것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 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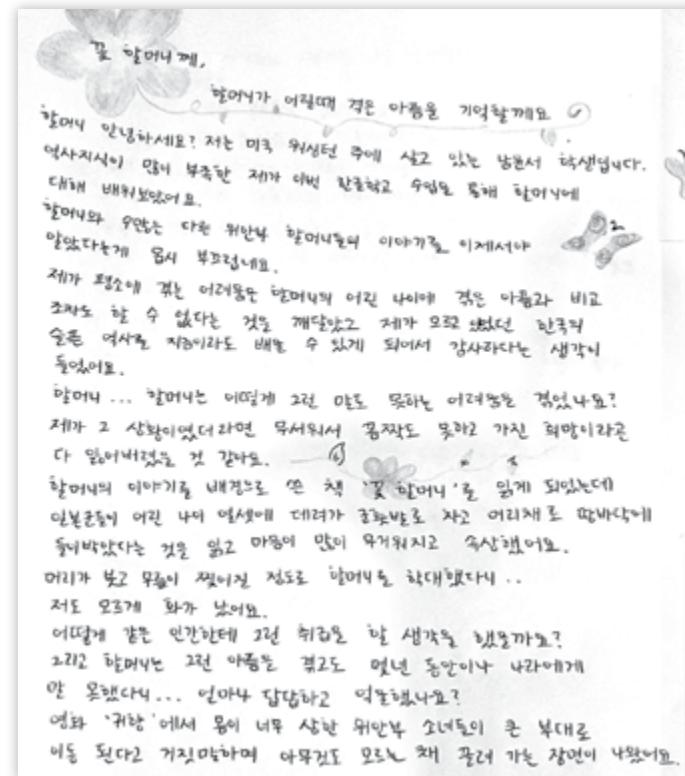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진희입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할머니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배웠어요. 숙제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동영상을 봤는데 제 마음이 매우 힘들었어요. 저보다 어린 소녀들이 납치를 당해서 낯선 곳으로 끌려 다니다니 상상이 안돼요. 일본 군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과 자유를 빼앗아 갔어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서 많이 속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대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 받아 그 분들을 안아 주는 장면을 TV에서 봤어요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소식을 가끔씩 들어요.

할머니, 요즘은 잘 지내고 계세요? 밥도 잘 드시고 병원에도 잘 다니고 계시나요?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할머니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미국에서 한진희 드림



네일들은 커녕 시체들이 쌓여진 땅 구덩이에 춤을 추고 서서 꽃 피워라고요.
그 소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 순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도 없이 오르는 나라에서 세상을 떠났다는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소녀들이 영화 속 나비처럼 다사 태어나 자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알고 싶어요.
예쁘고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나비로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알고 싶어요.

그 사건을 겪어 낸 할머니는 너무나도 용감하고 존경스러워요.
꽃놀이로 할머니를 딸을 예쁜 꽃 작품을 만들고 꽃을 보면 활짝 웃는다는 걸 알고 저도 같이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활짝 꽃처럼 항상 웃어주세요.

할머니가 계속 그려 꽃을 놀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어릴때 겪은 아픔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잊지 않을게요.
일본에서 저실험적인 사과로 받는 날도 생각하며 위안부 할머니의 활활 눈물을 잊지 않을게요.

남원서 도림

손채희 (10학년)

제24회 교내 말하기 대회



1학기 Pick-up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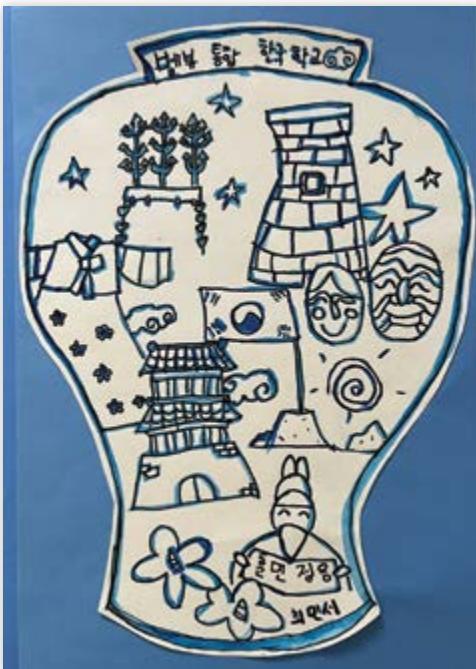
2학기 Pick-up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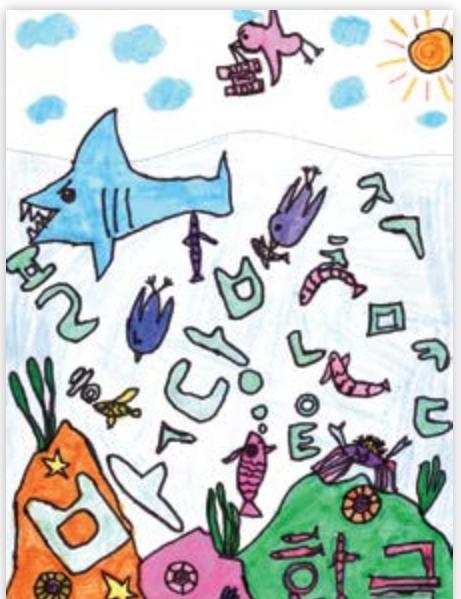
교지 표지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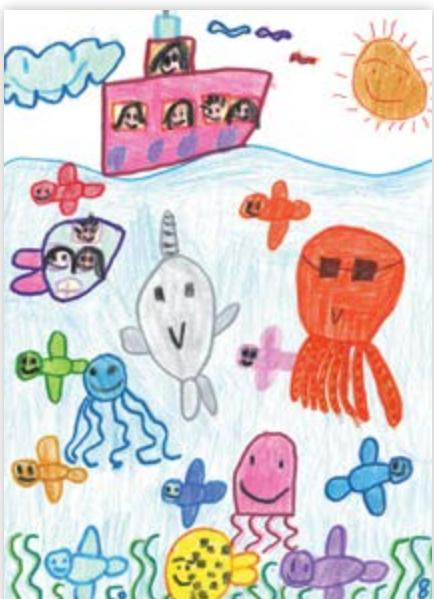
대나무반 이여진 (금상)



민들레반 최민서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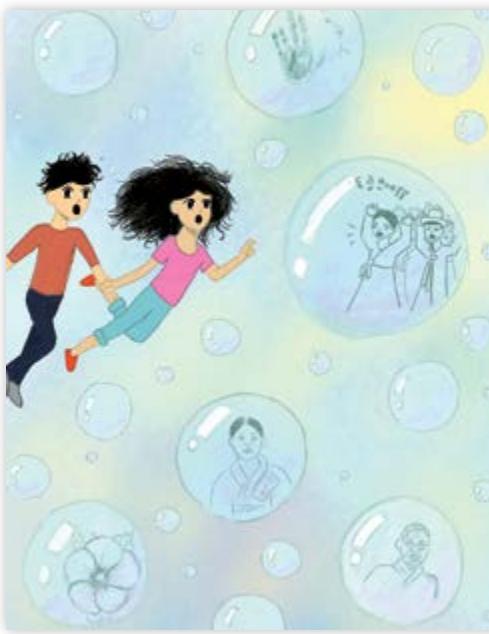
종달새반 조예나 (은상)



고양이반 조민서 (은상)



비둘기반 유나 프리스테라 (동상)



대나무반 장민우 (동상)



방울새반 김세린 (장려상)



진달래반 제나케이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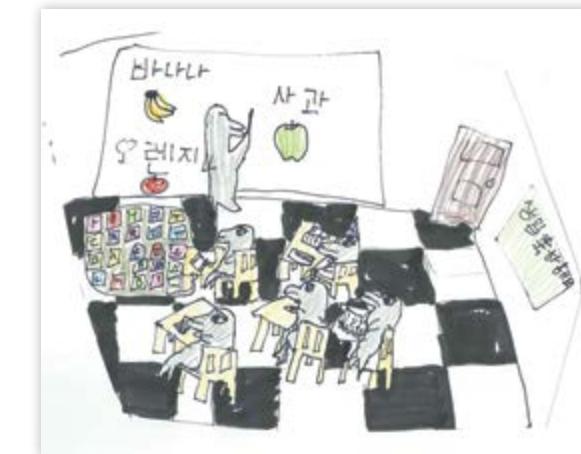
개나리반 오현택 (장려상)



채송화반 김해나 (장려상)



대나무반
홍서현
(장려상)



개나리반
미영시걸
(장려상)

벨뷰 통합 한국학교

온라인 예술제

United Bellevue Korean School
*2020-21 End of School Year
 On-line Celebration*



www.usbks.org bellevue@usbks.org

'USBKS Bellevue 2020-21 온라인 예술제'
 YouTube 채널에서
 각반 동영상, 합창반 동영상 등을 감상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fYsF8ZNfZewp6wEfx_1DNA




Online Version Yearbook
<https://www.usbks.us/yearbook/2020-21/Bellevue/>

한미 교육 문화재단 이사님들



이사: 정은구(이사장), 김재훈, 김시몬, 김형구, 박준림, 변종혜, 손제니퍼, 우상순, 윤부원, 윤태근, 이원섭, 이정훈, 이제선, 정승진, 채양식

자문이사: 곽종세, 김태강, 이익환

역대 이사장: 1 대 이익환, 2 대 이대원, 3 대 한만섭, 4 대 김중환, 5 대 김태강, 6 대 정승진, 7 대 이원섭, 8 대 윤부원, 9 대 김재훈, 10 대 정은구

역대 교장: 초대교장 윤부원, 2 대 임병수, 3 대 백지연, 4 대 조경선, 5 대 임주희, 6 대 이진아, 7 대 이세라, 8 대 권은정





Bellevue Campus 토요반

13620 SE Allen Road Bellevue, WA 98006

교장: 권은정 eunjung.kwon@usbks.org

교감: 이윤경 yoonkyung.lee@usbks.org

편집인: 이모란

발행인: 권은정, 이윤경

발행일: 2021년 5월 8일